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6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June Vol·258

CODE NAME:
BACH
ENSEMBLE **DITTO**
SEASON 7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금융!

BS금융그룹 The Classic

행복한 음악캠프 참가자 모집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 !

전국 최초 참가비 전액 무료 !

자연과 함께 하는 5박 6일의 음악 향연 !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꿈과 열정의 축제 !

BS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BS부산은행 / BS투자증권 / BS캐피탈 / BS저축은행 / BS신용정보 / BS정보시스템

BS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참가자 모집

The Classic

모집안내

- **모집인원 : 100명 (현악 · 관악 · 타악)**
- **지원 자격**
  - 대학생, 고등학생 기악전공자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주민등록 상 거주지(본인 또는 부모님)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인 학생
- **참가 비용 : 전액 무료**
- **참가 신청서 접수 : 2013년 5월 20일(월) ~ 2013년 6월 17일(월)**
  - 접수 방법 : BS팝부산 (www.popbusan.com),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3년 6월 20일)
  - 2차 오디션 : 2013년 6월 25일(화) ~ 6월 26일(수)
  - 결과 조회 : BS팝부산 홈페이지 (발표일 : 2013. 7. 4예정)

캠프내용

- **기간 : 2013년 7월 22일 (월) ~ 2013년 7월 27일 (토) (5박 6일 합숙)**
- **장소 : BS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소재)**
- **교과내용**
  - ① 전공별 개인 지도, 그룹별 공개 레슨
  - ② 오케스트라 발췌곡 지도, 전체 오케스트라 합주 지도
  - ③ 지도교수 특별 및 합동 연주
- **특 전 : 참가자 전원 수료 연주회 참가**
  - ① 일시 : 2013년 7월 27일(토) 15시
  - ② 장소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 **연주 곡목**

  R. 슈트라우스 / 교향시 돈 후안 작품 20
  R. Strauss / Symphonic Poem 'Don Juan' Op.20

  스트라빈스키 / 불새
  I. Stravinsky / The Firebird

  〈협연 : 바이올린 피호영 교수, 첼로 송희송 교수〉

  브람스 /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작품 102 外 수곡.
  J. Brahms / Double Concerto for violin and violoncello, in a minor Op.102
- **문의** : (재) BS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T. 051-620-3049 / 3067)
- **기타 세부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S팝부산 www.popbusan.com)

▶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 (교수진은 젊은 음악인들을 위해 재능기부로 참여하였습니다.)

예술총감독 오충근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바이올린 백재진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 부산문화재단 이사

바이올린 김동현
수원시립교향악단 악장
샌프라시스코 콘서바토리 초빙교수, 수원대학교 교수 역임

바이올린 피호영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서울시향 수석,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역임

바이올린 김동욱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쳄버뮤직소사이어티 리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역임

바이올린 이리나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IPB 단원, 부산MBC라디오 '이리나의 Kiss the Classic' 진행자

비올라 김은진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부산대, 창원대, 동아대 외래교수, 경북예고, 부산예중, 부산예고 출강

비올라 박주연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울산대학교 외래교수, Soul 쳄버오케스트라 대표

첼로 김진연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아시아문화예술연구소, 부산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

첼로 송희송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 음악감독

첼로 양욱진
인제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뉴저지모리스 주립대학교 음악교수 겸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역임

베이스 박희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플루트 김영미
계명대학교 공연예술대학 교수
한국플루트학회 사무국장

플루트 정승찬
고신대학교, 대동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예중 · 고, 브니엘예고 출강

오보에 이승희
서울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안양예술고등학교 출강

오보에 노영훈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부산대, 인제대, 부산교대, 부산예고 출강

클라리넷 김낙구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WE클라리넷콰이어 음악감독

클라리넷 손기영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경성대, 고신대, 동아대 외래교수, 브니엘예고 출강

바순 윤태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대, 경성대 외래교수, 부산예중 · 고, 브니엘예고 출강

호른 키야마 아키코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계명대학교 외래교수

호른 준지 다케무라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석
아이치(Aichi) 현립 예술대학 교수역임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 · 동아콩쿠르 심사위원
모스크바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트럼펫 김완선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석
가천대, 건국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트롬본 이정생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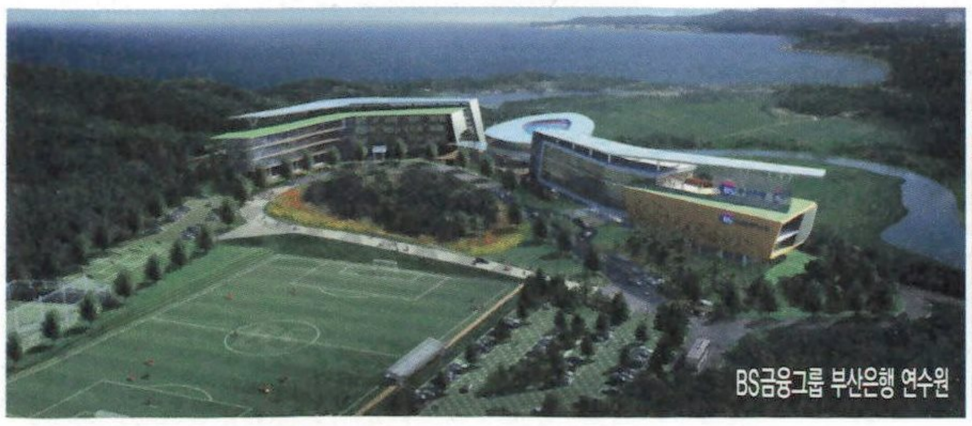
튜바 김남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 숭실콘서바토리 외래교수
Academia brass, solus brass, solist brass, 독일 MELTON ARIST

타악기 박광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 (기악과 교수)
IPFS 서울국제타악기페스티벌 음악감독, 서울 타악기앙상블 음악감독

타악기 김정우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동의대, 고신대 외래교수, 부산예중, 부산예고 출강

부지휘자 김상철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행복나눔 오케스트라 지휘자

▶ 최고의 캠프시설 (BS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



BS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BS부산은행 / BS투자증권 / BS캐피탈
BS저축은행 / BS신용정보 / BS정보시스템

The 21st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그 고독한 음의 Coda...

김진우 한 여름밤의 추억
Elgar Cello Concerto in E minor, op.85
Dvorak Symphony No. 1 in Cminor, op.3 'The Bells of Zlonice'

예술감독 **김원명**
경성대 교수

지휘자 **이효상**
T.I.F 상임지휘자

작곡가 **김진우**
중앙대 교수

이명진
첼리스트 / 동아대 교수

2013. 6.21 (금)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T.I.F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행·복·공·감 복권위원회 LOTTEMart 사하점 wbs 부산원음방송 사하인터넷뉴스 www.sahainews.co.kr BS 팝부산 Home plus 장림점

입장료 | 전석 2,000원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나눔티켓 입장 | 초등학생 이상

문의 | 051-220-5812 무대감독 | 전광수 음향감독 | 이광섭 조명감독 | 오종영

T.I.F심포니오케스트

한국-일본-캐나다를 잇는 현대무용 국제교류 프로젝트

DANCE-X

한국
김수현

몬트리올
도쿄
부산

2013. 6. 7 (금) ~ 8 (토)

캐나다
헬렌 시모노

일본
테이타 이와부치
카오리 세키

티 켓 20,000원
예 매 인터파크 T. 1544-1555 www.interpark.com
문 의 LIG아트홀 · 부산 T. 051-661-8701
공동주최 LIG 문화재단 こどもの城 AOYAMA ROUND THEATRE TANGENTE

일시
2013년 6월 7일 (금) ~ 8일 (토)
평일 8pm, 주말 5pm

장소
LIG아트홀 · 부산
(범일역 2번 출구 / 문현역 1번 출구)

THE AWARD SHOW! 2010-2011 New York City
Puffin Foundation, Ltd.
ARTS COUNCIL
NORTH CAROLINA ARTS COUNCIL www.ncarts.org
Japan Arts Fund
助成 : 公益財団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
(조성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EU JAPAN fest
Québec
Culture Japan

LIG 문화재단

LIG ART HALL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67회 정기연주회

상생 2013
환경생태 이야기

2013. 6. 20(목) PM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PROGRAM

01. 남도아리랑
02. 창작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
03. 성악창작곡 [시연가]
04. 아름다운 인생
05. 소리가 있는 창작관현악 [추억의 동백섬]
06.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지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 철 호

협연

소 리
박 성 희

소 리
정 선 희

북 송 강 수 | 팽과리 이 주 헌 | 장구 전 학 수 | 징 최 오 성

전/석/초/대

주 최 _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공동주관 _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후 원 _ 내일신문

공연문의 _ 을숙도문화회관 051) 220-5805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 607-3123

CONTENTS

2013 June Vol·258 culture.busan.go.kr

08 **커버스토리** | 2013 Ensemble DITTO Season 7 'BACH CODE'

10 **프리뷰**

14 **반갑습니다** | 디토앙상블 음악감독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영화, 만남 그리고 알랑 까발리에(Alain Cavalier) _ 전은정

20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⑱** | 그림 형제와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_ 이동신

22 **불멸의 거장 – 바그너 ①** | 21세기의 바그너 문화국 독일의 간판 _ 임채흥

24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㉘** | 부채그림 기려원유도(騎驢遠游圖)② _ 변광석

26 **그곳에 가면** | 가덕도 록봉민속교육박물관

28 **우리는 문화가족** |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

30 **리뷰** |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세계_ 하순봉
여성 방송인의 성장과 한국 방송의 발전 _ 남인용

32 **테마가 있는 여행** | 삼성현(三聖賢)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경산

35 Culture Life

61 부산문화회관 소식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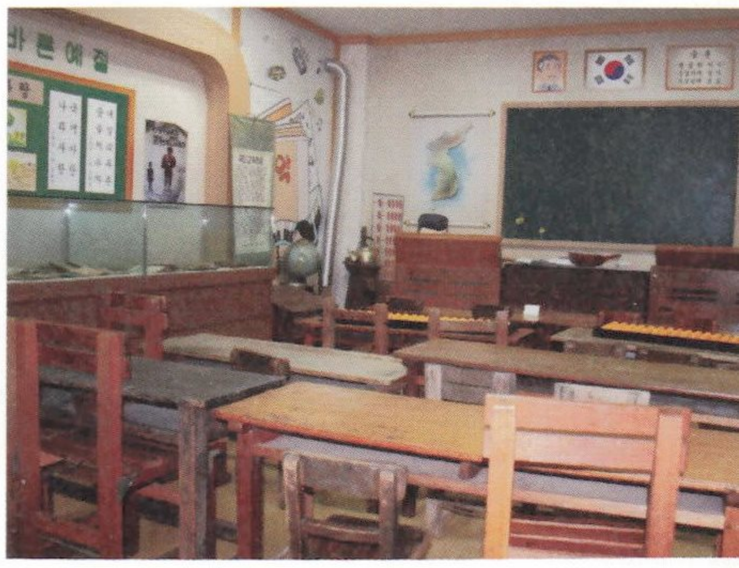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6월호 통권 258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3년 5월 25일

인쇄처 | (주)대주애드 Tel. 051)803-663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Ensemble DITTO Season 7
BACH CODE

클래식 음악계의 꽃미남 스타들로 구성된 Ensemble DITTO가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6월 25일 부산을 찾는다.

대한민국 클래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Ensemble DITTO는 2007년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보다 많은 관객에게 실내악을 소개하고자 결성한 프로젝트 앙상블팀이다. 2009년에는 DITTO Festival로 발전시켜 실내악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클래식 음악을 공감해온 DITTO는 데뷔 후 음악 뿐만 아니라 화려한 마케팅, 혁신적인 시도로 많은 화제를 낳았다. 팀명인 DITTO는 클래식 중 기분 전환을 위한 밝은 음악을 뜻하는 '디베르티멘토(Divertimento)'의 약자이자 '동감' 을 뜻하는 어구. 기분 좋은 실내악, 나아가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실내악을 꿈꾸는 디토는 현재 음악감독인 리처드 용재 오닐(Viola)을 비롯해 스테판 피재키브(Violin), 마이클 니콜라스(Cello), 지용(Piano), 다니엘 정(Violin)이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디토는 실내악 공연으로서는 드물게 일반 대중을 클래식 공연장으로 모이게 하며 2008년과 2009년 예술의전당 유료관객 1위 기록, 10개 도시 순회공연을 모두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2010년, 일본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한 디토는 그해 6월 도쿄국제포럼과 오사카 심포니홀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7,000석),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클래식 시장에서 한국 클래식 콘텐츠의 더 큰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난해 5월 아시아 최대의 클래식 페스티벌인 도쿄 '열광의 날'에 초청받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다.

디토를 이끌고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은 비올리스트로서 그래미상 베스트 솔리스트 부분 노미네이션 뿐만

일 시 6월 25일(화)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0,000원·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앙상블 디토 – 틀을 깬다. 대중과 호흡한다" – SBS

"입장부터 파격이었다" – 조선일보

"작품을 연주한다는 건,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음악은 결국 '나눈다'는 것이니까" – 리처드 용재 오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아니라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받은 드문 연주자 중 한 사람이다. 런던 필, LA 필,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알테 무지크 쾰른 등과 협연, 독주자로 미국의 카네기홀, 에이버리 피셔 홀, 케네디센터와 런던 위그모어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리사이틀 무대를 가진 바 있는 리처드 용재 오닐은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정식 단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니버설 클래식 소속 연주자로서 지금까지 7장의 솔로 음반을 발매, 총 14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용재 오닐은 교육자로도 헌신하여 현재 UCLA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피아니스트 지용은 2001년 10세의 나이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 아티스트 콩쿠르에서 사상 최연소로 우승, 쿠르트 마주어가 이끄는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천재적인 재능과 스타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지용은 2009년 임동혁을 잇는 새로운 피아니스트로 디토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8년 앙상블 디토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한국 활동을 시작한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는 한국대표 문인 故 피천득의 외손자로, 2002년 미국 최고 권위의 클래식 상인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했다. 현재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빈틈없는 기술과 시적인 연주로 청중을 사로잡고 있다.

캐나다 출신의 첼리스트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 부수석으로 활동한 바 있는 마이클 니콜라스는 많은 동시대의 저명한 현대음악 작곡과와 긴밀히 작업하며 인터내셔널 컨템포러리 앙상블(ICE) 멤버로 뉴욕 링컨센터의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빈의 빈 모던 페스티벌, 보스톤, 덴버, 노스 캐롤라이나, 파리에서 연주를 이어왔다. 니콜라스는 2009년 앙상블 디토 시즌3에 피아니스트 지용과 함께 새로운 멤버로 합류했다.

2011 그래미 상 실내악 부분을 수상한 파커 콰르텟의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힘차고 다재다능한 음악가 중 한 사람이다. 2002년부터 파커 콰르텟의 바이올린 1주자를 맡아 뉴욕 카네기홀, 미국 국회도서관, 빈 무지크페라인, 런던 위그모어홀 등의 공연을 통해 널리 인정받는 연주를 펼쳐왔다. 특히 2009-11년 클리블랜드 콰르텟 어워드상, 콘서트 아티스트 연합 콩쿠르 우승, 콜먼 실내악 콩쿠르, 보르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 등 유수의 훈장과 상을 받았으며 리게티 현악 사중주 전곡을 녹음한 파커 콰르텟의 음반은 2011년 그래미상 실내악 부문을 받았다.

2013년 '디토'가 선택한 테마는 '바흐'.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가장 완벽한 음악이라고 일컫는 바흐의 음악을 테마로 젊은 아티스트들의 열정을 더하여 바흐 음악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Ⅲ

■ 지휘 리신차오

■ 피아노 김선욱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함께 교향 음악의 정수이자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6월 27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세번째 무대를 이어간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마음의 여유가 반영되어 낭만과 서정이 조화로운 '교향곡 제4번'과 김선욱이 협연하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으로 싱그러운 초여름의 낭만을 선사한다.

베토벤이 테레제와 약혼한 1806년, 베토벤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당시 작곡된 '교향곡 제4번'은 장대한 제3번과 투쟁적인 제5번에 비해 그리 대수롭게 생각되지 않는 것처럼 다뤄지고 있지만, 향기로운 로맨티시즘과 우아한 뉘앙스, 그리고 충실한 서정성 등이 잘 조화된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슈만은 제4번을 교향곡 제3번 영웅과 제5번 운명과 비교해 '두 북구신화(北歐神話)의 거인(巨人)사이에 끼어 있는 청순한 그리스의 아가씨 같은 교향곡'이라 말한 바 있다. 1807년 3월 로프코비츠 후작의 저택에서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으며, 베토벤의 후원자 리히노프스키 공작의 친척인 오펠스도르프 백작에게 헌정되었다. 연주시간은 35분.

김선욱의 협연으로 만나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브람스가 45번째 생일 전날 밤,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의 주제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지만 오랜시간이 지난 1881년 7월 7일, 작곡을 마무리했다. 일반적인 협주곡 형식과는 달리, 스케르초 풍의 제2악장을 덧붙여 4악장의 교향곡적 형식을 취하고 있어 '피아노로 연주하는 교향곡' 또는 '피아노를 위한 교향곡'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비단 형식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비르투오조적 카덴차 등 피아노 독주가 기교적으로 어렵고 화려하면서도 돌출되지 않으면서 오케스트라에 완전히 융화되도록 작곡되었다는 점에서 교향악적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연주시간은 50분.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김선욱은 세계 권위의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및 최연소 우승으로 이름을 떨치며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다.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선욱은 3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여 10살 때 금호영재 콘서트 시리즈의 독주회 무대를 통해 데뷔하였다. 국내 정상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호평을 받으며 피아니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진 김선욱은 리즈 콩쿠르 외에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2004),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국제 콩쿠르 최연소 우승(2005), 제1회 대원음악상(2005), 금호음악인상(2007)을 수상한 바 있다.

김대진의 제자로 유명한 김선욱은 런던 필하모닉(바실리 시나이스키 지휘),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야노프스키 지휘),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이반 피셔 지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정명훈 지휘), BBC 필하모닉(자난드레아 노세다 지휘) 등 굴지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 브뤼셀 클라라 페스티벌, 본 베토벤 페스티벌, 루르 클라비어페스티벌, 미국의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통영 국제음악제 등 세계의 여러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 시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합창단 제146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추모 및 G.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Messa da REQUIEM

■ 지휘 오세종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레퀴엠(Messa da REQUIEM)'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특히 올해는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맞아 베르디(1813~1901)의 기념비적인 '레퀴엠'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울산시립합창단과 유명 솔리스트들과 함께 웅장한 무대를 연다.

'레퀴엠'은 죽은 이를 위해 드리는 미사곡으로 로마 기독교의 전례에 사용되었으며, 오라토리움 음악의 한 장르에 속한다. 베르디의 레퀴엠은 당시 유행하던 레퀴엠 양식에서 조금 벗어나 독창과 중창의 비중이 한결 더 높고, 극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음악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베르디 말년의 대표작이다. 이 곡은 원래 1863년 존경하던 선배 작곡가 로시니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12명의 작곡가와 함께 작곡에 착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레퀴엠〉의 마지막 부분 'Libera me'만 작곡했다. 이후 1873년 베르디가 늘 존경했던 알렉산드로 만초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기 위해 '레퀴엠' 전 곡을 완성하여 1874년 성 마르코 성당에서 베르디 자신의 지휘로 초연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을 지닌 성신여대 교수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인 Wiener Staatsoper에 데뷔한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따뜻한 음색과 유연한 레가토를 구사하는 테너 윤병길, Vissi d'arte 국제콩쿠르 1위(2000), 이태리 Umberto Giordano 국제콩쿠르 1위(2003)한 베이스 김남수가 솔리스트로 출연한다.

소프라노 오미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탄탄한 음악성과 무대매너로 품격 있는 무대를 선사해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메조소프라노 양송미는 동아 음악콩쿠르와 스페인 비냐스 콩쿠르에서 입상하였으며, 2004년 귀국 후 국립오페라단의 국내초연 오페라 모차르트의 'Idomeneo'의 주역을 비롯해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올랐다. 테너 윤병길은 Ruggero Leoncavallo 국제콩쿠르 Pagliacci 특별상을 시작으로, Enrico Caruso 국제콩쿠르, Camillo de Nardis 국제콩쿠르, Vissi d'Arte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베이스 김남수는 독일 로스톡 시립오페라극장 전속 솔리스트,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전속가수로 활동하며 음악의 폭을 넓혀 왔다.

일 시 6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소프라노 오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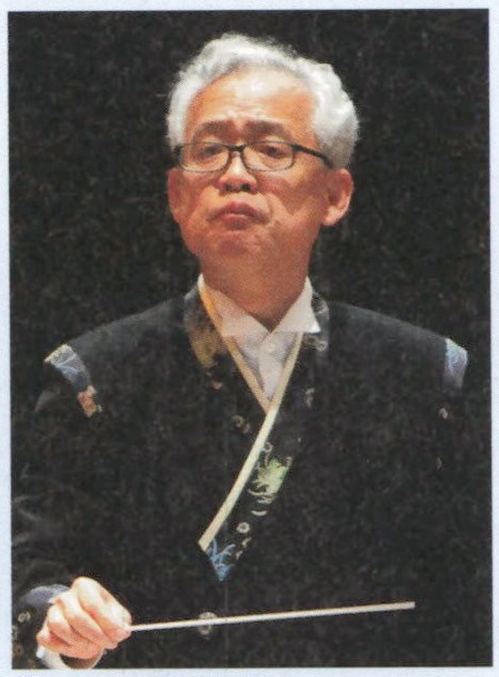
■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 테너 윤병길

■ 베이스 김남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상생 2013, 환경생태이야기


■ 수석지휘자 김철호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13, 환경생태이야기'가 6월 20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13'은 오늘날 인류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환경생태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철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자연의 소리'인 우리 국악기로 빚어내는 흥과 신명의 무대가 펼쳐진다.

첫곡은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인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을 주 테마로 한 백대웅 작곡 '남도아리랑'. 진도아리랑의 남도 육자배기선율과 밀양아리랑, 메나리 가락 그리고 곡 중간에 등장하는 활기찬 타악 연주가 우리 음악의 멋과 흥에 빠지게 한다.

이어지는 창작판소리 '흥부가' 중 눈대목인 '박타령'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가, 이지영 곡 '시연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고엽'으로 알려진 원곡의 주제선율을 국악적 느낌으로 변형시킨 '시연가'는 대중에게 친숙한 보사노바, 쌈바 등의 다양한 리듬을 활용, 동서양의 흥이 서로 어우러지는 신선한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진주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박준현이 객원협연자로 국악선율과 어우러지는 특별한 '고엽'을들려준다.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음악으로 표현한 김선제 곡 '아름다운 인생'은 애절한 아쟁과 해금선율을 바탕으로 모듬북과 태평소의 가락이 곁들여져 피곤에 지친 삶을 신명으로 되살린 작품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동백섬을 소리가 있는 창작관현악으로 작곡한 백성기 곡 '추억의 동백섬'은 아름다운 동백섬을 노래한 강동래 시인의 동명의 시를 음악으로 탄생시킨 작품으로, 곡에 등장하는 판소리 창법의 이중창은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의 앙상블로 들려준다.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13'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대는 박범훈 곡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1988년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모듬'은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장단변화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가락과 결합시킨 곡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주헌(꽹과리), 전학수(장구), 최오성(징), 송강수(북)가 신명넘치는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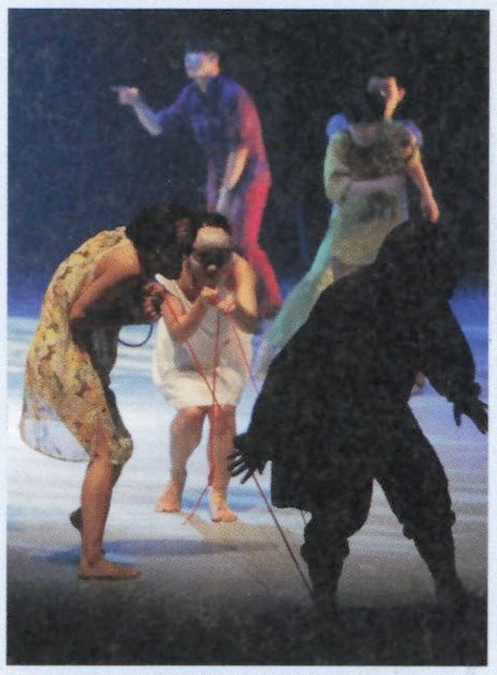
일 시 6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 소리 박성희

■ 소리 정선희

■ 사물놀이 송강수, 이주헌, 전학수, 최오성

제22회 부산무용제


■ 2012년 부산무용제 대상팀
JULY Dance Company

부산지역 창작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7월 펼쳐지는 무용 예술가들의 축제이자 경연장인 부산무용제 2013년 무대가 7월 1일부터 3일간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창작무용 경연을 통해 지역의 전문 무용단체와 무용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온 부산무용제는 10월에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선발하는 부산의 중요한 무용행사 중 하나.

올해는 발레 1팀, 현대무용 1팀, 한국창작무용 3팀의 경연과 개, 폐막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7월 1일 부산발레연구회와 Dance company 미르의 경연을 시작으로 2일 부산한국춤연구회, M-note 현대무용단, 마지막날인 3일은 한퍼포먼스 컴퍼니가 경연을 펼친다. 부산발레연구회, M-note 현대무용단 등은 부산무용제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단체들로 올해 새롭게 펼쳐질 춤의 향연에 기대가 높다.

첫 무대를 여는 부산발레연구회는 김한나가 'Aion(영원한 시간의 흐름은...)'로 부산무용제에 첫 도전한다. 부산대학교 무용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한나는 세상에 없는 고통과 원한을 간직하고도 꿈과 사랑 그리고 용서와 희망을 갖는 인간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발레로 담아 낸다.

Dance company 미르는 중요무형문화제 제21호 승전무(북춤, 검무) 이수자인 대표 변지연이 직접 안무한 '홀로아리랑'을 선보인다. '홀로아리랑'은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보고인 어머니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성의 소박한 일상을 통해 우리네 삶에 녹아있는 아리랑을 자연스럽게 토로하여 맺고 풀고 삭이며 살아가는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의 과정을 우리 춤으로 표현한다.

둘째날인 2일에는 올해 부산무용제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부산한국춤연구회와 다양한 활동을 선보여온 M-note 현대무용단이 참가한다. 부산한국춤연구회는 젊은 안무가 지유리의 '生 : 순리'로 부산무용제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지유리는 다시 퍼지고 흩어져 고요히 흘러가는 생명의 씨앗을 통해 생의 소중함을 우리춤으로 풀어낸다.

신승민의 안무로 만나는 M-note 현대무용단 '보라보다'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 경험적 상태의 느낌 한 찰나에 파도처럼 일어난 생각, 그 경험적 상태의 느낌과 감성을 춤언어로 표현한 작품이다.

마지막 경연 참가팀인 한퍼포먼스 컴퍼니는 춤패 배김새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퍼포먼스 컴퍼니 대표 한수정의 안무작 '고래, 달을 품다'로 부산무용제에 도전한다. 부산, 창원, 울산시립무용단 단원을 역임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이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한수정은 제20회 전국무용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래, 달을 품다'는 바다와 강, 산, 온천의 사포 지향, 물의도시 부산의 이미지와 오랜 역경을 극복해낸 강인한 부산, 부산사람들을 한국적 춤사위로 담아낸다.

한퍼포먼스 컴퍼니의 공연에 이어 폐막식에서는 대상 등 우수작품 및 안무가에 대한 시상식과 지난해 무용제의 대상작품인 JULY Dance Company(안무/박재현)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JULY Dance Company는 전국 15개 시·도 대표 팀이 참가한 지난해 전국무용제에서 '노년의 기억'으로 은상을 차지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일 시 7월 1일(월)–3일(수)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일반 10,000원·학생 5,000원
문 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이 이끄는 앙상블 '디토'가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6월, 부산을 찾는다. 한국 클래식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앙상블 디토는 2007년 시작된 실내악 프로젝트팀. 이제 디토는 실내악을 넘어 보다 많은 사람들과 클래식을 공감하기 위해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부산 공연에 앞서 리처드 용재 오닐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디토, 얼마만의 부산 연주이신지요?

부산은 바다가 있어서 무척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작년에는 여름에 디토와 함께 갔었고, 가을 BIFF 때 야외 극장 특별 연주에 초청받아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졌는데 무척 즐거웠던 저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DITTO는 앙상블 이름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이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캐주얼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나 그 영화 좋아해!" "Ditto(나도)"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일상적인 속어가 아닌가 했었죠. 하지만 생각할수록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음악용어인 디베르티멘토(Divertimento)의 줄임말이면서, 쉽게 쓰인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나 오늘 디토 공연 보러 가!" "Ditto(나도)!" 이런 대화가 가능한것 처럼, 디토는 많은 사람에게 열린 이름입니다.

▶디토 출발 당시 '꽃미남 그룹'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럽지 않으셨는지요?

디토가 클래식을 보여주는 방식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어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지만, 공연장으로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면, 이 일은 어렵지만 분명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페라나 락, 팝 공연도 아닌, 실내악 콘서트인데 7년 간 매진이 되고 있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토와 함께 실내악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반응하는 팬들의 변화가 느껴지나요?

매년 투어를 가는 곳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토의 관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첫 시즌 때 디토 공연 때 와서 팬이 되어 7년 째 보는 팬도 많고, 새로운 관객도 많습니다. 클래식을 처음 듣는 사람과 이미 경험을 쌓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또, 해외 공연장에는 노년층이 많지만 한국에는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반응은 항상 열광적이라 항상 감사한 마음이듭니다. 이런 구성의 관객은 클래식 관객을 개발하고 유지시키는데 아주 이상적인 형태이죠.

▶디토가 추구하는 음악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우리는 음악 자체에는 아주 진지하게 접근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앙상블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년 주제도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연주가 될 것입니다.

▶디토 멤버들에 대한 소개?

이번 시즌 멤버는 스테판 재키브와 지용, 다니엘 정, 마이클 니콜라스와 게스트 아티스트인 김시우입니다. 스테판은 환상적인(fantastic and amazing) 바이올리니스트이죠.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소중한 동료로 그와의 연주는 늘 디토에 자극을 줍니다. 지용은 어린 나이에 놀라운 커리어를 쌓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두 멤버의 솔로 활동 역시 주목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파커 콰르텟의 리더로 작년부터 디토와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내악을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올해도 함께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현대음악에도 열정적이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첼리스트죠. 멤버 모두 뉴욕에 있을 때는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친구로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뮤지션으로도 존경합니다. 서로 '함께 연주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실내악은 절대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올해의 음악은 바흐 코드?

이번 시즌은 아주 도전적인 시즌입니다. 바흐는 정말 완벽한 작곡가로, 음악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문명에서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바흐 이후의 슈퍼 휴먼이 베토벤, 그리고 바흐를 재발견한 멘델스존입니다. 이번 레퍼토리는 그렇게 엮여 있습니다.

▶부산음악팬들을 위한 바흐 코드 감상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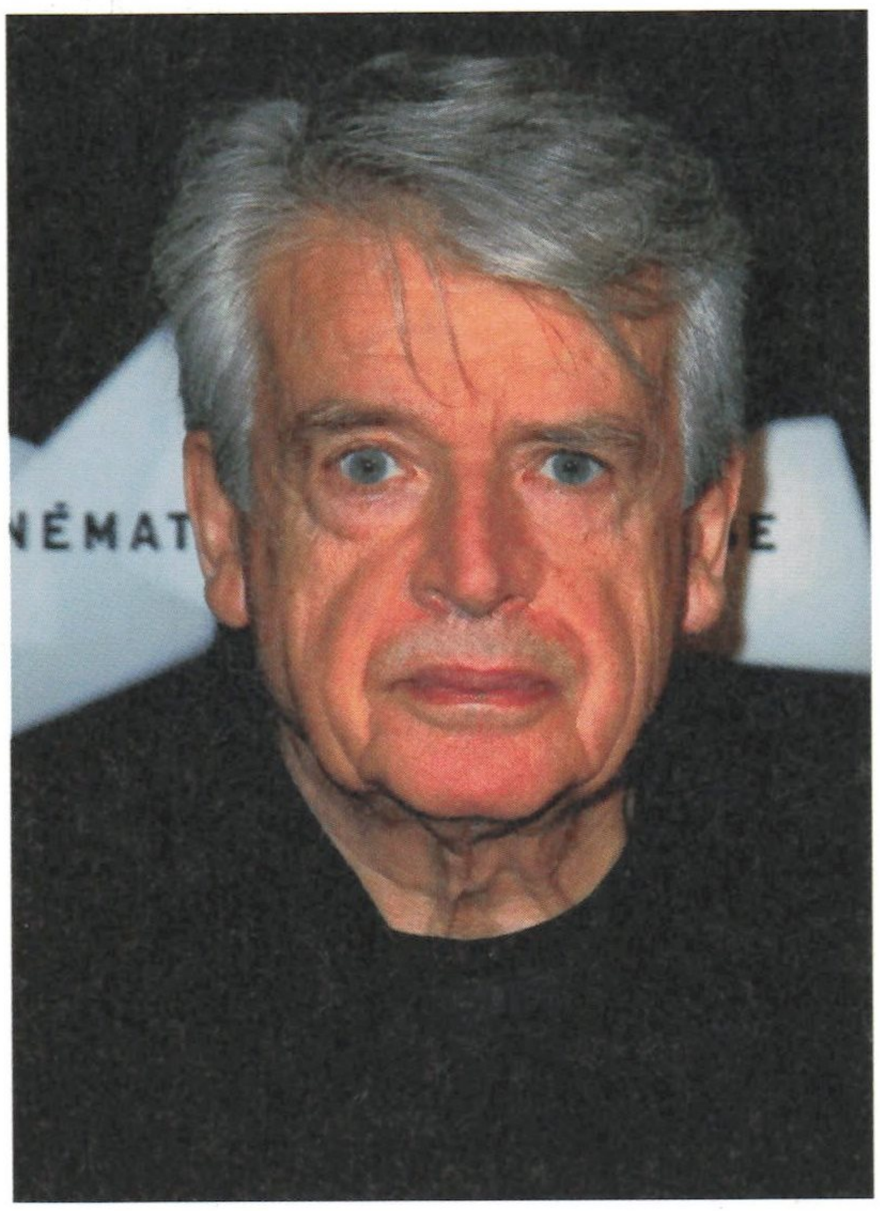
특히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위대한 변주곡으로, 수학적으로 완벽한데 바흐는 거기다 인간의 모든 감정까지 담았습니다. 연주할 때면 마치 그것을 해독하는 느낌입니다.

▶디토를 기다리는 부산음악 팬들에게?

부산은 디토 모두가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올해도 방문할 생각을 하니 흥분됩니다. 많이 와서 1년에 한 번 뿐인 우리 공연을 마음껏 즐겨주기를 바랍니다!!

영화, 만남 그리고 알랑 까발리에(Alain Cavalier)

■ 전은정_ 프랑스통신원



■ 알랑 까발리에 (2012년 4월 26일 프랑스 시네마떼끄에서 열린 알랑 까발리에 회고전 개막식에서, 사진 출처 : 프랑스 시네마떼크 홈페이지)

5월이다. 프랑스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년 중의 한 달을 꼽으라면 5월이 아닐까 한다. 긴 겨울을 지나 3월 말이면 공식적인 봄이라는 것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진정한 따스함을 만날 수 있는건 5월은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2주간의 부활절 바캉스가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공휴일이 많은 달. 그리고 영화인들에게는 아니 굳이 영화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깐느영화제가 열리는 달이기도 하다. 올해도 여지없이 여기저기에서 깐느영화제 특집을 다루고 세계의 감독들, 배우들, 제작자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말 그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영화인들의 만남이 이뤄지는 것이다. 명실공히 세계 3대영화제 중의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세계영화산업장이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상업화가 되어버린 영화제라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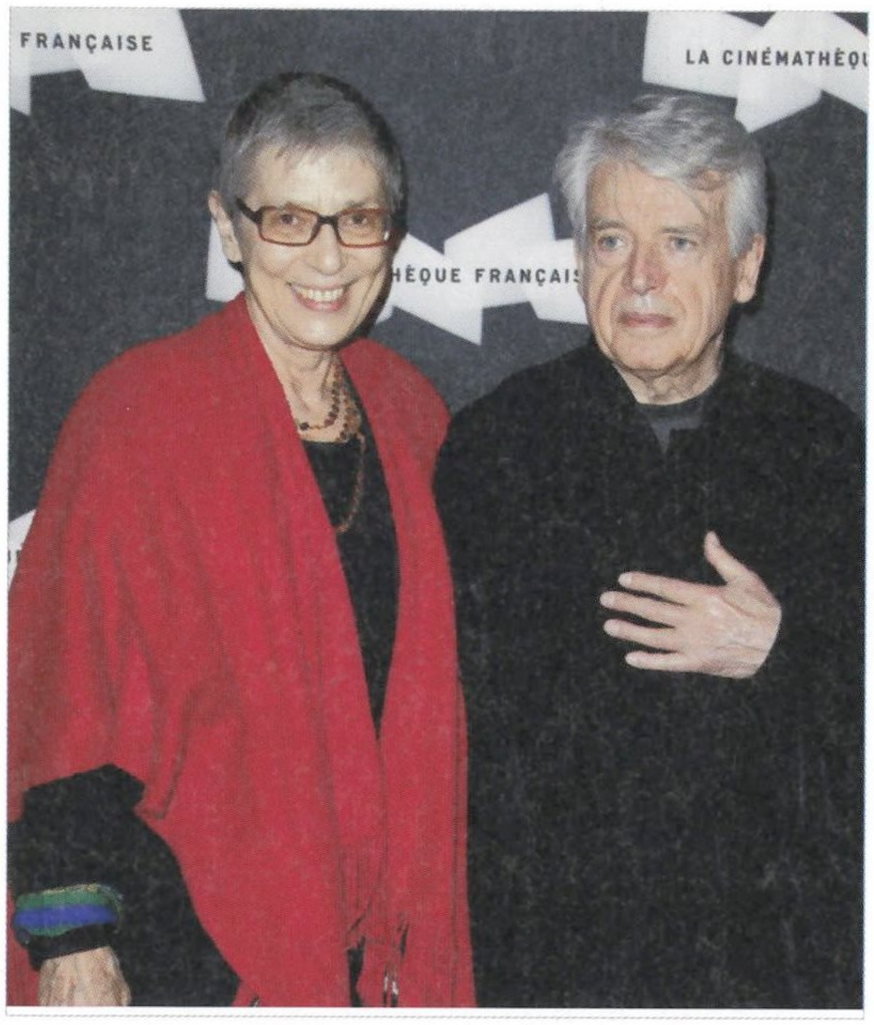
그런 반면 상업성을 뒤로하고 작가의 개성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관객들을 맞이하는 영화제들이 공존하며 수십년째 영화사에 남는 고전영화들만 상영하거나 소위 저자본 영화, 예술영화 상영을 담당하는 작은 영화관들이 곧곧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프랑스이기도 하다. 게다가 스스로 자본에 종속되기를 거부하며 제도권에서 벗어나 자기의 고유한 세계를 표현하는 많은 작가들 또한 프랑스 영화의 저력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박하지만 엄격한 영화세계를 그리고 있는 프랑스감독 알랑 까발리에(Alain Cavalier)는 세계영화사에 독자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건 한 다큐멘타리 수업시간. 한국에서 영화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그저 영화라면 일반상식정도만 가진 내가 생소한 영화들과 감독들로 인해 흥미로움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하던 영화과 일학년을 갓 시작했을 때였다.

〈매트리스 제조인〉(La Matelassière)이라는 13분정도의 인물단편으로 별 특별할 것도 없는 매트리스를 만들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한 할머니에게 감독은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어떤 작업들이 이뤄지는지,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고정된 카메라는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오십여년에 이른 바느질로 인해 굽은 손, 익숙하고 섬세한 작업손길, 그리고 매트리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서너가지 도구들에 집중한다.

칠십 여년이라는 그녀의 인생을 십삼분이라는 시간속에 담는다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



■ 알랑 까발리에(우)와 프랑소와즈 위도프(좌) (프랑소와즈 위도프는 알랑 까발리에의 생의 동반자이며 그의 모든 작품의 편집을 맡고 있다. 사진출처 : 프랑스 시네마떼끄 홈페이지)

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려한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해설이나 자막을 배제하고 작지만 본질적인 그녀 특유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는 작가의 시선은 잊혀져 가는 수공업자들을 보며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한 '사람'을 응시한다. 알랑 까발리에의 '응시'는 카메라 밖의 하나의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일'이라는 매개체로, 그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두개의 삶이 서서히 동화되어간다. 그리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할 것이며 이것이 자기 인생이라며 수줍게 미소짓는 그녀의 얼굴에 시간의 중후함이 묻어나온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작가가 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이야기를 작위적인 설교없이 진실되게 이야기한다. 알랑 까발리에는 어떤 인물의 화제가 될 수 있는 극적인 이야기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두 존재의 만남을 카메라로 담아내는 것이다. 영화란, 특히 다큐멘타리라는 것은 뭔가 거창하고 강한 메세지를 줘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던 나에게, 알랑 까발리에의 다큐멘터리(왠지 이 단어는 아직도 나에게 거대하게 다가온다)는 신선한 충격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 다가왔다.

이 단편은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만들어진 스물 네개의 인물화 시리즈를 모아서 하나의 작품집으로 낸 〈알랑 까발리에의 24개의 인물화〉(24 portraits d'Alain Cavalier) 중 첫번째 이야기이다.

처음에 TV용으로 만들어진 이 단편들은 각기 다른 스물 네개의 직업을 가진, 이제는 사라져가는 수공업자들, 특히 여자장인들을 담고있다. 매트리스 제조인, 실짜는 여인, 화관제조인, 자수공예가, 제본인, 의자직공인, 스테인드글라스 제조인 등등 각각의 인물화는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촬영팀(한명의 녹음감독과 촬영감독)과 함께 하루동안(장인들의 일하는

■ '매트리스 제조인' 의 한 장면 : 부르베부인의 손

■ '매트리스 제조인'의 한 장면 : 부르베부인

■ 2006년 아르떼(arte) 비디오에서 DVD 로 발매된 '알랑 까발리에의 24개의 인물화'의 표지 (사진출처 : 아르떼방송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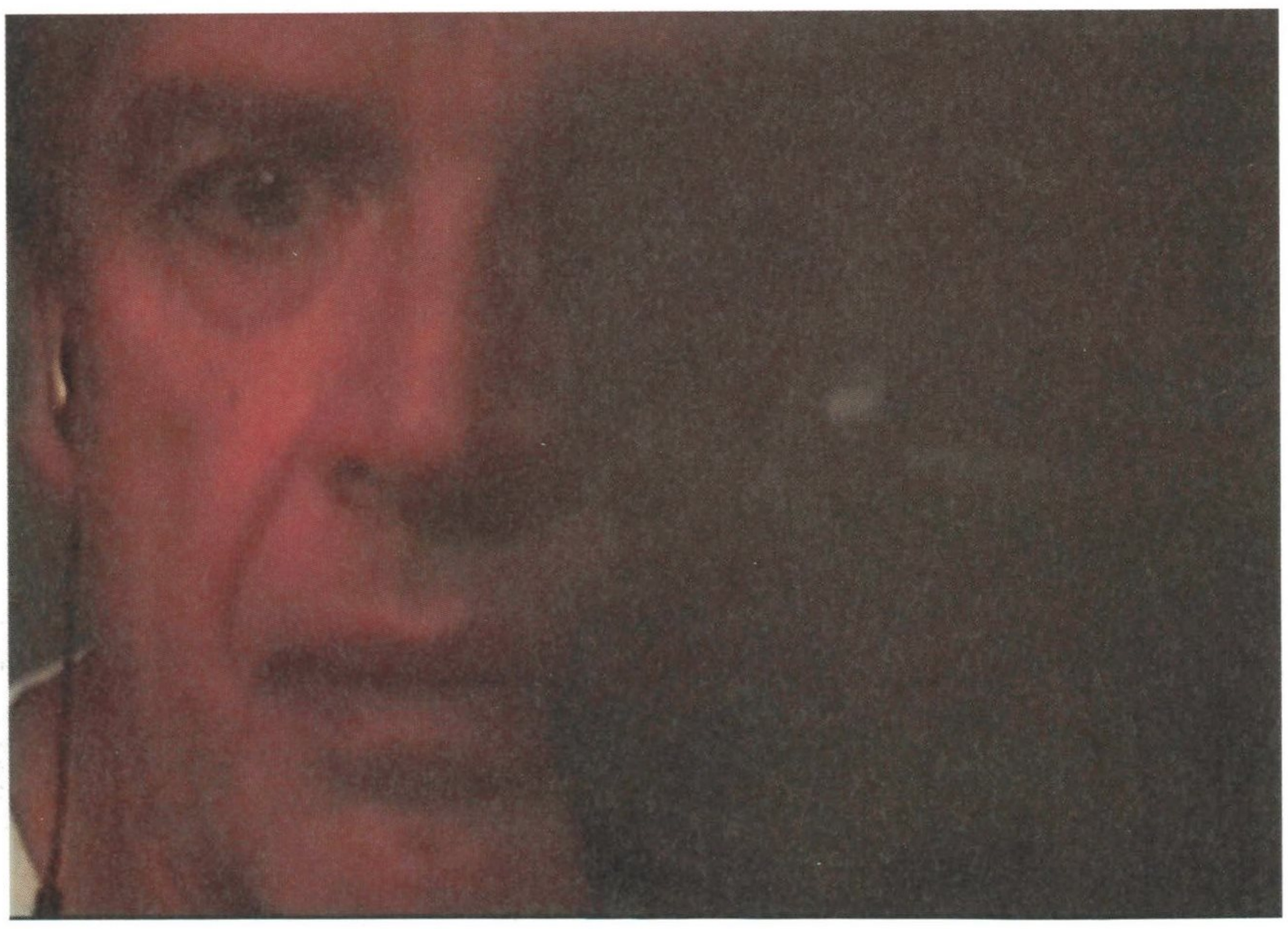
시간과 동일한), 어떠한 재촬영없이 다이렉트 방법으로 그와 그녀들과의 만남을 기록한다. 이 단편들로 알랑 까발리에는 그의 영화인생에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931년생인 이 노년의 작가는 1960년대 초반 쟝 루이 트랭티냥, 로미 슈나이더, 알랑 들롱, 까트린 드뇌브 등 스타배우들과 함께 극영화들로 영화인생을 시작했다(흥미로운 것은 1959년 그는 첫 단편영화 〈어떤 미국인〉(Un Américain)을 찍는데 이 해는 장 뤽 고다르의 첫 장편영화 〈네 멋대로 해라〉(À bout de souffle)가 나온 해이기도 하다. 단편과 장편의 차이는 있지만 소재나 촬영기법면에서 많이 닮아있다. 하지만 그는 그 유명한 누벨바그의 한 맥을 잇지않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그는 전통적인 제작양식을 떠나 간편한 촬영기자재를 구비하며 소위 '경제적인' 영화찍기 방법을 찾아 새로운 영화양식을 추구하게 된다. 비전문배우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통해 그들의 실제 생활을 기저로 사실성에 입각한 작품들에 몰입하게 된다.

1986년 그는 테레즈 르 리지유 수녀님의 실제 삶에 바탕을 둔 〈테레사〉(Thérèse)로 깐느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다(내가 아는 한 유일하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영화 이후 미래가 보장된 상업적인 성공의 길을 뒤로 하고 극영화 세계와 단절하고 더욱 더 사실영화와 가까운 곳으로 발길을 옮긴다. 이 언저리즈음에 위치한 작품이 이 〈스물네개의 인물화〉이다. 이 스물 네개의 만남을 통해 그는 영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영화를 만들것인가를 다시한번 성찰하게 된다. 그리고 간결한 영화장치로 카메라에 담겨지는 것들의 요체와 본질을 발견하는 방식은 이후 그의 작업의 기본 지침이 된다.

1990년대 중반 알랑 까발리에는 디지털카메라를 직접 손에 들고 홀로 작품활동을 시작한다. 기술혁명이 가지고 온 가볍고 혁신적인 이 기구로 인하여 그는 점점 더 그의 인생경험에 가까운, '진실'에 가까운 영화를 만든다. 하지만 이 '진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이라고 작가는 힘주어 말한다. 그는 '객관적'이라는 입장을 지양하며 자신의 사적인 감성에 와닿는 것만을 찍으며 그것이 바로 작품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힘이라고 믿는다.

영화연출자라는 이름을 거부하며(그에게 〈연출〉이라는 단어는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를 인위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는 스스로를 '영화만드는 사람'(le filmeur)라고 지칭하고 마치 일기를 쓰듯 그의 십여년동안의 일상을 담은 자전적 영화를 동일한 제목으로 2005년 깐느영화제에 발표하면서 많은 비평가와 영화인들에게 재인식된다. 이어서 2009년 〈이렌느〉(Irène)로, 2011년 〈빠떼르〉(Pater)로 깐느영화제와 인연을 계속하는 한편 관객과의 만남을 위해 시골의 작은 상영관까지 찾아 영화를 통한 소통을 모색하는 여정을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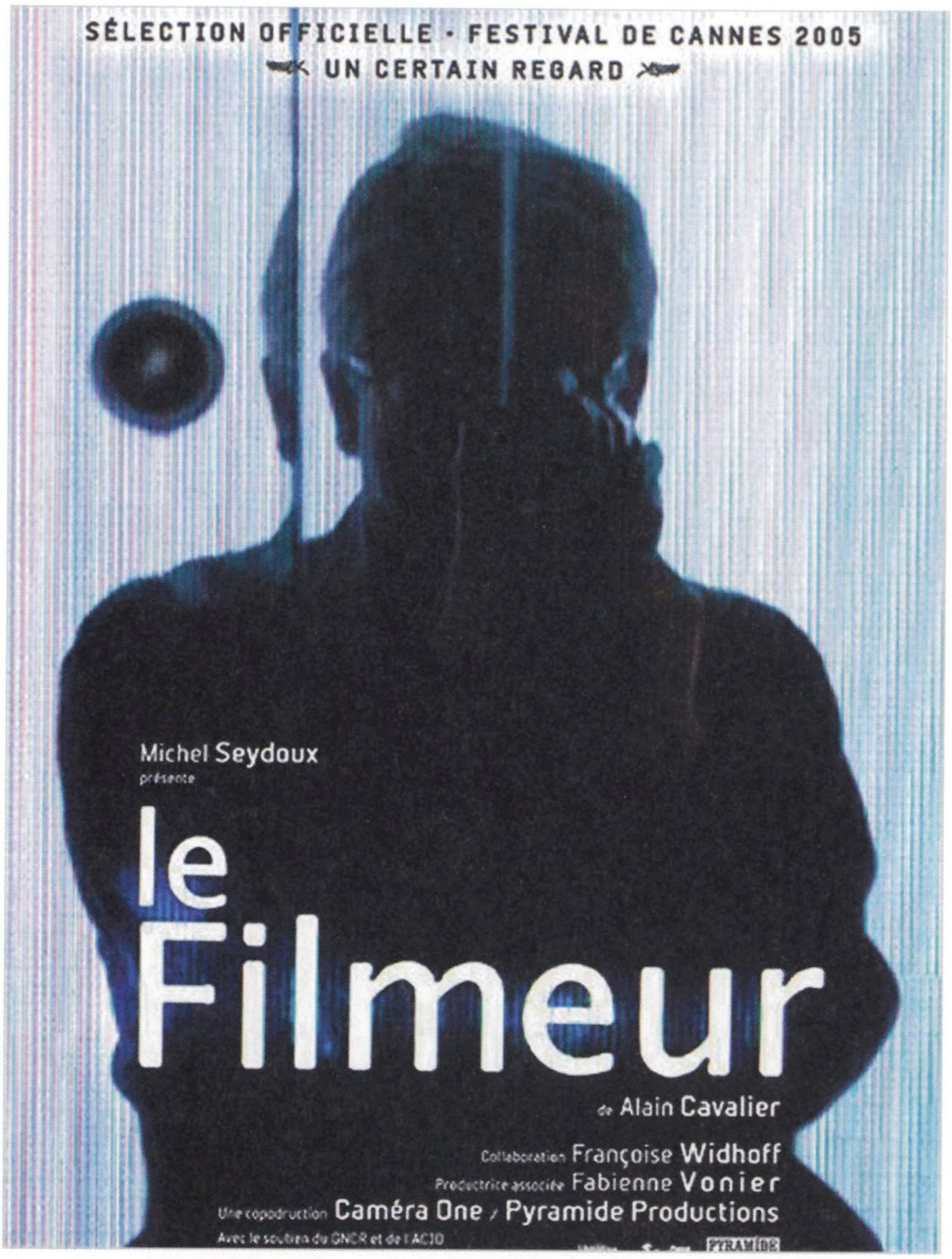


그의 지치지않는 영화적인 탐색의 행보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형식으로 구현되지만 그것들은 끊임없이 존재의 참다운 모습과 작가자신의 진정성의 끈질긴 대립과 융합으로 나타나며 세계와의 관계에 질문을 던진다. 그러기 위해서 작가는 언제나 사실적인 소재에서 출발점을 찾으며 단순히 겉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카메라에 찍히는 것들과 찍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삶의 경험들을 마치 한 증인처럼 생생하게 보여준다.

흔히들 평범하고 보잘것 없다고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시선을 두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하나의 큰 의미가 된다. 작은 것을 담지만 그 무엇보다도 크고 우주적인 각각의 존재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알랑 까발리에의 영화는 너무나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한 이방인에 불과한 내게, 여전히 언어의 높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감히 고백하건데 그와의 만남은 나에게 진정한 영화와의 첫 만남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영화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과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 새롭게 프랑스 소식을 전해줄 프랑스 통신원 전은정은 파리대학 영화과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중인 영화학도입니다.



■ 2005년 개봉된 '영화만드는 사람'의 포스트 (사진출처 : 구글 이미지 캡처)

■ 2011년 깐느 영화제 레드카펫에 오른 알랑 까발리에(좌)와 뱅상 랑동(Vincent Lindon ,우). 이 영화속에서 두 사람은 감독과 배우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라는 역할놀이를 벌이며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진출처 : 프랑스 통신사 AFP 영상자료)

그림 형제와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

■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형 야코프 그림과 동생 빌헬름 그림, 일명 그림 형제는 모두 언어학을 전공했고, 독일 민중들을 통해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편집한 〈그림동화〉로 유명하다. 그림 형제는 언어학과 문헌학을 연구하여 그림 법칙을 정립하기도 했는데 그 연구의 자료를 찾기 위해 수집한 이야기들이 유명해지면서 결국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중편 소설 작가가 되었다. 유로화가 도입되기 전 1000 마르크짜리 독일 지폐에 그림 형제의 모습이 실리기도 했다.

그림 형제의 고향은 독일 헤센 주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하나우로, 형 야코프 그림은 1785년, 동생 빌헬름 그림은 1786년에 태어났다. 카셀의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수학하였고 그때부터 민담을 수집하기 시작한 그림 형제는 1812년 그 동안 수집한 이야기들을 묶어 첫 번째 이야기책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를 발간하였다. 제1권 초판이 나오자마자 이 이야기책은 큰 반향을 보여 각지로부터 새로운 민화에 관한 정보 등이 제공되었다. 이에 힘을 얻어 1815년에 제2권을 발간하고 1822년에는 제3권이 추가되었다. 거기에는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개구리 왕자' 등 현재에도 널리 읽히고 있는 동화를 포함해 전부 200여 편의 민화가 수록되어있다.

그 후 2년간의 작업을 거친 뒤 그림 형제는 독일의 전설과 초기 문학을 묶어 두 번째 이야기책을 펴냈다. 후에 그들은 그림 법칙을 비롯한 독일어 연구를 계속하였고 베스트팔렌 왕국의 국왕이었던 제롬 보나파르트로부터 수석언어학자의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1830년 괴팅겐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말년에는 독일어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여 1854년 출간하기도 하였다.

〈헨젤과 그레텔〉은 그림 형제가 당시 전해오는 설화를 19세기 중산층 고객을 위해 순화시킨 작품이다. 원작은 중세의 악습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음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중세에는 영아 살해가 일반적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헨젤과 그레텔은 양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숲 속에 남겼을 것이고 그들은 죽거나 실종되었을 것이다. 또한 초판에서는 친어머니가 등장하고 남매를 숲에 버리는 것도 친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계모로 수정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딸인 헨젤과 그레텔은 큰 흉년이 들자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계모에 의해 숲에 버려진다. 미리 이 사실을 알게 된 헨젤은 밤에 몰래 나가서 하얀 조약돌을 챙겨둔 뒤 숲속에 버려진 후 달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달빛에 빛나는 조약돌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다. 놀란 계모는 더 깊은 숲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헨젤은 방이 잠겨 이번에는 조약돌을 챙기지 못해 다음날 숲 속으로 가면서 조약돌 대신 빵 조각을 떨어트리지만 새들이 빵 조각을 다 먹어 버리고, 헨젤과 그레텔은 마침내 길을 잃는다.

하루 동안 숲을 헤매던 헨젤과 그레텔은 희고 예쁜 새를 따라가다가 생강빵, 케이크, 사탕 등으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하고 그 집을 뜯어 먹는데, 마침 집에서 사악한 마녀가 나타나 아이들을 꼬드겨 집으로 데려간다. 마녀는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을 노예로 부린다. 마녀는 헨젤을 살찌워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마녀가 눈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헨젤은 마녀가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할 때마다 우리에서 발견한 뼈를 내밀어 마녀를 속인다. 몇 주가 지나 참을 수 없게 된 마녀는 헨젤을 잡아먹기로 하고, 오븐을 준비하면서는 그레텔까지 한꺼번에 잡아먹으려고 마음먹는다. 마녀는 오븐에 불이 활활 타는지 보라고 그레텔에게 말하지만, 마녀의 생각을 알아차린 그레텔은 말뜻을 못 알아듣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녀가 화가 나서 시범을 보일 때 그레텔은 마녀의 등을 떠밀어 오븐에 밀어 넣고 문을 닫아 마녀를 태워 죽인다. 그레텔은 헨젤을 우리에서 구해 내고 두 사람은 마녀의 집에서 보석 등 값진 것들을 찾아내 주머니에 넣고는 마녀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집으로 돌아온다.

독일의 훔퍼딩크(1854~1921)는 여러 편의 오페라를 썼지만 〈헨젤과 그레텔〉 단 한 편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는 작곡가다. 이 작품은 음악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나며 독일 오페라의 정통 계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한 걸작이다. 1879년, 25세의 훔퍼딩크는 멘델스존 재단이 수여하는 멘델스존 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그 밝은 기분으로 이탈리아 여행길에 나섰는데 이때 나폴리에서 만년의 바그너를 만나 친분을 쌓게 된다. 바그너는 이듬해 훔퍼딩크를 바이로이트에 초대했고 훔퍼딩크는 바그너의 마지막 작품 〈파르지팔〉의 초연 제작을 돕는다. 대표작 〈헨젤과 그레텔〉은 그림 형제가 다양한 민담을 채집하여 출판한 〈그림 동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1893년 12월, 바이마르 궁정극장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지휘로 초연되었다.

〈헨젤과 그레텔〉은 동화오페라답게 단순명료한 선율이 지배하며 일부는 민요를 차용하기도 했다. 또 줄거리가 재미있고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어 크리스마스용 가족 오페라로 인기를 끌었다. 〈헨젤과 그레텔?은 여성 가수로 공연 가능한 오페라라는 점도 특이한데 헨젤은 10대 소년이므로 메조소프라노가 부르며, 따라서 아버지를 제외하면 모두 여성가수로 편성 가능하다. 물론 마녀를 테너에게 맡겨 남녀 성부의 균형을 맞추고 희극적인 역할을 보강하기도 한다.

음악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바그너 스타일의 작법을 구사하는 것인데, 우선 라이트모티브를 사용함으로써 음악적 통일성과 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노래들은 구분되지만 관현악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것도 바그너의 무한선율과 닮아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의 성격이 강한데도 독일 음악다운 탄탄한 구성미를 갖추고 있다. 풍부한 관현악 효과도 뛰어나며 반음계적 화성 등 바그너에게 영향 받은 작곡 기법이 두드러진다.

이탈리아 오페라가 지배적이었던 당시 〈헨젤과 그레텔〉은 초연 이후 곧 유럽 전역에서 연주되었고 바그너 이후 침체되었던 독일 오페라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비록 친숙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이지만, 동화적인 순수성과 아울러 바그너풍의 무게감을 오묘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오늘날까지 청중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독일 헤센주 하나우 신 시청사 앞에 세워진 그림형제 국가기념비

■ 작곡가 훔퍼딩크

21세기의 문화국 독일의 바그너 간판 I

■ 임채흥
바이로이트대학교 음악학 박사

"극도에 이른 생명의 불길이 그(트리스탄)의 내면에서 격하고 형언할 수 없는, 시뻘건 열화와 함께 밝게 타올랐는데, 하마터면 그것이 나를 곧장 태워 없애 버릴 것 같았다. 그 열화가 3막의 마감을 향해 점점 약해질수록, 그리고 죽음을 예고하는 변모의 부드러운 광채가 그 열화로부터 비쳐 나올수록 나는 진정되었다"라고 바그너는 마틸데 베젠동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작곡 시 자신이 느낀 한 감흥을 묘사한다. 물론 이 작품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바그너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순결함과 여성적 고귀함의 표상이었던 연인 마틸데 베젠동크로 인해 음악으로 실현될 수 있었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심정과도 직결되긴 하지만, 이러한 토로는 훨씬 더 그의 음악창작의 근본이 되는 이른바 '감정미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것이다. 바그너는 바로 음악이 가진 위와 같은 격정적, 마력적 특성들을 활용할 줄 알았기에 자신을 '천재의 괴물'(Das Ungeheuer von Genie)로 표현했고, 그 세계의 대변자이고자 했다.

바그너의 탄생 200주년을 맞는 음악세계는 이 '바그너의 해'에 그의 작품들을 재해석(상연)할 뿐 아니라, 그의 인물 및 작품들과 관련하여 생겨난 과거와 현재의 갈등과 오해들을 풀기 위한 수많은 문화·학술행사들을 마련하고 있다. 바그너를 루터나 마르크스와 함께 정신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논쟁된 인물들의 범주에 넣는 사람들도 있다. 인문주의자 바그너는 사회의 변화, 전제군주제의 척결, 국가·교회·돈의 속박으로부터의 인간해방을 지향했고, 노동운동가들과 교감을 나누었다. 그의 이상은 '새롭고 자유로운 인간'이었다.

1813년 5월 22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 1883년 2월 13일 베네치아에서 생을 마친 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는 독일의 작곡가, 극작가, 문학가, 음악문필가, 연출가 그리고 지휘자였다. 생후 6개월 만에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를 사별하고, 이듬해에 어머니(Johanna

■ 바이에른국왕 루드비히 2세의 숙소 에레미타제 공원(좌로부터 필자, 부산출신의 바그너 장학생 서종우, 그의 민박 제공자 폰파일 리취 남쑤 부부와 그들의 대녀)

Rosine, 1774-1848)와 재혼한 연극배우 루드비히 가이어(L. Geyer, 1779-1821)의 중계로 어릴 때부터 극장과 무대, 음악, 음악가(특히 계부와 친분이 있었던 카를 마리아 폰 베버)들을 접하게 된다. 또 어머니의 언니, 오빠들 가운데도 연극배우와 오페라가수가 네 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바그너의 어린 시절의 놀이터는 바로 극장이었다.

바그너는 이른바 '악극'(Musikdrama) 또는 '종합예술작품'(Gesamtkunstwerk)으로 오페라 영역에서 아주 새로운 것을 창작함으로써, 19세기 서양음악의 중요한 혁신자가 되는데, 그의 악극들의 테마는 대부분 '인간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다. 바그너는 오페라의 근간이 되는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및 장면별로 번호가 매겨졌던 이른바 '번호오페라'를 폐지하고, '유도동기'(Leitmotiv)로 불리는 수많은 작은 음형들로 오페라를 '통작'(通作)하는데,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무한선율' 또는 '오직 하나의 선율'을 연출하게 하면서, 거기에다 음악적 실현을 집약시킴으로써 문학이 가진 가능성을 초월하고자 했다. 이 경우 성악가의 노래는 단지 극의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오페라의 특성인 아름다움의 추구와 민속성의 대변도 그는 탈피한다. 그의 재치 있고 새로운 관현악법, 대담한 화성적 사고 및 다가오는 무조성의 시대를 예비한 기능화성의 탈피(트리스탄 화성) 등은 높은 음악사적 의미를 갖는다.

바그너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끝없는 착상들을 기초로 관현악법, 악기개발, 극장건축(신비로운 구덩이: 오케스트라 피트), 축제연주(Festspiele), 공간음향 등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킨 발명가이기도 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붙인 별명처럼 '망상'(Wahn)에 이끌려 방황의 삶을 산 반면, 행운 또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가계부를 꼼꼼히 썼던 슈만과는 정반대로 의상과 가구 등에 지나친 지출을 했고, 환상적 음악을 만들기 위해 후각을 자극하는 고급 향수를 필요로 했다.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수차례 도주해야 했

■ 바이로이트 축제극장과 한국바그너협회 소속의 한 관객(2012년 8월)

■ 푸른 언덕의 바그너 상(아르노 브레커의 작품)

으며, 항상 빚에 눌려 살았지만, 바이에른 국왕 루드비히 2세, 마리 폰 슐라이니츠(프로이센 장관 알렉산더 프라이헤르 폰 슐라이니츠의 부인), 프란츠 리스트와 같은 굵직한 후원자들이 그를 매번 재정적 위기로부터 구출했다. 어떤 작곡가도 꿈꾸지 못한 이 '푸른 언덕'의 개인극장은 바그너의 '망상'의 가시화다. 이 극장은 특히 그의 일생의 과제였던 '니벨룽의 반지'(Tetralogie)의 상연을 위해 구상되었으며, 이것을 그는 음악, 문학, 회화가 하나의 작품 속에 있게 될 '미래의 예술작품'으로 내놓았다. 바그너의 또 하나의 행운은 '동화의 왕' 루드비히 2세가 그를 위해 지은 일명 '백조성'(Neuschwanstein)이 되겠다. 이것은 바그너가 그의 악극들 속에서(로엔그린, 탄호이저) 꾼 꿈들의 실현인 셈이다. 한 때 일본이 이 성을 천문학적 돈으로 사고자 했지만, 농경국가 바이에른을 독일연방의 가장 부유한 주로 만드는데 이 성은 큰 역할을 했다.

마침내 2009년 6월 16일 독일의 문화부장관 베른트 노이만은 국가적 관점에서 "바이로이트 축제는 우리 문화국가가 내걸 수 있는 간판이다!" "바이에른과 오버프랑켄에 있어서 푸른 언덕은 독일의 올림푸스다" "독일정부에 있어서 바이로이트 축제는 세계적으로 발산되는 광채를 가진 비교할 수 없는 문화이벤트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문화정책 속에서 이 축제에 아주 특별한 위치적 가치가 부여 된다"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21세기 관객의 관심도에 있어서 바그너는 클래식 극음악의 정상에 서있음이 분명하다.(사진제공 : 임채흥)

■ 글쓴이 임채흥은 바이로이트대학교 음악학 박사로 바이로이트축제 합창단원, 바이로이트대학교 위탁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바그너협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성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부채그림 기려원유도(騎驢遠游圖)와 정조 화사족의 갈등 ②

■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연암 박지원

단원이 제화로 쓴 시의 내용은 이렇다.

나그네 옷의 먼지 술과 함께 얼룩지고 / 衣上征塵雜酒痕
정처없이 멀리 떠돌아도 넋은 잃지 않았다네 / 遠游無處不銷魂
이 몸이 바로 시인이 되고 말 것인가 / 此身合是詩人未
가랑비 속에 나귀타고 검문을 들어가네 / 細雨騎驢入劍門
경술년 사월 단원 / 庚戌首夏 檀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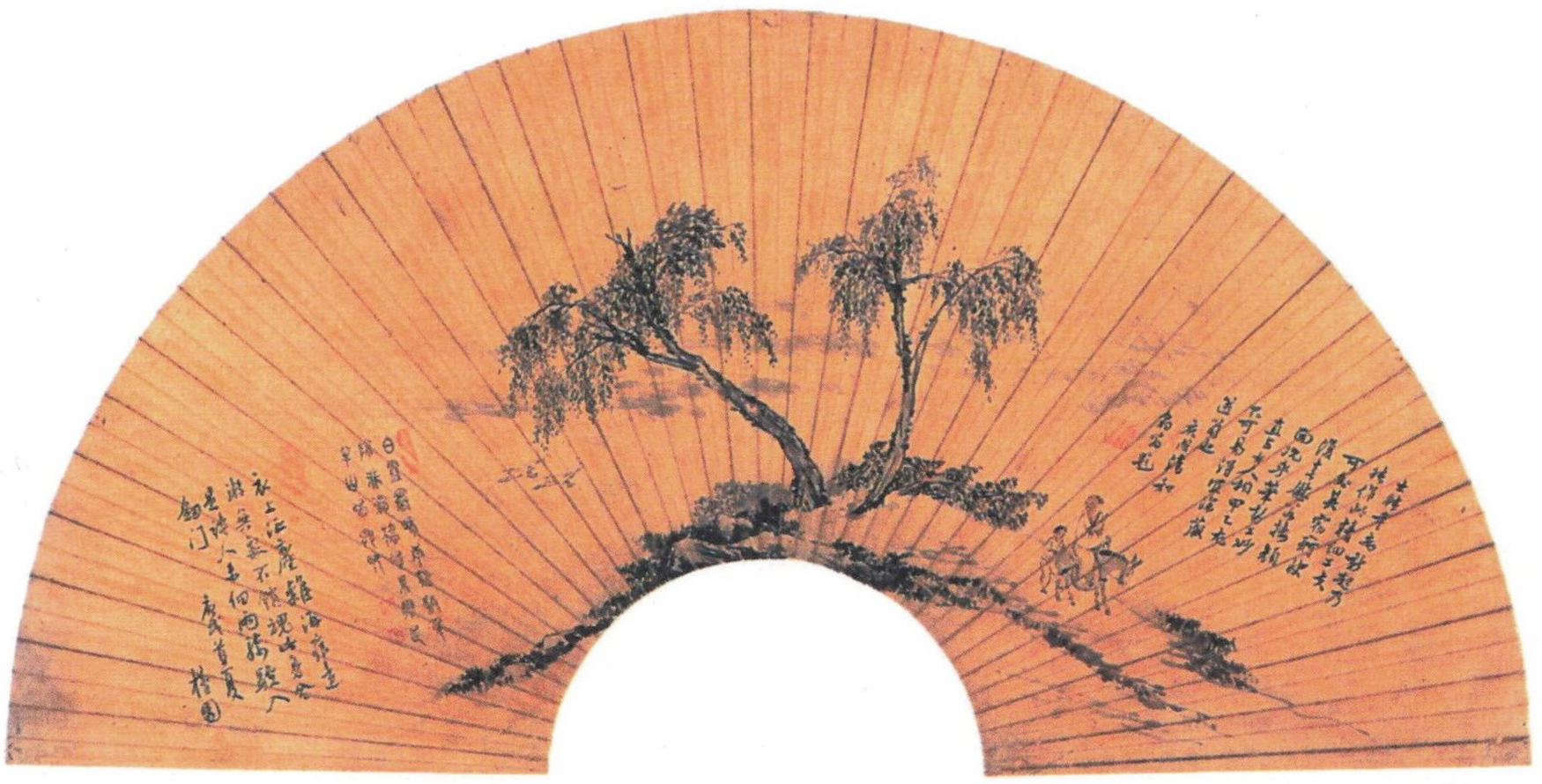
단원이 병고를 치르고 겨우 몸을 추슬러 마침내 〈기려원유도〉를 그렸다. 나귀를 탄 주인공을 통해 분위기를 묘사한 것은 필경 그의 속내가 있었을 성싶다. 그런데 맨 왼쪽의 제화에 육유의 시를 그대로 단원이 옮겨 놓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시 속에 등장하는 검문은 중국 사천성 검각현에 있는 험준한 계곡을 낀 숲으로 마치 뱀도 무서워 뒤로 물러날 것 같은 언덕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림 속의 풍경은 한적한 강가의 버드나무 길이라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육유의 시는 오랫동안 벼슬살이 하다가 새로운 부름을 받아 성도로 가기 위해 검문을 지나면서 지친 심경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위기에 처한 국가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정녕 자신이 시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애국심을 대표하는 표상이 되었다. 아마 단원이 강원도 사생과 중국 사행의 여정을 마치고 나서 중병으로 고생한 자신을 육유의 감정에 이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육유의 시를 무척 좋아했다는 얘기다.

육유가 남송의 4대가로서 두보의 시를 가장 잘 계승한 사람으로 꼽히는 데다가, 정조 또한 이들의 시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갖고있던 터였다. 조선시대엔 두보의 율시가 가장 존중되고 많이 읊어졌으며, 또 과거의 국어와 고문 교과서에 두시언해가 많이 장식되었음은 중년세대들은 잘 알 것이다. 단원은 평소 그림을 통해 정조의 특혜를 받으면서 여러 학자들과 긴밀한 교류를 했다. 〈단원도〉나 〈포의풍류〉 등 문인화풍을 많이 그린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 이제 단원이 그림의 제화시에 육유의 시를 인용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리고 정조는 육유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상(임금)이 이르기를, "육유(陸游)의 시는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취하지 않는 바이다. 그렇지만 나는 지독히 좋아하니, 이는 그 사의(詞意)의 충후하고 돈독함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기(聲氣)와 가깝고, 그 사람이 평생토록 지킨 것이 또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의리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65, 日得錄5, 文學5〉

국왕으로서 정조는 육유를 거론하면서 왕실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고, 이어 조선의 문단에 두보와 육유의 시를 시문(詩文)의 모범으로 삼도록 권장했다. 그래서 두보와 육유의 시 중에 각각 5백수의 율시(律詩)를 선정하여 〈두율분운(杜律分韻)〉과 〈육율분운(陸



■ 기려원유도

律分韻)〉을 간행케 했다. 즉 율시의 운(韻)을 통해 시의 요체를 배우고 시의 맛에 조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조는 최근 새로운 학풍(學風)과 문풍(文風)의 경향을 보면서 자신의 문장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책을 제법 많이 읽었는데, 의리(義理)와 문장(文章)은 육경(六經)만큼 바른 것이 없고, 평소 수용하여 득력(得力)한 것도 많았다. 새롭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지금 사람들은 고상하고 간솔(簡率)하며 평범하고 담박한 것을 싫어하여 평소 배운 경전(經傳)을 열심히 익히려 들지 않는다." (중략) "지금 사람들은 작문은 손으로만 하고 독서는 입으로만 하여, 그저 눈으로만 봐 넘길 뿐 조금도 마음에 붙여 두지 않는다." 하였다.〈홍재전서(弘齋全書) 권165, 日得錄5, 文學5〉

국왕으로서 학문을 중시하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요즘말로 하자면 글쓰기와 책읽기가 기능적인 면에 치우쳐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없다고 보았다. 문체가 전통에 맞지 않다 해서 정조는 내심 불만이었다. 이렇게 호문(好文) 군주로서 정조는 강력한 정치지도자이자 학문적 지도자로서 신하들 앞에 나서려는 의지를 내비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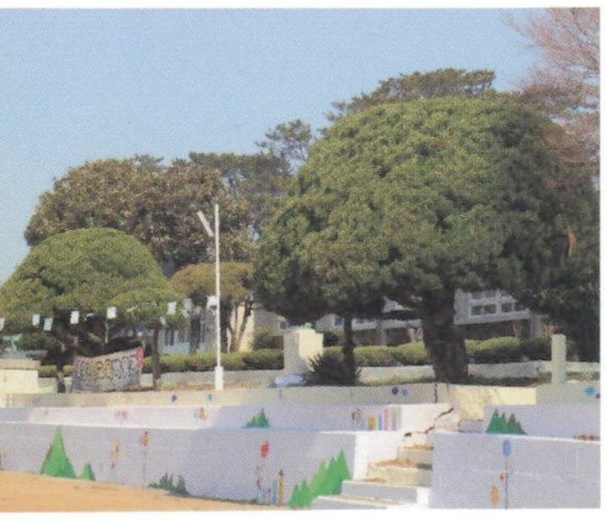
당시의 사회추세는 선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과 새로운 학풍 및 문풍이 요구되던 분위기였다. 즉 북학바람이었다. 정조 자신도 중국문물의 수용에는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학풍과 문풍을 선도하는 계층이 이른바 한양과 주변지역을 사회적으로 주도해 나가던 북학파들로서 흔히 경화사족(京華士族)이라 불렀다. 이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자아의식을 가지고 신학문, 인간관, 사회관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선봉에 홍대용과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1805) 등 노론계와 일부 소론·남인 및 이덕무·박제가 등 위항문인들이 서있었다. 연암을 대표로 하는 이 그룹은 종로 원각사탑 주변에 살았으므로 백탑파(白塔派)라 불렸다. 먼저 정조는 이들의 문체에 대해 딴지를 걸었다.

상이 이르기를, "이덕무와 박제가 무리는 문체가 전적으로 패관(稗官)과 소품(小品)에서 나왔다. 이들을 내각(內閣)에 두었다고 해서 내가 그 문장을 좋아하는 줄로 아는데, 이들의 처지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로써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려는 것일 뿐이니, 나는 실로 이들을 배우로서 기른다. 그러나 성대중의 순정(純正)함에 대해서는 일찍이 극도로 장려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였다.〈홍재전서(弘齋全書) 권165, 日得錄5, 文學5〉

정조는 북학과 서학이 일어나는 분위기에 대해 북벌의 리와 문화적 자존심을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해 문체반정(文體反正)의 꾸지람으로 맞섰다. 이에 직접 표적이 된 연암은 경화사족을 대표하여 사론(士論)과 법고창신론(法古創新論)으로 맞짱떴다. 그가 내세운 '사(士)'는 크게 사농공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국왕까지도 포함된다는 논리로서, 왕권의 신하에 대한 초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정조의 탕평책·왕권강화책에 대한 반기였다. 아울러 연암은 전통과 새로움의 조화와 융합을 꾀하면서 사회변화의 요구를 따르고자 했던 시대를 앞서 가는 정치의식의 소유자였다.

■ 기려원유도-단원제

과거로 떠나는 신나는 시간여행 가덕도 록봉민속교육박물관



어린이들이 떠난 빈 폐교에 들어선 이색 박물관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폐교로 방치되었던 천성초등학교에 문을 연 가덕도 록봉민속교육박물관 역시 폐교를 활용한 민속박물관으로, 가덕도의 새 명소로 등장했다.

천성항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가덕도 천성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록봉민속교육박물관은 유아교육자였던 염춘자 씨와 그의 남편인 故 손진옥 씨가 30년 넘게 발품을 팔아 수집한 6천여점의 민속품 중 현재 2천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염춘자, 손진욱 부부는 지난 역사야말로 훌

■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 나는 우물

륭한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며 유치원을 운영하는 틈틈이 전국을 누비며 민속자료를 수집했다. 이들의 노력은 지난 2008년 8월, 경남 함양군에 봉전민속박물관을 열면서 첫 결실을 맺었다. 봉전민속박물관 역시 폐교인 봉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곳이다.

그러던 중 2003년 3월 남편인 손진욱 씨가 돌연 세상을 떠나는 큰 아픔을 겪은데 이어 2007년 함양군으로부터 학교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첫 번째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편과의 오랜 꿈을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었던 염춘자 씨는 2011년 3월 천성초등학교 폐교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의 꿈에 도전했다. 지금은 아들이 그와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든든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록봉민속교육박물관. 박물관 이름인 '록봉'은 남편인 손진옥 씨의 호에서 가져왔다. '아이들이 사슴처럼 산언덕에서 뛰어논다'라는 뜻을 지닌 '록봉'은 어린이들을 사랑했던 남편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긴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의 자료는 이제 록봉민속교육박물관에서 아이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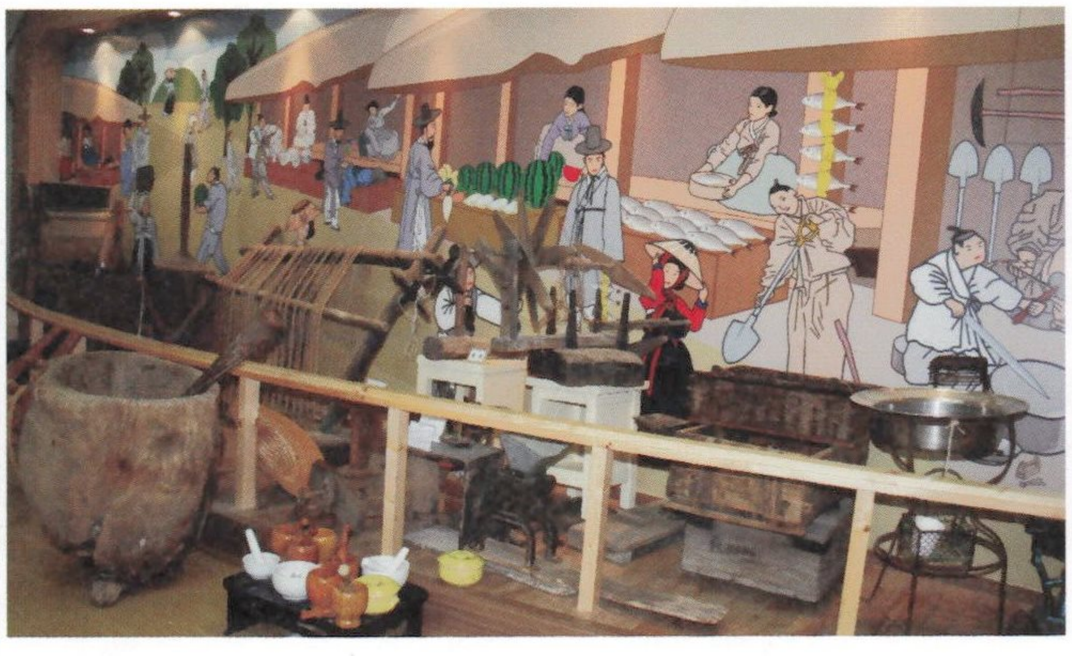
박물관 관람은 건물 서편 출입문에서 시작된다. 첫 전시관은 폐교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린 '학교관'. 지금은 교실에서 사라진 삐거덕거리는 책걸상을 비롯해 옛날 교과서, 환등기, 대형주판, 풍금 등 추억 속 교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제2전시관인 '전자관'에서는 지나간 기억 속에 존재하는 흑백 텔레비전에서부터 묵직한 필름카메라, 옛날 선풍기, 타자기, 전축, 다이얼 전화기까지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옛 전자제품을 만날 수 있다. 평소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던 만큼 이 곳은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어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농촌에서도 이제 사라지고 있는 옛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전시하고 있는 '민속관'을 지나 '문화관'으로 가면 반닫이, 약장, 나비장 등 옛 선조들의 방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1980년대 이전의 장난감을 모아놓은 추억의 놀이관인 '재미관'에서는 자녀 손을 잡고 온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옛날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예술관'에서는 우리의 전통 문양을 그려보고 준비해둔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을, '전통체험관'에서는 차례상을 손수 차려보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두레박 혹은 물펌프를 이용해 직접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우물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록봉민속교육박물관은 이렇듯 주제별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교실 7곳 외에도 복도 한 벽면을 전시관으로 이용하고 있어 꼼꼼히 둘러보노라면 어느새 한 두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또, 박물관의 모든 전시품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전시관별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어 박물관 나들이가 더욱 즐겁다.

이밖에도 록봉민속교육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승, 솟대, 토우 만들기 등 창작 체험 외에도 화전만들기, 추억의 달고나, 추억의 도시락 등 전통요리체험을 즐길 수 있다.

■ 개관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 입장료/균일 5천원
■ 문의/록봉민속교육박물관 (892-5997)



해운대만의 강강술래를 만들어가는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

지난 2월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달집태우기와 함께 강강술래 공연이 펼쳐졌다. 부산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민속놀이라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휘영청 보름달 아래 강강술래를 선보인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세계에 알렸던 강강술래는 노래와 무용, 놀이가 혼합된 민속놀이이다. 주로 진도, 해남을 비롯해 완도, 무안 등 전라남도 해안 일대에서 성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사랑받고 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강강술래를 전승하고 있는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은 지난 2010년 11월 창단 후 우리고유의 정서가 담긴 강강술래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의 창단에는

현재 단장을 맡고 있는 진익곤 씨의 열정과 노력이 컸다.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 총괄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진익곤 단장은 수년전 해운대에서 펼쳐진 해남 강강술래단의 공연을 보고 강강술래의 매력에 빠졌다. 해운대만의 강강술래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매년 지원자를 모집해 강강술래 공연을 가져온 진익곤 단장은 급기야 지난 2010년, 공연에 참석했던 단원들과 의기투합해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을 창단했다.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재송동에 작은 연습실까지 마련한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은 창단의 모태가 되었던 해운대온천축제를 비롯해 그동안 반송담안골축제,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 창원단감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은 특히 지난 2011년 10월 해남에서 열린 '명량대첩축제기념 전국 강강술래'에서 우수상을, 11월 진도에서 열린 '제3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전국강강술래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창단 1년만에 전국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장단에서 춤사위, 동선 등 제대로된 강강술래를 선보이기 위해 독학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진익곤 단장은 강강술래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에서 소리와 안무지도를 맡고 있는 강태순, 엄선미 씨와 단체를 꾸려나가는 오혜숙 간사는 그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이다.

현재 단원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은 일주일에 한번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종합예술이니만큼 민요, 전통춤, 장구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경기, 남도민요를 전공한 강태순 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의 소개로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과 인연을 맺었다. 단원 대부분이 주부이고 단원 수가 많다 보니 연습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강태순 씨. 그래도 전 단원이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 재정적 지원이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달맞이축제 지도를 맡으면서 강강술래단과 인연을 맺은 엄선미 씨. 다른 공연과 달리 단원들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교보다는 단원들간의 협동심을 강조한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순금 단원은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의 최고령 단원이다. 체력소모가 많은 무대이니 만큼 공연을 마치면 몸살로 드러눕는 단원들이 속출하지만 20년 가까이 무용을 배워온 김순금 회장에게 체력과 열정만큼은 그 어느 단원들에게도 지지 않는다.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은 6월 27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정기공연 '동백춤소리 콘서트'를 갖는다. 강강술래 뿐 아니라 비나리, 성주풀이, 교방무, 부채춤, 한량무, 태평무 등 그동안 열심히 익혀왔던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 정형화된 무대예술이 아닌 생활 속에 살아있는 즐거운 놀이문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대중과 함께하는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의 강강술래를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진익곤 단장은 앞으로 현시대와 동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창작무대를 선보이고 싶다.

■문의_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
(783-7831)

■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은 해운대만의 강강술래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2010년 창단되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산연주회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세계

■ 하순봉_ 작곡가

■ 정명훈과 서울시립교향악단

5월 11일(토) 저녁,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부산순회연주가 있었다. 부산의 클래식 청중들에겐 모처럼 서울시향의 연주를 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약간 이른 시간인 7시임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청중들이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설레이는 표정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스름 해가 지면서 연주가 시작되었을 땐 약간은 소란스러웠던 야외무대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

베토벤의 황제 협주곡의 힘찬 도입으로 음악회는 시작되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어느 새 소년에서 미청년으로 변해 더욱 의젓해졌다고나 할까 연주에 보다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어보였다. 다만 야외무대 주위가 조금 소란스러워서 섬세한 부분에서 몰입이 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웠다. 조성진은 작년 9월 파리고등음악원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니 이제 더욱 다양한 문화와 음악을 섭렵하고 보다 성숙된 모습이 기대가 된다.

휴식 후 2부에서는 협주곡에서 참아왔던 조심스러움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단호하고 힘차게 베토벤의 운명이 시작되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래서 감상하기에도 연주하기에도 더욱 조심스러운 운명교향곡이 아닌가?

그러나 그런 우려를 뒤로하고 무대와 객석은 한 호흡으로 나아갔다. 우선 정확하게 일관된 템포가 너무 좋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악구들과 단락의 연결과 전개가 마치 베토벤의 생각과 호흡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았다. 전개부의 현란한 동기들의 대위법적 전개에서는 각 악기군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하며 서로 양보하고 때로는 주도하며 맞물리면서 균형과 밀도와 긴장감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절정의 내공을 가진 고수들이 서로 뽐내며 한바탕 크게 논다고나 할까…. '어울리되 같지는 않다'라는 화이부동의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사실 지휘란 부끄러울 정도로 단순한 몇 가지 몸동작 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 날 정명훈의 몸짓언어는 단순하지 않은 역시 음악을 완벽히 장악한 대가만이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것으로서 때로는 간결하게, 때로는 난폭하게 보는 청중들로 하여금 연주자들과 같은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었다.

이 날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이 외국처럼 고성이나 공원이 아닌 도심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본적인 자동차 소음이 음악공연에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는 점이다. 클래식 공연에선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 황제 협연 때 마이크의 해프닝은 진행 측의 큰 실수였다. 그리고 티켓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객석이 꽉 차지 않은 것도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5월의 밤바람을 맞으며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경험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내 귀에는 계속 앵콜로 연주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이 맴돌고 있었다.

여성 방송인의 성장과 한국 방송의 발전

■ 남인용_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국에 잠시 머물면서 놀란 점은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었다. 아파트의 잔디를 깎고, 대형 컨테이너 차량을 운전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고유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업무를 남녀 구별 없이 수행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다.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든 미국을 따라 배우려고 열심인데, 이런 면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동네의 축구 클럽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한 팀이 되어 축구 경기를 한다. 성별에 따라 인원을 구분하지 않고 성별에 따라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는다. 아이스하키에서도 긴 머리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함께 연습한다. 사람이 있을 뿐 남녀가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여학생들이 있기에 올림픽에 나오는 미국의 여성 선수들은 경쟁력이 있다. 연약하고 보호받는 여성이 우대되는 우리 사회와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처럼 몇몇 여성 선수들이 엘리트 체육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다. 사회 저변에 갖춰진 여성 스포츠의 활력이 올림픽의 성과로 나타났다.

매사에 주도적인 여성의 모습은 방송에서도 드러난다. CNN의 미국내 방송에는 여성 앵커와 여성 기자들이 다수를 이룬다. 우리 방송의 여성 진행자가 대부분 남성 진행자의 보조역할을 하거나 외모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CNN의 여성 방송인은 전문성에 근거한 자기 주도적인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리드하고, 사건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생동감 있는 뉴스를 전달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성역할의 구분이 뚜렷하다. 나이 많은 남성 앵커와 젊은 여성 앵커의 조합은 우리 뉴스의 전형적인 포맷이다. 여성 진행자는 남성 진행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거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뉴스를 다룬다. 나이와 성별로 실력을 가늠하고 역할을 정하는 사회는 권위주의 사회이다. 권위주의 사회체제로는 개인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방송에서 여성의 권한과 책임을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성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도록 북돋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단독 진행 프로그램을 늘여야 한다.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우리 방송의 프로야구 프로그램에서도 정작 핵심 역할인 경기 분석자는 남성이 차지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든 여성 방송인이 보조 역할을 맡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의 남녀 평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진정한 남녀 평등은 '안경 낀 신부'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안경 낀 신부를 본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전문적인 실력이 중요한 방송에서도 안경 낀 여성 진행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CNN의 Ashleigh Banfield는 안경 낀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진행한다.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여성 방송인의 성장과 함께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여성 방송인의 성장은 남성 진행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남성들은 서로의 실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프로그램 진행에서 여성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 왔다. 과보호된 남성 인력의 실력이 공평한 경쟁에서 성장한 남성 인력보다 나을 수는 없다. 우리 방송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성 방송인의 성장은 필수적이다.

삼성현(三聖賢)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경산

■돔형 건물이 인상적인 영남대박물관

5월의 싱그러움을 더해줄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지난 5월 10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86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5월 테마여행지는 우리나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삼성현(三聖賢)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경산. 삼성현(三聖賢)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원효대사와 신라 십현 중의 한사람인 원효의 아들 설총, 그리고 주체적인 역사관으로 기술한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선사 등 세 분을 가리키는 말로, 경산은 이 들 세 성현이 탄생한 유서깊은 고장이다.

경산은 2006년 3월 정기회원 테마여행을 시작하고 처음 선택한 여행지라 그 어느 때보다 여행에 대한 설레임이 컸다. 이번 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홍보담당 김태훈 씨가 정기회원 가족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두 시간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삼국시대 초기 부족국가였던 압독국(押督國)의 흔적이 남아있는 임당·조영동 고분군. 압도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약 400년간 번영했던 고대국가로, 당시 신흥국가로 발돋움하던 신라의 등살에 못 견디면서 102년 신라 파사왕 시기부터 조금씩 합병되기 시작해 300년 경 유례왕 때 완전히 병합되면서 명칭도 압량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김유신 편'에 따르면 신라는 이곳을 중요한 군사기지로 판단해 638년 김유신을 압량주의 군주로 파견했는데 이 때부터 압량면의 압량리와 부적리 일대는 김유신을 중심으로 삼국통일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영남대학교 맞은편 구릉에 자리한 임당 고분군은 서쪽의 조영동 고분군과 더불어 삼국시대의 매장 문화방식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무덤형태와 환형 금동관, 관 장식, 은제 허리띠, 마구류, 무기류, 토기 등 수많은 유물이 출토된 곳으로, 이들 유물은 현재 경산시립박물관과 영남대박물관, 대구국립박물관 등에 분산, 전시되어 있다.

고분군을 한바퀴 돌아본 정기회원들은 인근에 자리한 영남대학교 박물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1968년 영남대학교 개교와 더불어 개관한 영남대학교 박물관은 국내의 역사, 고고, 예술, 민속 및 인류학 분야의 자료, 특히 대구, 경산 지역에서 발굴, 조사되는 신라·가야문화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보관, 전시하고 있다. 돔형의 건물이 인상적인 박물관에 들어서자 높이 6m의 광개토대왕릉비 비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것은 전국에 2개밖에 없는 것으로, 비문의 탁본이 원형 그대로 전시되고 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은 1, 2층으로 나뉘어 총 11개의 전시실에 총 22,000여점의 유물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주변에는 고인돌, 석탑 등 석조물 야외전시장과 함께 잔디 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안동댐 수몰지구에서 옮겨온 조선시대 전통가옥을 복원시켜 민속촌을 조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영남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보글보글 뚝배기로 맛있게 점심식사를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자인 계정숲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릉지에 남아 있는 천연임군락지로, 경상북도는 물론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자연숲인 계정숲은 면적 4만 3천237㎡에 이르는 일대가 1982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었다.

■ 임당고분에 위치한 고분군박물관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계정숲

■ 삼성현갤러리에서 진행한 염색체험

■ 1. 임당, 조영동고분군
2. 삼선현 갤러리에서 진행된 다도체험
3.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한 우리춤 체조

7월에는 가덕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테마여행게시판
마감	6월 15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6월 당첨자

●엽서신청자	●신규가입자
김정미(연제구 연산5동)	김명순(사하구 괴정동)
박동희(연제구 거제동)	김지영(양산시 물금읍)
박용주(부산진구 범천1동)	김해성(연제구 아시아드대로)
박지원(연제구 거제1동)	김희진(서구 토성동)
이심순(남구 대연동)	변영철(해운대구 재송동)
조민희(남구 감만동)	안정학(해운대구 달맞이길)
정윤미(북구 화명동)	오봉열(해운대구 우1동)
최재영(연제구 연산5동)	이한평(해운대구 좌동)
최정화(남구 우암동)	최지연(양산시 물금읍)
황미희(남구 용당동)	허순옥(해운대구 재송1동)

계정숲에는 한장군 묘와 사당이 있다. 한장군은 왜적이 쳐들어오자 여자로 변장해 누이와 함께 화려한 꽃관을 쓰고 춤을 춰 왜구들이 방심한 틈을 타 적을 무찔렀다는 전설의 인물로, 한장군이 죽은 다음 자인마을 주민들이 한장군의 사당을 짓고 해마다 단오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성대한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이 전설에서 비롯된 한장군놀이(무형문화재 44호)가 매년 단오날 이 곳 계정숲에서 연희되고 있고 계정숲에는 전수관이 자리하고 있다. 전수관에는 조선시대 전통관아인 자인현청의 본관이 보존되고 있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도 있다.

회원가족들은 마치 구름같은 흰 꽃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팝나무를 따라 울창한 계정숲을 돌며 모처럼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경산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다도, 천연염색 체험관인 삼성현 갤러리에서 펼쳐졌다. 향기로운 연잎차에 최보남 원장이 손수 만든 3색 양갱을 먹으면서 함께 온 회원들과 정담을 나눴다. 그러는 동안 10명씩 팀을 나누어 스카프에 감물을 들이는 염색체험 시간도 가졌다.

염색체험을 마친 후 정기회원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씨와 함께 전통춤사위로 구성한 우리춤 체조를 배웠다. 처음 따라해보는 동작에 어색해하면서도 장래훈 씨의 유쾌한 입담에 회원가족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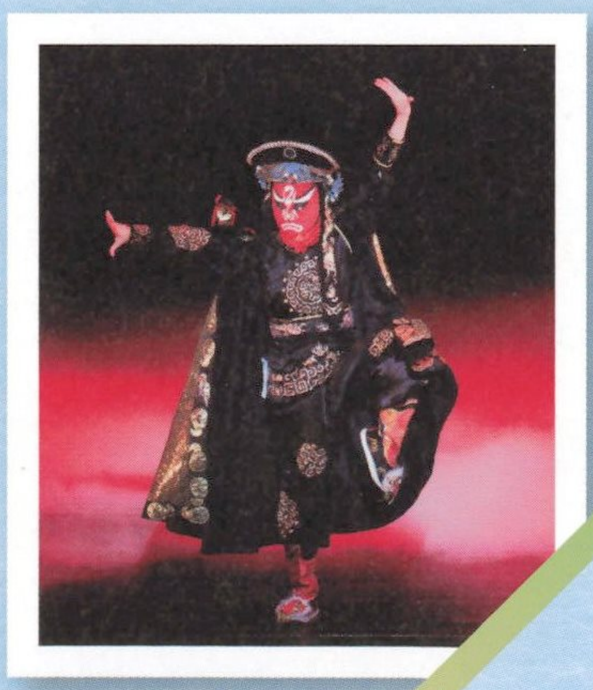
6월 준공이라 들리지 못했던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부산으로 돌아오던 길, 회원가족들은 다음여행을 기약하며 부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Culture Life

36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4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56 New Music
57 New Book
58 Special Movie
59 Special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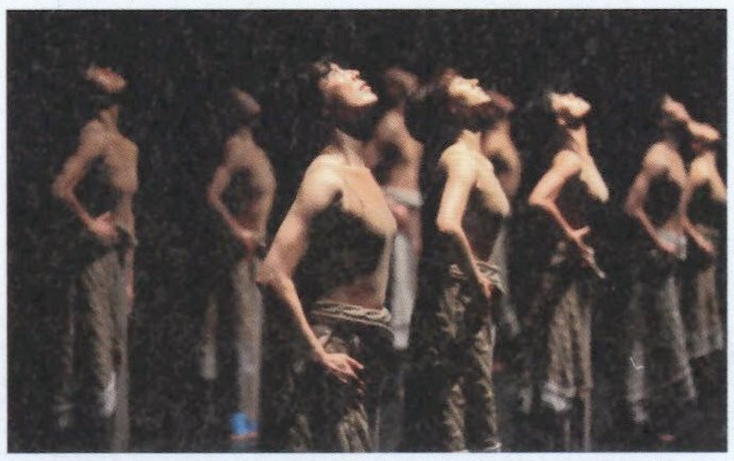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2013 부산국제무용제

5월 31일-6월 4일 금요일-화요일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해운대 특설무대 무료,
부산문화회관 공연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국제무용제(868-7881)



2005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에서 출발, 바다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최고의 무용축제로 성장한 부산국제무용제 2013년 무대.
올해는 춤 '바다를 열다'라는 주제로 프랑스, 미국, 스페인(이스라엘), 베트남, 튀니지, 중국, 인도, 일본 등 10개국 44개팀이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힙합, 컨템포러리 무용, 비보이까지 다양한 무용작품을 선보인다.

▶6월 3일 월요일 오후 7:00 중극장

AK21 국제안무가육성 공연

- 렉나드 댄스 프로젝트 '느리게 걷기, Breathe in' (안무/한정미, 출연/유승관, 권민경, 라명숙, 김동건, 한정미)
- PDPC '균열 Crack' (안무/안영준, 출연/김혜경, 남현우, 박시한, 정영민, 안영준)
- 이지은무용단 '말의 온도' (안무/이지은, 출연/이지은, 김정섭, 배준용, 이호연, 류정문, 나들이)
- 고블린파티 '인간의 왕국' (안무/지경민, 출연/이경구, 김평수, 임진호, 전효인, 지경민)
- AK21 축하공연 공연 2012년 최우수단체 M-note 현대무용단 '하프타임' (안무/신승민)

▶6월 4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BIDF 폐막식 및 공식 초청공연
프랑스 Elephant in the Black Box Company 'Without Sinking', 튀니지 BROTHA from another MOTHA Cie 'And so! Alors!'
AK21 시상식, 아름다운 춤인생 시상식
아듀 BIDF, BIDF 폐막식

아지무스오페라단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베르디 오페라갈라 축제

Festiva di Opera Gala

6월 1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VIP 8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코치, 시흥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지난해 지휘부문 대한민국오페라대상을 수상한 여성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전문예술법인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르디의 주옥같은 아리아와 중창, 화려한 오페라영상으로 음악회의 감동을 더해준다.

▶프로그램

오페라 '롬바르디아인' 중 '내 기쁨으로 그녀를 감싸고 싶다' '십자군의 롬다르디인'
오페라 '아틸라' 중 '영원한 영광의 정상에서'
오페라 '루이자 밀러' 중 '저녁들이 고요할 때'
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그이름' 등 수곡

- 지휘/김봉미(서울필하모닉 전임지휘자)
- 연주/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출연

소프라노 서경숙, 강민성, 고예정, 김현애,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성미진, 테너 강학윤, 이홍득, 장진규, 조윤환, 바리톤 안상철, 하병욱, 강경원

한무전통예술단 '그 소리, 몸짓'

6월 2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신다희(010-5506-6263)

1990년 전통예술의 발굴과 보존 및 계승을 위해 창단된 이래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한무전통예술단의 '그 소리, 몸짓'.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보유자 故 신태형 선생을 비롯해 동래학춤(악사) 전수교육조교 김향옥 등 국악교육 지도자와 각 부문의 전공자, 예술인들이 전통

계승을 위해 땀 흘려왔다.

▶프로그램

한량무(춤/설숙희)
단가 '사철가' (소리/신금자)
판소리 흥보가 중 돈타령(소리/박경희)
민요/동백타령, 추천 단오놀이, 사철가(소리/심진예, 신지선, 조나엽, 신지영, 조혜진)
아쟁독주(아쟁/신재현)
산조춤(춤/설숙희, 심복희, 김애정) 등

2013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협연의 밤

6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사)부산 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2011년 부산, 경남 지역 최초의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된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협연의 밤.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애니메이션음악회',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시리즈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무대를 선사해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서곡 '피가로의 결혼'
베버/바순 협주곡
포스터/꿈길에서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등 수곡

- 상임지휘/김병수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지현
- 협연/장원영(바순, 부산예고 3년), 김가영(플루트, 부산예고 3년), 윤재원(소프라노, 부산예고 1년), 이근영(소프라노, 부산예고1년)

Busan Elders Choir 제15회 정기연주회

6월 3일 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Busan Elders Choir(010-8531-7916)

교파를 초월한 7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Busan Elders Choir의 제15회 정기연주회. 2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Busan Elders Choir는 그동안 격년제로 정기연주회 및 해외순방 연주회 등을 열어왔다.

▶프로그램

합창(기쁨의 노래)/찬양의 기쁜 삶, 큰소리로 찬양, 기뻐하며 경배하세, 썸머타임, 시편 23편
합창(사랑과 영혼의 노래)/보혈의 은혜, 사랑은 영원하리, 목자되신 주님, 주의 옷자락
합창(영광의 노래)/그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 등 수곡
· 지휘/권영일(한세대학교 겸임교수)
· 특별출연/카운터 테너 이희상
· 특별출연/Busan Philharmonic Brass Quintet(드미트리, 안명기, 김영민, 정선화, 송인봉)

하신혜 피아노 독주회

6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하신혜(010-7764-4630)

경성대학교와 경성대학교 대학원에서 피아노 수업을 한 피아니스트 하신혜의 첫 번째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15번 작품 28 '전원'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제5번, 제6번 등 수곡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창작발표회

6월 7일 금요일 오후 6: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대학교(627-7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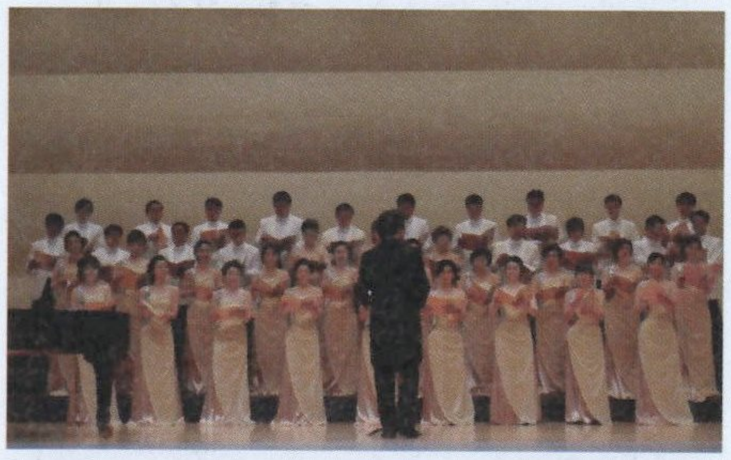
실용무용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열심히 연습해온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학생들의 창작품 발표회.

▶프로그램

Fire bird(안무/김은정 · 출연/문세영, 배윤주, 고대희, 송채미, 신지연, 이유정, 임재희, 조수안, 진현희)
Flash(안무, 출연/배윤주, 진현희)
한장의 추억(안무, 출연/문세영)
복수(안무, 출연/조수안)
살풀이 춤(안무, 출연/하덕순)
Sketch(안무, 출연/고대희, 문세영)
Daddy(안무, 출연/임재희)
타악실기(안무/김미자 · 출연/문세영, 배윤주, 고대희, 송채미, 이유정, 조수안) 등
· 기획/김은정 · 예술감독/김희은
· 사회/신상현

뮤즈콘서트콰이어 제7회 정기연주회

6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뮤즈콘서트콰이어(010-5503-9693)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뮤즈콘서트콰이어의 제7회 정기연주회.
'합창이 사랑이 되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합창을 통해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한국가곡, 민요, 외국가곡, 대중가요, 오페라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들려준다. 합창무대에서는 드물게 '사랑'을 주제로 한 레이져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신나는 노래 모음/돼지 죽었네, 세계민요모음
외국 곡/Dirait-On(So they say), Ständchen(세레나데), Dies Irae(진노의 날)
한국 가곡/아름다운 동행, 초혼
가요 애창곡/애인 있어요, Never Ending Story
오페라 중창곡/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Parigi, O cara(파리를 떠나서)' 등 수곡
· 지휘/조현수 · 반주/이현주
· 레이저쇼/메리트 퍼포먼스

인코리안아카데믹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6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인코리안아카데믹오케스트라 (010-4842-6688)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부속단체로서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육과 운영을 맡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인코리안아카데믹오케스트라의 제 17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슈베르트/로자문데 서곡, 미완성교향곡
드보르작/슬라브 댄스 8번, 슬라브 댄스 2번
비제/파랑돌 등 수곡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음악과 교수)

송민서 타악기 독주회

6월 9일 일요일 오후 5: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송기태(010-3580-3318)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타악기 유망주 송민서 타악기 독주회.
11세부터 음악을 시작한 송민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술영재 교육원에서 타악기 과정을 수료한 것을 비롯해 교문오케스트라, 모스크바 국립베토벤음악학교 캠프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음악수업을 해왔다. 부산음악교육협회 콩쿠르 1등, 부산예술중학교 콩쿠르 1등, 부산예술고등학교 콩쿠르 2등에 입상, 그 재능을 인정받은 송민서는 이번 무대에서 그

동안의 열정적인 노력과 잠재되어 있는 음악적 재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타악기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크세나키스/Rebonds

바흐/모음곡 제3번 다장조 BWV 1009 Traskription für Marimba Peter Sadlo

미요/Concerto pour Battere et petit orchestre 등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29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Love Song'

6월 15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UKO(626-8084, 011-591-3342)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Orchestra(U.K.O)가 들려주는 제29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Love Song'.

2006년 부산과 경남 지역의 전문 연주자 100여명으로 창립된 United Korean Orchestra(U.K.O)는 그동안 150여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거슈윈/썸머타임

라라/그라나다

베르디/'시몬 보카네그라' 중 '상처받은 영혼' 등 수곡

· 지휘/장진
· 소프라노/유승연, 박현정, 이승현
· 테너/김화정, 이칠성 · 바리톤/조현수
· 베이스/박기범

조이오브스트링스 개나리와 함께하는 'Healing Concert'

6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문 의 | 조이오브 스티링스(02-3471-6686)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 활성화를 위해 (사)조이오브스트링스와 개나리벽지㈜가 함께 들려주는 전국 6개 도시 투어 '개나리와 함께하는 Healing Concert'.

조이오브스트링스는 1997년 '상상력 넘치는 연주와 명료한 음악'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기교' '드라마틱하고 지칠 줄 모르는 대가의 감각'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에 의해 창단되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제1번 라장조, K.136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비탈리/샤콘느 사단조 등 수곡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성공기원 음악회

6월 16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31-1377)

오충근 박은주 김유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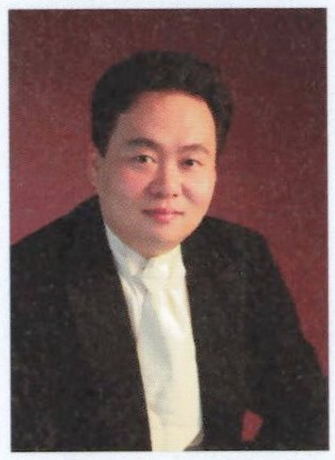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성공기원 음악회.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는 부산 음악인들의 하나된 염원을 담은 특별한 무대를 연다.

·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김유섬, 박은주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김수현
테너 강학윤, 김경,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

테너 조윤환 독창회

6월 17일 월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교회음악과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원, 베를린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 마이스터 엑자멘을 졸업하고 매력적인 음색과 순수한 감성을 지닌 테너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조윤환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1부에서는 챔발로로, 2부에서는 피아노 반주로 노래한다.

▶프로그램

카치니/아마릴리, 나의 사랑

모차르트/오라, 사랑스런 치터여, 클로에를 위하여

김영식/가곡집 '그리움 그 길목에서' 김영근 시에 의한 '눈 내리는 밤' '달빛이 흐르는 전경' '달의 몰락'

벨리니/오페라 '비안카와 페르난도' 중 '번민하는 영혼이여' 등 수곡

· 첼발로 반주/김미나
· 피아노 반주/성민주

부산시립합창단 제146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추모 및 G.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베르디 '레퀴엠'

6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6월, 호국보훈의 달,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맞아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연주회 '베르디 레퀴엠'.
베르디의 레퀴엠은 유행하던 레퀴엠 양식에서 조금 벗어나 독창과 중창의 비중이 한결 더 높고, 극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음악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번 무대는 화려한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을 지닌 성신여대 교수 소프라노 오미선, 한국인 메조 소프라노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인 Wiener Staatsoper에 데뷔한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따뜻한 음색과 유연한 레가토를 구사하는 테너 윤병길, Vissi d'arte 국제콩쿠르 1위(2000), 이태리 Umberto Giordano 국제콩쿠르 1위(2003)를 차지한 베이스 김남수가 솔리스트로 출연한다.

· 지휘/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출연/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합창단
· 소프라노/오미선 · 메조소프라노/양송미
· 테너/ 윤병길 · 베이스/김남수

김민정 플룻 독주회

6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민정(010-3918-8442)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민정의 플룻 독주회.
김민정은 전국 관악경연대회 우수,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3위, 신라대학교 콩쿠르 2위 등에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g-moll BWV 1020
보네/카르멘 환상곡
생상/플룻과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타란텔라 작품 6
탁타키슈빌리/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희망콘서트

6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3만원 · R석 2만 5천원 · S석 2층 2만원(인터파크, 전화예매시 5천원 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천원 할인)
문 의 | 극단 파랑새(1544-2486)

선천성 사지기형 1급이란 장애를 극복하고 국내 및 세계 각국에서 피아노로 희망을 선사해온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가 들려주는 희망콘서트.
1999년 장애극복 대통령상, 2000년 신지식인 청소년상 및 문화예술인상을 수상한 이희아는 지난 2006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로 그해 뉴욕 필름페스티벌 최고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았다.

▶프로그램

베토벤/환희의 송가 중 '기뻐하며 경배하세'
쇼팽/강아지 왈츠, 즉흥 환상곡, 왈츠 제10번
파헬벨/케논 변주곡
민요/아리랑 변주곡 등 수곡

2013년 보훈의 달 특집 '평화의 꿈' 콘서트 라메르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6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문 의 | 라메르오케스트라(627-5665)

1998년 창단된 이래 클래식 및 크로스 오버, 팝 등 다양한 음악회를 통해 청소년 음악교육,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등 취약계층의 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라메르오케스트라의 보훈의 달 특집 '평화의 꿈' 콘서트.
라메르오케스트라의 La Mer(라 메르)는 불어로 '바다'라는 뜻이다.

▶프로그램

6 · 25 관련영상,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곡(트럼펫 Solo)
바버/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 1
노상현/초혼, 도라산역
이영주/해바라기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등 수곡
· 예술 총감독/이재석 · 지휘/최봉은
· 특별출연/노상현(작곡, 전 부산광역시 시립의료원 원장), 이영주(동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양승엽(테너), 황미리(플루트), 최금화(소프라노), 김성훈(트럼펫), 김혜경(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4 Ga-Young

6월 21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클래식 뮤지션으로 보기 드물게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에 올라 화제를 모은 비올리스트 가영과 함께 하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4.

부산악기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여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비올리스트로는 드물게 크로스오버 앨범을 발표한 가영은 정통 클래식 연주자로 한국종합예술학교와 뉴욕 메네스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탱고 & 샹송'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클래식 연주자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비올라로 연주하는 격정적이고 애절한 탱고와 달콤한 샹송의 사랑의 노래로 비올리스트 가영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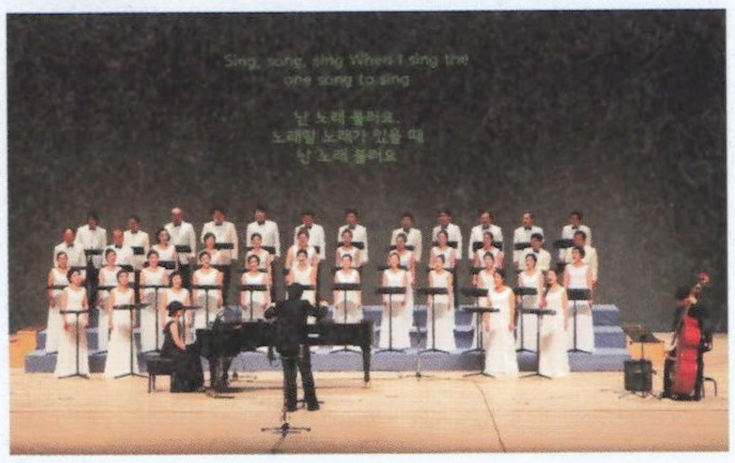
라 쿰파르시타(La Cumparsita), 사랑의 찬가, 나를 사랑해주세요, 샹젤리제, 눈이 내리네, 애원, 파리의 하늘 아래 등 수곡

(이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박윤우 · 피아노/유승호

부산하모니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6월 22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하모니합창단
(610-1304, 010-2593-1651)



2003년 3월, 합창음악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다양한 직업군의 합창 애호가 50여명으로 창단된 부산의 대표적인 혼성민간합창단 부산하모니합창단(단장 장연수)의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전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인 김강규 상임지휘자와 함께 클래식에서 대중가요 등 모든장르를 망라, 깊은 예술성과 재미와 감동이 있는 합창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해온 부산하모니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부산국제합창제 혼성클래식부문 대통령상, 전국합창대회 등에서 수상하면서 그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창단 10주년을 맞아 '시를 위한 시'라는 주제 아래 가수 이문세의 히트곡들을 합창으로 편곡하여 안무와 함께 대중적인 감성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 지휘/김강규 · 피아노/윤지영
· 특별출연/대학연합합창단(경성대/동아대/부산대)

2013년 KBS부산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창립 60주년기념 음악회

6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류지원(010-3864-9889)

6 · 25 전란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한 KBS부산어린이합창단의 창단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연주회.

2012년부터 류지원(명호초등학교 수석교사)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KBS부산어린이합창단은 그동안 '신나는 날 즐거운 날' 방송 출연, 'KBS 부산창작동요제' 개최, 불우청소년 돕기 자선음악회, 금난새 오케스트라 협연, 소프라노 조수미 공연 협연, 한국합창연합회 공연 등에 출연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프로그램

동요 사계절/나무가족(김애경 곡), 푸른 바다 돌고래(신진수 작곡), 가을 그림(조원경곡), 첫눈 오던 날(이철희 곡)

여러 나라 합창곡/도나도나도나(독일), 날개를 주세요(일본), Any Dream Will Do(미국)

졸업단원 무대/기차를 타고, 가까운 사람끼리(김태호곡), 나무는 나무끼리(박봉렬곡) 등 수곡

· 지휘/류지원 · 안무/함주현
· 피아노/김유영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6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781-0044, 010-3858-9434, 010-9168-9434)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국립세바스토폴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부산의 청소년 유망주들이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947년에 창단된 세바스토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매년 유럽 주요 국제음악축제 참여하며 조화로운 악단이라 찬사를 받아왔다. 2006년 우리 동포 고려인 2세 브라드미러 김이 상임지휘자로 추대 되면서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상위 오케스트라로 도약, 발전하고 있다.

▶프로그램

김현도/태백 기상곡
생상/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엘가/첼로협주곡 마단조 작품 85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슈트라우스/라데츠키 행진곡 등 수곡

· 지휘/브라드미러 김
· 특별출연/북구청소년합창단, 신도청소년오케스트라
· 연주/김유경(바이올린, 부산예고 2학년), 한효진(첼로, 부산예고 1학년), 장령은(바이올린, 부산예고 2학년), 장희경(첼로, 대전국제학교 8년), 임효재(피아노, 창신대 전공심화 재학 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Ensemble DITTO Season 7
BACH CODE

6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클래식 음악계의 꽃미남 스타들로 구성된 Ensemble DITTO 부산연주회.

2007년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중심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앙상블팀 Ensemble DITTO는 창단과 함께 음악뿐만 아니라 화려한 마케팅, 혁신적인 시도로 많은 화제를 낳았다.

현재 리처드 용재 오닐을 비롯해 스테판 피 재키브, 마이클 니콜라스, 지용, 다니엘 정이 활동하고 있는 디토는 실내악 공연으로서는 드물게 2008, 2009년 예술의 전당 유료관객 1위 기록, 10개 도시 순회공연을 모두 매진시키며 끊임없는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디토는 2010년 6월 도쿄국제포럼과 오사카 심포니홀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7,000석), 일본 클래식 시장에서 한국 클래식콘텐츠의 더 큰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베토벤/현악사중주 '대푸가(Große Fuge)' 작품 133
멘델스존/피아노 삼중주 2번 다단조 작품 66
바흐/골드베르크 변주곡(현악 삼중주 버전)

● ● ●

부산시립무용단 2013 풍류(風流) 7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6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전통무용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준 시민무용교실 수강생들과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풍류(風流) 7기 무대.
무용교실 강습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하며 우리춤의 이해를 도와온 풍류는 그동안 130여명의 시민 전문 무용인을 발굴, 양성해왔다.

▶프로그램

장고춤, 입춤
· 예술감독/홍경희 · 무용지도/장래훈, 서정연
· 특별출연/부산시립무용단 소고춤 김도은, 김시현, 박미나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
제5회 정기연주회

6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이재복(010-5540-1538)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재학생으로 구성된 UKYO는 학업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연간 2~3회의 음악회를 통하여 공연의 티켓 판매수익금 전액을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지원해왔다.
UKYO는 그동안 8명의 난치병어린이에게 수술비를 지원, 수영구 자원봉사센터장상과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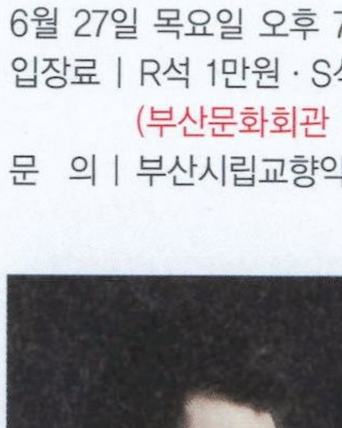
주페/경기병 서곡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슈트라우스/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 수곡
· 지휘/전영수

● ● ●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6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엄남이(010-7519-9843)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엄남이의 네 번째 독창회.
화려한 음색을 보여주는 밤의 여왕 아리아를 비롯해 뮤지컬 캔디드 중 Glitter and be gay, 해금과 풍부한 첼로의 음색과 소프라노의 고운 음색으로 듣는 남미풍의 매력적인 멜로디 등으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번스타인/뮤지컬 캔디드 중 'Glitter and be gay'
안정준/아리아리랑 등 수곡
· 해금/김소현
· 첼로/김판수
· 피아노/이경미

● ●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Ⅲ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 · A석 5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리 신차오

피아노 김선욱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함께 교향 음악의 정수이자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세번째 무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 | 글로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음향세미나 / 행사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오디션에서 합격사례) 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글로빌아트홀 개관 8주년기념 특별행사 연주회 및 발표회를 2013년도 6~12월 중 계획하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실황녹음 cd 또는실황녹화 영상물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글로빌아트홀의 첨단장비로 제작하는 고음질 고화질) 신청기간 : 6~8월 중 신청자에 한함

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빌아트홀(온천3동 1243-21) ☎ 051-505-5995 Fax. 051-505-5935 glovil@daum.net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세계 권위의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및 최연소 우승으로 이름을 떨치며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연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베토벤의 마음의 여유가 반영되어 낭만과 서정이 조화로운 '교향곡 제4번'과 김선욱이 협연하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싱그러운 초여름의 낭만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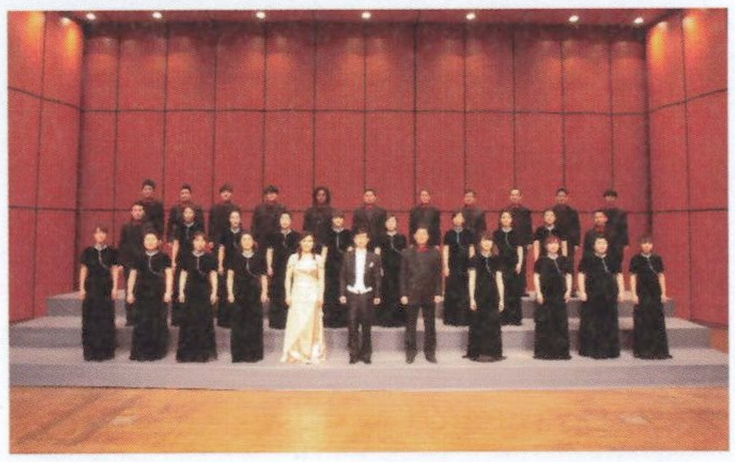
베토벤/교향곡 제4번

브람스/피아노 협주곡 제2번

· 지휘/리 신차오 · 피아노/김선욱

글로리콰이어 제22회 정기연주회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글로리콰이어(010-8544-4702)



1982년 CBS 관악협회 내 CBS 성인합창단으로 출발, 25년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글로리콰이어 제22회 정기연주회.

사회의 취약지역 및 소외된 지역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글로리콰이어는 정기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 범죄예방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부산 라이트 하우스 아동 돕기,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돕기 등 사회의 불우한 계층을 위한 연주로 음악사랑을 실천해왔다.

이번 연주회는 미국에서 활동중인 자선단체인 En gedi와 함께 연주한다.

▶프로그램

합창1. 주의기도,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합창2. Ice castle, 꼬부랑 할머니, 사랑은 아무나하나

합창3. 우리는, 라구요, Sweet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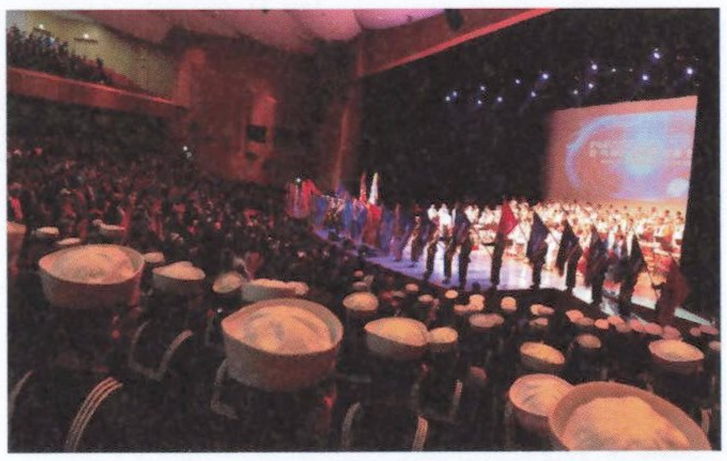
합창4. 아리랑, 별, Tequilla samba 등 수곡

· 지휘/이정철

· 특별출연/En Gedi string ensemble,
남성앙상블 FOUR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군악대 합동 호국음악회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해군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
(679-6063~4)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군작전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육군53보병사단, 제1해병사단, 부산광역시가 함께 마련하는 '합동 호국음악회'.

각 군 군악대 80여명과 해군 홍보단, 공군 B-boy, 부산시립합창단, 성악/시인 등 140여명의 공연진이 화려한 무대를 펼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2회 솔로이스트들의 축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이동신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청소년교향악단 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에게 협연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솔로이스트들의 축제'.

이동신의 지휘로 화려한 기교를 바탕으로 한 협연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중 3악장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중 제1악장

브루흐/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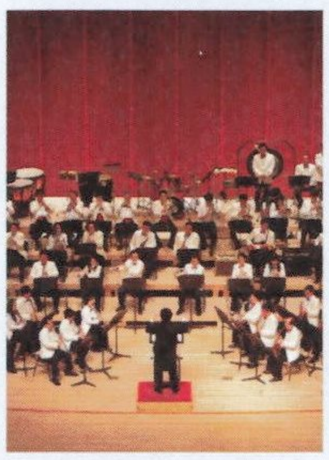
모차르트/협주 교향곡 중 제1악장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협연/고은비(바이올린, 부산대 4학년), 박서영(바이올린, 부산예고 2학년), 조현영(바이올린, 동아대 4학년), 강예인(첼로, 동아대 4학년), 박아름(비올라, 경성대 3년), 황영은(비올라, 부산대 4학년), 전성경(클라리넷, 동의대 4학년), 부상현(호른, 경성대 2년)

닥터스 심포닉밴드 제12회 정기연주회

6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국희(010-9458-9258)



음악과 같이 한 인생이 환자를 진료하는 그 이상으로 행복한 의사들이 모인 닥터스 심포닉밴드 제12회 정기연주회.

지난 1년간 바쁜 일상에서 틈틈이 수련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로저스/The Sound of Music

월터(편곡)/Instant Concert

Legend of Queen

Memories of Ennio Morricone(국내초연)

이와이/A tribute to Michael Jackson 등 수곡

· 지휘/정홍기 · 협연/정화음

유진박과 함께 하는 한 여름밤의 음악회

6월 30일 일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문 의 | 유진박후원회(010-8535-4300)

파격적인 전기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이며 국내에 혜성 같이 등장, 열정적인 무대매너와 다이나믹한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유진박과 신관웅빅밴드가 함께 하는 여름밤의 음악회.

힘든 과정을 견디고 새롭게 음악인생을 시작하는 유진박을 돕기 위해 결성된 유진박 후원회에서 기획한 이번 무대는 1983년 8세에 나이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 10세부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면서 천재성을 발휘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과 부산시민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이다.

1996년부터 한국활동을 시작한 유진박은 첫 번째 앨범 〈The Bridge〉로 백만장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6월 8일 부산 버슴새예술단 '사물놀이와 민속춤'

▶프로그램

삼도 설장구 풍물악기 중 장구만 구성되어 합주형식의 음악을 무대형식으로 만들어낸 작품.

25현 가야금 중주 기존 12줄 가야금을 개량하여 서양식 화성으로 자유롭게 구사.

삼도사물놀이 사물(꽹과리, 징, 장구, 북)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풍물에서 취한 가락을 토대로 발전한 음악.

진도북춤 북을 어깨에 매고 양손에 채를 쥐고 추는 국내유일의 양북춤. 들노래에서 보이는 모방구 '못방구'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풍물(농악)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판굿 판굿에 '판'이라 함은 '우리네 마당'을 일컫는 말.

• 출연/최정민(대표, 지방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장구 이수,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단 '난타' 음악감독), 김한동, 박정원, 이기인, 김민지, 이남정, 구지혜, 이호정, 현선화, 김대원, 김복남

6월 15일 도시樂(DosiRak) '도시에 흘러넘치는 음악! 도시의 즐거움'

▶프로그램

아름다운 나라 성악가 신문희가 작곡가 한태수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노래에 담은 곡.

꽃분네야 홀로된 꽃분네가 먼저 세상을 뜬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애잔함이 느껴지는 구전민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가수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해금의 애절한 소리로 표현한 곡.

영화음악 '시스터 액트', '내일을 향해 쏴라' OST 영화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OST 〈I will follow him〉, 〈Oh happy Day〉, '내일을 향해 쏴라'의 주제곡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를 도시락의 색에 맞게 구성.

동요메들리, 배 띄워라, 난감하네, 민요메들리 등 수곡

• 출연/이지현(리더, 타악), 조아라(소리), 정수유(가야금), 최유리(해금), 김가나(대금), 백진희(작곡), 홍영준(첼로), 김지훈(클라리넷)

6월 22일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프로그램

무산향, 흥타령, 입춤, 화중신선, 부채춤

• 안무 · 구성/홍경희(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Music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4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1일 프로그램

수제천, 무고, 영남성주굿, 부채춤, 취타풍류, 서도민요 '산염불, 자진염불', 꽃나부풍장놀이춤

▶8일 프로그램

검무, 수룡음, 태평무, 가야금병창 '제비노정기', 승무,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박범훈 곡), 사물놀이

▶15일 프로그램

전폐희문, 수영야류 중 영감 · 할미과장, 구음시나위, 동래한량춤, 좌수영어방놀이춤, 판굿 등

▶22일 프로그램

선유락, 가곡 '태평가', 산조춤, 세상풍경(강상구 곡), 강강술래, 사물놀이와 호적시나위 등

▶29일 프로그램

학연화대무, 처용무, 가곡 '편락, 편수대엽', 삼고무, 경기민요 '구아리랑, 해주아리랑', 꽃나부풍장놀이춤 등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4일 영남가야금앙상블의 知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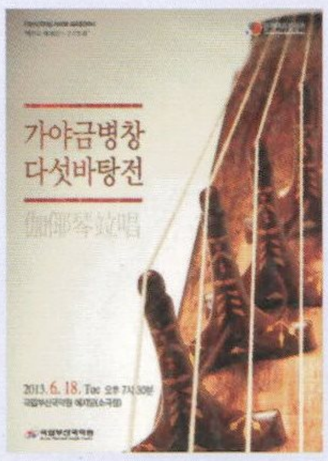
영남대학교 최문진 교수를 주축으로 영남대학교 동문들로 결성된 영남가야금앙상블의 무대.

· 가야금/최문진(대표), 허회성, 김유선, 서승연, 홍지연, 홍혜림, 박혜리, 김소리
· 야탁/칭바트 바상후 · 퍼커션/심익찬

▶11일 류권홍의 춤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류권홍의 춤.

▶18일 가야금병창 다섯바탕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이수자로 활동하는 천주미와 원지예, 김미림, 천수민, 이슬이가 들려주는 가야금병창 다섯바탕전.

▶프로그램

적벽가 중 '화용도', 춘향가 중 '기생점고', 흥보가 중 '구만리~ 제비노정기', 심청가 중 '방아타령' 등

지휘자 이성훈의 음악여행 친구들

6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성훈(010-3586-1938)

부산대학교 합창 지도교수,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부산가톨릭합창단, 쁠레나앙상블,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이성훈과 그의 음악친구들이 함께하는 무대.

· 출연/소프라노 정인숙, 최옥수, 박영숙, 정지숙, 오향숙, 테너 김석수, 이경춘, 옥광호, 바리톤 김의용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5일 이경아 피아노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카를스루에 국립음대, 프랑스 파리 에꼴 노르말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이경아 독주회.

▶12일 2013 꼬레아 오페라단 기획연주
'감성과 이성을 일깨우는 공감 콘서트'

소프라노 정혜리, 박현정, 테너 이은민, 바리톤 김길수, 안상철, 베이스 박기범이 마련하는 공감콘서트.

· 특별출연/강지원, 최혜리,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

▶19일 제13회 아르스현악사중주단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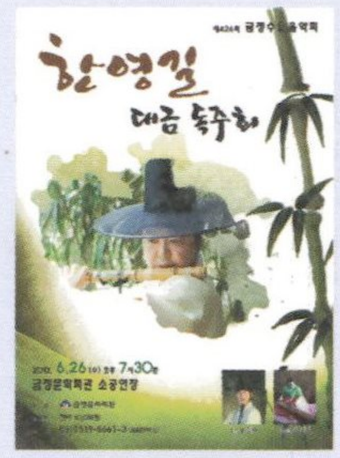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권남희,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현악사중주단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현악4중주 작품 18
슈베르트/5중주 '송어'

· 피아노/조현선
· 콘트라베이스/박희철

▶26일 한영길 대금 독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실내악단 산 · 바다 · 해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영길 대금 독주회.

▶프로그램

정상지곡, 원장현류 대금산조

· 장구/송강수 · 가야금/최미란

제11회 랑데 부 드 부산 M. ZECCHINI의 왼손공연

6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부산프랑스문화원과 금정문화회관 주최로 열리는 프랑스 리용국립음악원 출신의 왼손잡이 피아니스트 막심 제치니 초청 무대.

막심 제치니는 그동안 왼손 하나만으로도 저음과 고음을 넘나드는 놀라운 연주력으로 매혹적인 무대를 선사해왔다.

을숙도문화회관 금요 해피콘서트
오충근 교수의 친절콘서트

6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고신대학교 오충근 교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을숙도문화회관 '금요 해피콘서트' 6월 무대.

박경화 피아노 리싸이틀

6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글로빌아트홀(505-5995)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박경화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26번 '고별'
리스트/전설 제2번 등

동래문화회관 토요클래식 뮤직샤워

6월 8일(토), 22일(토)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동래문화회관이 매주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마련하는 토요클래식 무대.
6월에는 Skakti Percussion 듀오무대(8일)와 이천우의 색소폰 앙상블 무대(22일)가 펼쳐진다.

행복나눔 상설 클래식 콘서트

6월 8일 토요일 오전 11:0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5천원 · 학생 2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콘서트.

루마니아 바나툴 티미수아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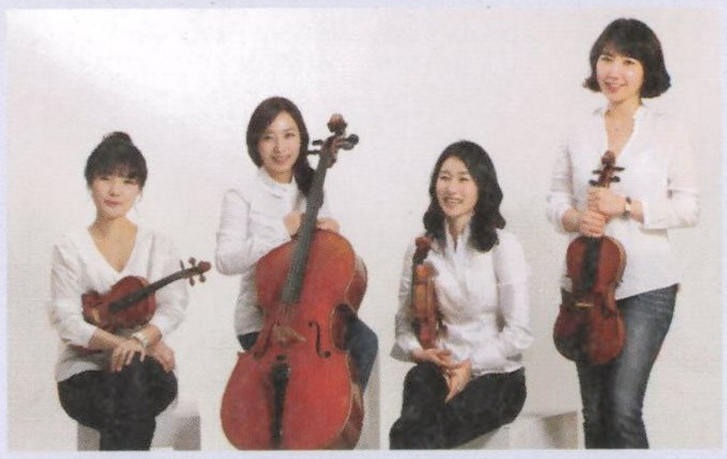
6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예술기획 파홀로(501-3999)

1871년 창단된 후 바로크시대의 오라토리오부터 고전,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는 루마니아 바나툴 티미수아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 지휘/Radu Popa
· 협연/김경미, 전슬기, 유하영, 김유민, 이지윤, 최현정, 우호영, 윤장미

String Quartet 'BRIDGE' 창단연주회

6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김채원(010-9307-1177)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채원, 김선옥, 비올리스트 김민주, 첼리스트 장여정으로 구성된 현악4중주 'BRIDGE'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하이든/현악 4중주 '종달새'
헨델/현악 4중주를 위한 '파사칼리아' 등

현악4중주단 Belita 연주회

6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I.P.B 이광식(010-2345-9709)

브니엘예중, 예고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민지, 이영주, 비올리스트 유정주, 첼리스트 현리사로 구성된 현악4중주단 Belita의 첫 번째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현악4중주 제17번 K.458 'Hunt'
드보르작/현악4중주 작품 96 '아메리칸' 등

동성화학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장일범 영화 속의 발레 '블랙 스완'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로 영화 속 명곡을 전하는 '장일범의 영화음악' 세번째 무대.
영화 '블랙 스완' '지젤' '백야' 등 그동안 사랑받았던 발레영화를 발레리나 김주원과 함께 장일범의 해설로 만나볼 수 있다.

비르투오조 앙상블 연주회

6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비르투오조 앙상블
(890-1318, 010-9320-4581)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음악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비르투오조 앙상블 정기연주회.
부산에서 초연되는 덴마크 출신 작곡가 N.W.Gade의 현악8중주를 비롯해 작곡가 제갈삼의 창작곡 'Elegy'를 제자인 피아니스트 박성미가 연주한다.

· 바이올린/백재진(리더), 김도경, 서은아, 오근영
· 비올라/김은진, 장유진
· 첼로/정준수, 김영지 · 피아노/박성미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 '끌림'

매주 목요일 오후 7:30(7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매주 목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음악 선물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

▶13일 홍노경의 아름다운 재즈

매력적인 재즈디바 홍노경의 진행과 연주로 펼쳐지는 재즈의 향연.

▶20일 젊은 퓽류 '부산을 노래하다'

지난 2008년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로 창단된 후 전통음악의 전승과 보존, 국악의 현대화와 대중화 작업에 힘써온 퓨전국악밴드 '젊은 풍류'의 무대.

▶27일 송언경, 홍상희가 연주하는 춤 이야기

첼리스트 송언경, 피아니스트 홍상희가 들려주는 첼로와 피아노의 앙상블 무대.

아트카페 움 목요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6일 공연없음)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트카페 움(557-3369)

▶13일 이장호 바이올린 독주회

부산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시립음대, 독일 트로싱겐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크로노스앙상블 리더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 독주회.

· 피아노/김유미

▶20일 첼리스트 박현영과 함께하는 목요음악회

부산대학교와 미국 마이애미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경남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박현영의 무대.

▶27일 테너 서명보, 소프라노 김인희의 듀엣 콘서트

경성대학교와 이태리 Luigi Bocherini 음악원, 로마 A.I.D.A 아카데미아를 졸업하고 독창회 및 오케스트라 협연,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서온 테너 서명보와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창원시립합창단 상임단원, 부산극동방송 싱어즈 단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김인희의 듀오무대.

· 피아노/이은정

양욱진, 정성흡&프랜즈 2
유진박, Back to CLASSIC

6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아카디아 ACM(070-7434-4502)

오랜 친구이자 음악적 동반자인 첼리스트 양욱진과 피아니스트 정성흡이 동료 연주가들과 함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보여주는 '양욱진, 정성흡&프랜즈' 두 번째 무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기 전 그의 음악적 모태가 된 주옥같은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로시니/첼로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듀오
베토벤/피아노트리오 내림나장조 작품 97 '대공'
슈베트르/피아노5중주 가장조 D.667 '숭어'

· 바이올린/이리나(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
· 더블베이스/박희철(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6월 15일(토), 29일(토) 오후 7: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15일 바이올리니스트 김채원, 안은탁 듀오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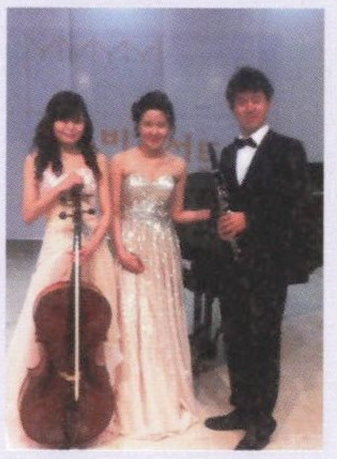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 재학중인 김채원과 러시아 글린카 음악원에 재학중인 안은탁이 마련하는 바이올린 듀오무대.

▶프로그램

바흐/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모차르트/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연주곡 등

· 피아노/김유미

▶29일 Trio B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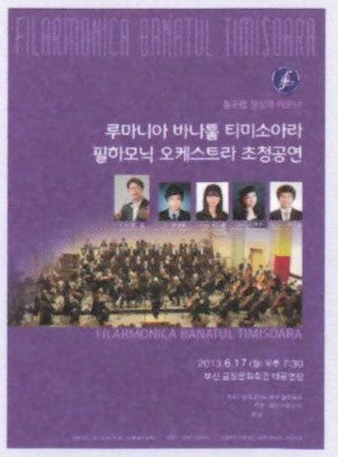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정경아, 첼리스트 이현지, 클라리네티스트 Jo Komatsu가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재즈모음곡 제2번 '왈츠'
생상/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위한 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167 등

루마니아 바나툴 티미수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6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공연기획 이즈
(809-9252, 010-9321-9807)



1871년 창단된 루마니아 최정상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루마니아 바나툴 티미수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생상스/바이올린 협주곡 제

3번 나단조 작품 61
모차르트/교향곡 제40번 사단조 K.550 등
· 지휘/김철(한국국제대학교 교수)
· 협연/함태윤(테너), 이다솜(바이올린), 김희정(소프라노), 정지교(피아노)

최영미 피아노 리사이틀

6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주)음연(02-3436-5929)

'폭발적인 에너지와 강렬함의 피아니스트'로 호평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영미의 2013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한 최영미는 그동안 유럽과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쇼팽/녹턴 작품 32 제2번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23번 작품 57 '열정' 등

을숙도문화회관 힐링콘서트
가야금 공연팀 나비야와 함께하는 '이리 날아오너라'

6월 19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야금연주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김은별, 황정원, 최승혜로 구성된 가야금 공연팀 '나비야'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전통국악에서부터 창작곡, 영화음악, 가요 등 퓨전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황금산의 백도라지, 절영의 전설, Happiness, 영화음악 '태극기 휘날리며, 키쿠지로의 여름, 연리지', 출강, 일출 등
· 협연/김나영(거문고, 부산거문고악회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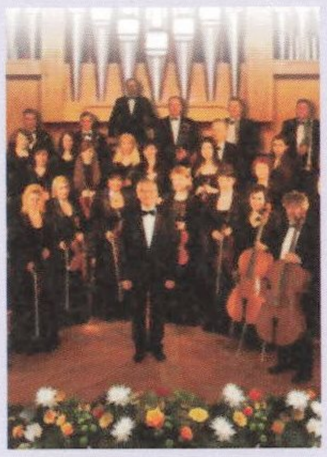
행복나눔 상설 국악 콘서트

6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5천원 · 학생 2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부산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결성된 퓨전 국악실내악단체 음악대륙 가이아가 마련하는 상설 국악무대.
전통국악에서부터 창작국악, 퓨전국악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제1146회 MBC목요음악회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6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010-9168-9434)



1947년 창단된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국립 세바스토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제1146회 MBC목요음악회.

▶프로그램
김현도/태백 기상곡
푸치니/오페라 '쟌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비발디/기타 협주곡 라장조 등
· 지휘/김영근
· 협연/안나(소프라노), 오신정(플루트), 이승권(클라리넷), 박태형(첼로), 강민승(해금), 고충진(클래식기타), 김현도(작곡), 은파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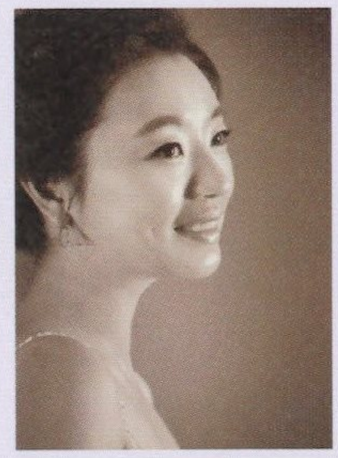
나드림콰이어 제3회 정기연주회

6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전경일(010-6573-7578)

지난 2009년 나드림국제학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후 정기연주회와 외국학교 초청연주회, 거리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나드림콰이어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전경일(나드림국제학교 예술처장)
· 반주/장예슬 · 초청반주/전보라

박정난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6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청소년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동의대학교와 독일 하이델베르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난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포레/주제와 변주 올림다단조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24번
쇼팽/피아노 소나타 제3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상생 2013, 환경생태이야기

6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13'.
오늘날 인류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환경생태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흥과 신명이 넘치는 다양

한 창작국악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철호
· 협연/박성희(소리), 정선희(소리), 이주헌(꽝과리), 전학수(장구), 최오성(징), 송강수(북)
· 객원출연/박준현(첼로)

●●●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첼리스트 이명진 '그 고독한 E음의 Coda…'

6월 21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국내외 우수연주자들의 협연 및 유명 작곡가들의 명곡을 들려주는 을숙도 명품 콘서트 4월 무대.
독일 에쎈 풀크방 국립음대,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 화음 첼버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이명진이 협연한다.

· 예술감독/김원명(경성대학교 교수)
· 작곡/김진우(중앙대학교 교수)
· 연주/T.I.F.오케스트라(지휘/이효상)

●●●

을숙도문화회관 토요 렉쳐콘서트
음악과 경쾌함으로 가득찬 세계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유명 클래식 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렉쳐콘서트.
표현주의의 대가 칸딘스키, 파울 클레의 작품과 그 시기에 활동했던 음악가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 해설/큐레이터 옥성금
· 지휘/오창록
· 연주/T.I.F오케스트라

●●●

폴 포츠 시네뮤직 콘서트

6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 S석 10만원
A석 8만원 · 발코니석 6만원/4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감동신화의 주인공 폴 포츠 부산공연.
영국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승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성악가로 거듭난 폴 포츠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스토리가 무대에서 펼쳐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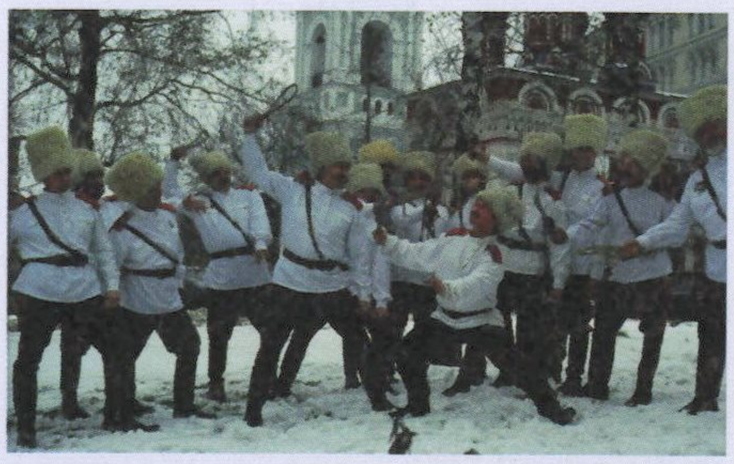
제66회 글로빌 행복음악회

6월 23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금 기금)
문 의 | 글로빌아트홀(505-5995)

글로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글로빌 행복음악회.

돈 코작 합창단 & 카프카스 댄스앙상블 내한공연

6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19-5661)



대지를 울리는 광활하고 힘찬 소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러시아 돈코작 합창단과 전통 클래식발레와 카스카스 춤을 현대적 감각의 모던스타일로 재구성, 역동적이면서도 강렬한 무대를 선사하는 카프카스 댄스앙상블의 첫 내한공연.

· 총예술감독/빅토르 쿨레쇼프
· 지휘/드미트리 쿠즈넷소프

●●●

김은경 클라리넷 독주회

6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김윤제(011-9073-1279)

'낭만적인 감수성과 음색을 가진 영리한 연주자' 라는 호평을 받은 클라리네티스트 김은경 독주회.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Hochschule für Musik Hanns Eisler Berlin, Hochschule für Musik Freiburg를 졸업한 김은경은 그동안 금호 영아티스트 리사이틀, 일본 클라리넷협회 실내악 연주, 윤이상국제음악제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윌슨 오스본/광시곡
레너드 번스타인/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브루흐/클라리넷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 협주곡 등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오카리나 연주자 양강석의 자연의 소리, 힐링 콘서트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오카리나 연주에서부터 작곡, 강습, 악기제작, 교본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오카리나 저변확대에 힘써온 오카리나 연주자 양강석과 함께 자연의 소리를 담은 악기 오카리나의 음악세계로 떠나는 힐링 콘서트.

· 출연/양강석(오카리나), 김경(피아노), 김정욱(기타), 조성민(퍼커션)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금난새 &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6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7만 7천원 · R석 6만 6천원
S석 5만 5천원 · A석 4만 4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5% 할인)
문 의 | (주)문화락(1600-1602)

지휘자 금난새의 재치있는 해설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마련되는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지난 1997년 서울국제음악제에서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가진 후 국내외 순회공연을 통해 호평을 받아온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음악감독 금난새의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조화로운 연주로 매 공연마다 청중을 클래식의 매력속으로 이끌어왔다.

런던첼로오케스트라 내한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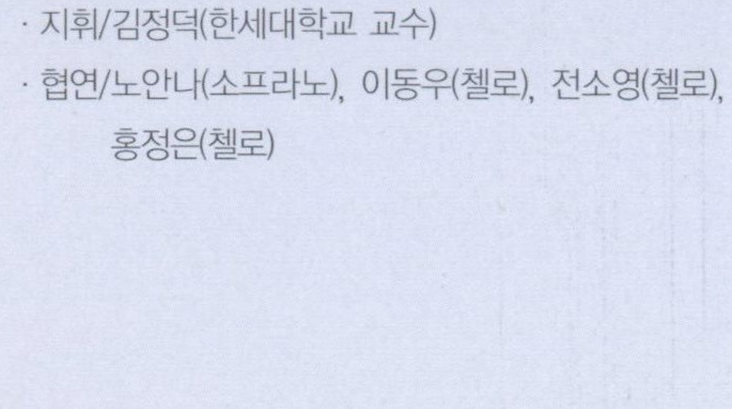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A석 6만원 · B석 4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1993년 지휘자 제프리 사이먼과 런던필하모닉오케스트라, BBC필하모닉오케스트라, 로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중인 첼리스트들로 창단한 런던첼로오케스트라 내한공연.
화려한 사운드와 폭발적인 연주로 고품격 무대를 선사한다.

· 협연/소프라노 발다 윌슨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6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림회원 균일 1천원)
문 의 |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010-9168-9434)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국립 세바스토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6월 무대.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무제타의 왈츠' 등

· 지휘/김정덕(한세대학교 교수)
· 협연/노안나(소프라노), 이동우(첼로), 전소영(첼로), 홍정은(첼로)

부산지방우정청이 함께하는 문화나눔 공연

6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지방우정청 총무과(559-3214)

우체국 직원들로 구성된 부산지방우정청 합창단과 초록우산 드림어린이합창단, 동성원 드림윈드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사랑의 문화나눔 공연.

동래문화회관 목요힐링콘서트
음악대륙 가이아와 함께 하는 국악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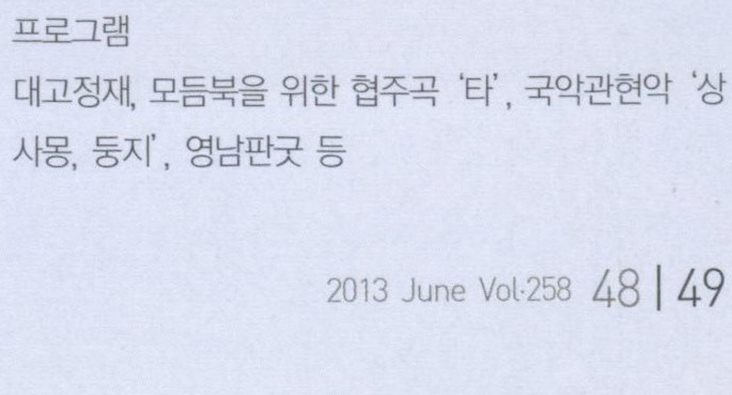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2009년 창단 후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을 선사해온 퓨전 국악실내악단체 음악대륙 가이아가 전통국악에서부터 창작국악, 퓨전국악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2013년 매구놀이마당 정기공연

영남매구굿 -판을 열다-

6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 의 | 매구놀이마당(327-7100,
010-5488-5941, 010-4464-2272)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기능보유 후보자와 이수자, 부산, 영남지역의 풍물을 사랑하는 전문예술인들로 구성된 풍물연희단체인 매구놀이마당의 2013년 정기공연.
'매구'란 영남지방에서 쓰이는 은어로 꽹과리 또는 풍물, 풍장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대고정재, 모듬북을 위한 협주곡 '타', 국악관현악 '상사몽, 둥지', 영남판굿 등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Play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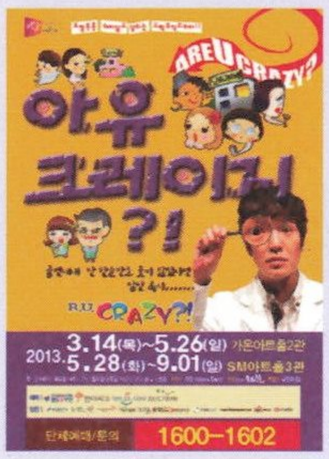
2013년 1월 1일(일)–OPEN RUN 화요일, 목–금요일 오후 8:00, 수요일 오후 3: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 ● ●

연극 '아유크레이지'

5월 28일(화)–6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극단 라임(1600–1602)



정신병원에 위장 입원한 천재박사 김희진과 그의 조수 임윤택, 보수적인 사고를 지닌 괴짜박사 이규인과 실수투성이 초보 간호사 이애리 등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요절복통 해프닝을 그린 코믹극 '아유크레이지'.

● ● ●

코믹뮤지컬 '프리즌'

4월 4일(목)–6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1:00,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극단 라임(1600–1602)

가수를 꿈꾸는 탈옥범들의 요절복통 스토리와 퍼포먼스, 비보잉, 마술 등이 결합된 색다른 코믹뮤지컬.

연극 '옥탑방 고양이'

5월 10일(금)–6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의도치 않은 동거를 시작한 청춘남녀의 해프닝과 로맨스를 통해 솔직하고 당당한 신세대들의 사랑이야기가 펼쳐진다.
· 각색/박은혜
· 연출/강유선
· 출연/박은석, 송광원, 이지혜, 한초아, 이대호, 장용, 길하라, 이하나

● ● ●

뮤지컬 '사랑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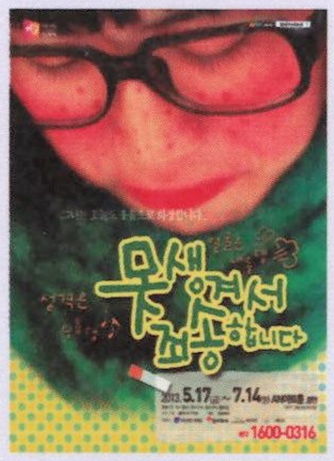
5월 17일(금)–6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611–8518)

인간의 일상을 통한 삶의 부조리를 명쾌하게 그려낸 머레이 쉬스갈의 부조리 코미디극 '타이피스트'를 흥겨운 음악과 코믹스런 연기로 재탄생시킨 뮤지컬.
· 연출, 작사, 작곡/김만중
· 출연/김아름, 박준성

● ● ●

유기농 로멘스연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5월 17일(금)–7월 14(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짠한 슬픔과 유쾌한 웃음이 공존하는 스토리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진행되는 빠른 극 전개, 상상력 넘치는 무대장치가 극의 재미를 더해주는 로맨스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 작, 연출/김민우

● ● ●

연극 '두 여자'

5월 30일(목)–9월 22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1:00,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극단 라임(1600–1602)

서늘한 반전이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각, 청각 뿐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 지금까지 기존의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호러연극 '두여자'.

● ● ●

KNN 창사 18주년 기념 뮤지컬 '시카고'

6월 6일 목요일 오후 3:00, 7:30, 7일 금요일 오후 7:30, 8일 토요일 오후 3:00, 7:30, 9일 일요일 오후 3: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입장료 | VIP 12만원 · R석 10만원
S석 8만원 · A석 6만원
문 의 | 예술기획 성우(1599–1980)

1975년 뮤지컬의 신화적 존재인 밥 파시에 의해 관능적 유혹과 살인을 테마로 농염한 재즈선율과 섹시한 춤으로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
공연 초반부터 무대를 지켜온 열정의 디바 인순이와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여배우 최정원에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배우 이하늬, 실력파 뮤지컬 배우 오진영

이 합세하면서 4인 4색의 개성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

어린이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6월 6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명작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원작으로, 늑대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우애를 그린 어린이 뮤지컬.

●●●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

6월 6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똥세례를 받은 두더지의 범인 찾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관찰력을 키워주는 어린이 뮤지컬.

●●●

뮤지컬 '우모자'

6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9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세계가 놀라고 영국 웨스트엔드가 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웰메이드 뮤지컬 '우모자'.

'함께하는 정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모자(UMOJA)는 흑인음악의 일대기를 역동적으로 그려낸 뮤지컬로, 남아공에서 전회매진의 흥행기록을 세우고 영국 웨스트엔드로 진출해 큰 호평을 받았다.

●●●

연극 'New 바라바라'

6월 7일(금)-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허둥 9단으로 인기를 모은 개그맨 허동환의 폭소 코메디연극 '바라 바라'의 2013년 무대.
단순한 웃음을 넘어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소극장 코메디의 진수를 보여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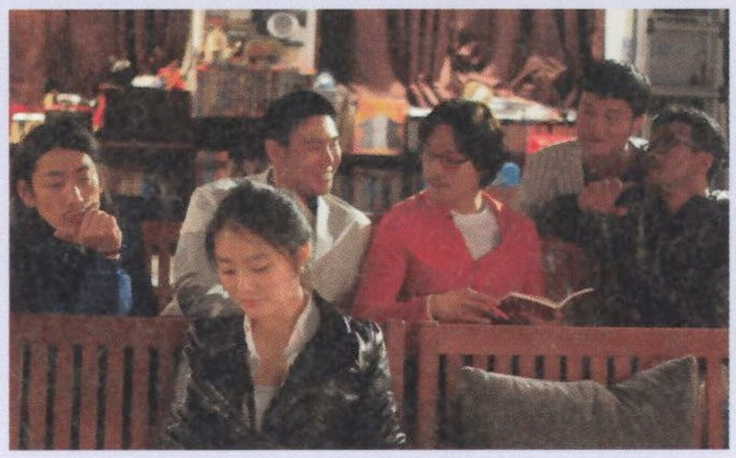
뮤지컬 '김종욱 찾기'

6월 8일 토요일 오후 8:00, 9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1층 6만원 · 2층 5만원
문 의 | 초록공간(1577-4868)

첫사랑을 찾아나선 남자와 첫사랑을 찾아주는 남자의 티격태격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로, 지난 2006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창작뮤지컬의 신화 '김종욱 찾기'.
· 극작, 작사/장유정
· 작곡/김혜성 · 연출/김동연

시네틱 드라마 '증인들' 시즌2

6월 13일(목)-7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자유바다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스토리 팜(441-1978)



시나리오작가 오승일, 최정배, 연극연출가 주혜자 등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작가들의 협력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영화인들이 크랭크인을 앞두고 촬영이 중단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시네틱 드라마 '증인들' 시즌2.
· 원작/오승일 · 연출/주혜자
· 영상감독/최정배
· 프로듀서/이지숙
· 출연/박현, 양기원, 문성운, 강근탁, 강민지, 유성곤

●●●

연극 '쉬어매드니스'

6월 14일(금)-7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우주최강 돌아이 미용실 '쉬어매드니스' 2층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소재로, 관객들의 수사와 추리를 통해 범인이 달라지는 대한민국 최초 관객참여형 연극 '쉬어매드니스'.
· 연출/변정주
· 출연/이현철, 김철진, 고혜미, 유재동, 김소희, 배현일

여관집 여주인-미란돌리나

6월 14일(금)-7월 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구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
문 의 | 시나위공연기획단(070-8612-5244)

여관집 여주인 미란돌리나와 리파프라타 기사의 사랑 게임을 통해 남성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선보이는 연극 '여관집 여주인-미란돌리나'.

· 작/까를로 골도니
· 연출/박상하
· 협력연출/오정국
· 출연/박상규, 최용진, 변지연, 백길성, 정애경 외

무언극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6월 15일-16일 토-일요일 오후 3: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6만원 · R석 5만원 · S석 4만원
문 의 | 쇼비보이(주)(1599-9727)

첫눈에 비보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발레리나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비걸이 되어가는 과정이 화려한 브레이크 댄스와 함께 펼쳐지는 넌버벌 퍼포먼스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2007년 영국 에딘버러 프렌지 페스티벌 2,050개 참가작 중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가족뮤지컬 '피터팬 버블 매직쇼'

6월 15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6월 16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사전 예매시 50% 할인)
문 의 | 마술램프(010-3494-8255)

신나는 춤과 노래, 환상적인 마술과 즐거운 버블쇼가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 작, 연출/채기윤
· 매직연출/이선범(매직 아티스트)

캐릭터 뮤지컬 '부릉 부릉 부르미즈'

6월 15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6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된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한 '부릉 부릉 부르미즈'.
귀여운 동물 자동차 브루미즈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가 신나는 노래와 춤과 함께 펼쳐진다.

을숙도문화회관 연극열전 '여행을 떠나요'

6월 20일-22일 수-금요일 오후 8:00,
23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자폐증으로 세상에 나아가기가 두려운 32살 재호와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수철의 새로운 만남에서부터 그들의 일상과 사랑을 유괘하게 풀어낸 극단 더블스테이지의 연극 '여행을 떠나요'.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3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새엄마와 언니들의 구박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그린 어린이 뮤지컬.

뮤지컬 '사과가 쿵!'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3일 일요일 오후 1:00, 3: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2만 5천원 · S석 2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책 크기보다 몇 십배 큰 입체그림을 무대 위에서 보는 팝업 뮤지컬로, 신나는 노래와 율동을 어린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뮤지컬 '사과가 쿵!'.

어린이 뮤지컬 '뽀로로와 도깨비 소동'

6월 22일-2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뽀로로 숲 속 마을에 나타난 장난꾸러기 도깨비와의 한바탕 소동을 통해 친구와의 우정을 그린 캐릭터 뮤지컬.

가족뮤지컬 '마법사와 쫓겨난 임금'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2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24일 월요일
오전 11:00(단체관람)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임금님석 5만원 · 마법사석 4만원
문 의 | ㈜문화CONG(1688-8998)

베스트셀러 어린이 학습만화 'Why? 시리즈' 한국사를 뮤지컬 무대로 탄생시킨 가족뮤지컬.
고구려 봉상왕, 고려 의종, 조선 단종 등 시간의 문을 통해 역사 속 쫓겨난 임금님을 만난 마법삼총사의 신나는 모험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함께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2013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BUSAN

6월 22일(토)-7월 17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공간소극장(611-8518)

부산 공간소극장과 대구 한울림소극장, 전주 아하아트홀, 구미 소극장 공터_다, 춘천 봄내극장, 광주 푸른연극마을 등 여섯 곳의 지역 소극장이 지역간의 교류 활성화와 관객들의 보다 다양한 공연관람을 위해 마련한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BUSAN'.

▶6/22일-29일 극단 사람 'Happy and Dim'(부산)

사랑과 감성에 관한 3가지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

· 연출/하현관

· 출연/하현관, 김유하, 이유경, 김미승, 김정환

▶7/2일-3일 극단 도모 '연극바보들'(춘천)

바보처럼 연극만 사랑하는 두 남녀의 로맨틱 코미디극.

· 연출/민경

· 출연/장혁우, 오종욱, 김도란, 원경실

▶7/5일-6일 극단 명태 '신의 아그네스'(전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수녀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믿음을 둘러싼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

· 작/존 피엘미어 · 연출/최경성

· 출연/정세미, 위소라, 양상아, 박나래미

▶7/9일-10일 극단 한울림 '안녕 다온아'(대구)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안녕 다온아'.

· 작/김하나 · 연출/천정락

· 출연/김정원, 김은정, 전아희, 석현오, 이지영, 김정현

▶7월 12일-13일 푸른연극마을 '한남자'(광주)

광주민주화항쟁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남자의 오늘을 그린 '한남자'.

· 작/해강 · 재구성/오성완

· 연출/이당금

· 출연/오성완, 정이형, 구문영, 김성관, 윤금선아

▶7/16일-17일 (사)문화창작집단 공터_다 '종이풍선'(구미)

우울한 일요일을 보내는 한 부부의 갈등을 일상적인 대화로 그려낸 '종이풍선'

· 작/기시다 구니오 · 번역/정미자

· 연출/황윤동

· 출연/이우진, 장희재

한자 교육뮤지컬 '마법천자문'

6월 29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30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만화책 속에서 살아나온 듯한 친근한 캐릭터 손오공과 혼세마왕의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눈 앞에서 펼쳐지는 50여 개의 생생한 한자마법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교육뮤지컬 '마법천자문'.

Dance

2013 제9회 부산국제무용제
춤! 바다를 열다-소통과 융합

5월 31일(금)-6월 4일(화)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90-2507, www.bidf.or.kr)

아름다운 부산 바다에서 펼쳐지는 2013 부산국제무용제. 올해는 '소통과 융합'을 주제로 세계 9개국 우수팀들이 참가, 공식초청공연을 비롯해 Arts Korea 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BID 춤아카데미, BID 워크샵, 댄스필름페스티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5/31일(금) 오후 8:00 BID 공식초청공연

한국 김유미(광주시립발레단), 한국 정신혜무용단, 루마니아 Serglu Dan & Deella Luca, 미국 SEBE KAN, 베트남 S.I.N.E, 한국 신상현, 중국 Guang Zhou Ballet, 스페인 Compania Sharon Fridman, 한국 Gorilla Crew
(* 오후 6:30 BIDF 개막식전 행사, 오후 7:30 개막식)

▶6/1일(토) 오후 6:30 BIDF '열린 춤'무대

부산무용단, JDC 무용단, 윤슬무용단, 마리스 발레단, 성은지무용단, 부산시민대동춤

▶6/1일(토) 오후 7:30 BID 공식초청공연

루마니아 Serglu Dan & Deella Luca, 한국 남정호, 미국 SEBE KAN, 한국 이원국, 일본 AMM Performing Arts, 한국 한창호, 인도 Natya STEM Dance Kampni, 한국 현임숙, 중국 Guang Zhou Ballet, 한국 Gorilla Crew

▶6/2일[일] 오후 6:30 BIDF 춤아카데미

▶6/2일(일) 오후 7:30 BID 공식초청공연

베트남 S.I.N.E, 한국 김보람, 스페인 Compania Sharon Fridman, 한국 장정윤, 일본 AMM Performing Arts, 한국 박은화, 프랑스 Elephant in the Black Box Company, 한국 최은희, 인도 Natya STEM Dance Kampni, 한국 Gorilla Crew

심지영의 춤…인생

6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문 의 | 심지영무용단
(254-7537, 010-5650-7537)

부산무용협회 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무용협회 고문, 부산시무형문화재 제4호 동래지신밟기 보유자로 한평생을 춤과 함께 해온 심지영의 '춤…인생'. 부산의 춤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인생에 담긴 춤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무대를 마련한다.

· 예술감독, 안무/심지영 · 총감독/장래훈

· 연출/김인형 · 사회/최준명

2013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 '찬란한 유산'

6월 4일 화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3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금정문화회관(519-5665)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2)

창단 40주년을 맞아 부산의 정서와 감성으로 새롭게 채색한 한국춤의 향연 부산시립무용단 '찬란한 유산'.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부채춤을 비롯해 부산의 대표적인 민속춤인 동래학춤, 멋과 흥이 넘치는 장고춤, 한국인의 신명을 보여주는 북춤 '천고'까지 다양한 장르의 춤을 선보인다.

현대무용 국제교류 프로젝트 DANCE-X

6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8일 토요일 오후 5:00
LIG아트홀 부산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LIG아트홀(1544-3922)

캐나다 몬트리올, 일본 도쿄, 한국 부산을 잇는 현대무용 국제교류 프로젝트 무대 'DANCE-X'.
참가국인 3개국 순회공연을 통해 각국을 대표하는 젊은 안무가들의 작품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며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한국 '카이로스'(안무/김수현)
일본 '헤테로'(안무/테이타 이와부치, 카오리 세키)
캐나다 '플라이트 디스턴스 Ⅲ:체인 수트'(안무/헬렌 시모노)

2013 아시아 전통무용단 세 번째 공연

6월 16일 일요일 오후 5: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문 의 | 오도경(010-9324-9959)

아시아의 전통과 예술적 감수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춤의 전망을 읽기 위해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로 결성된 아시아전통무용단이 독특한 색깔을 지닌 다양한 중국 춤을 선보인다.

동백춤소리 콘서트

6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783-7831)

지난 2010년 창단된 후 2011 명량대첩축제기념 전국강강술래 우수상, 제3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전국강강술래경연대회 장려상을 수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의 첫 번째 정기공연.

Concert

더 밴드 : 두 도시 콘서트, 두 밴드 이야기

5월 31일 금요일 오후 8:00,
6월 1일-2일 토-일요일 오후 5:00 LIG아트홀 부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LIG아트홀(1544-3922)

걸어온 길과 음악적 지향점은 다르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세계를 구축해온 두 밴드가 함께하는 색다른 무대.

· 5/31일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 6/1일 백현진, 정차식
· 6/2일 3호선 버터플라이, 이이언

해운대문화회관과 무대공감이 함께하는 Jazz 와인에 빠지다

6월 2일 일요일 오후 4:00, 8일 화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S석 2만 5천원
문 의 | 무대공감(623-0678)

한달에 한번 재즈 마니아들의 입과 귀를 충족시켜주는 특별한 무대 'Jazz 와인에 빠지다'.

▶2일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

세련된 음악으로 많은 여성팬들의 여심을 사로잡은 프랑스 꽃미남 밴드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의 무대.

▶8일 핫 페퍼 파스타

일명 '고추장 파스타', 그 이름만큼이나 재기넘치고 흥겨운 재즈를 선보이는 '핫 페퍼 파스타'의 무대.

2013 포맨 콘서트 '들려줄게'

6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 S석 7만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동래문화회관 열린음악회 초여름밤 퓨전클래식 재즈

6월 11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4481)

재즈기타리스트 김은섭을 주축으로 심규성(트롬본), 황성렬(트럼펫), 서진석(드럼), 김수지나(피아노)로 구성된 재즈밴드 크로스노트가 마련하는 열린음악회.

프랑스 켈트음악 '미러필드'

6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4481)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웨일즈, 프랑스의 브레따뉴 등에 전해져오는 전통적인 켈트음악과 현대적인 록비트가 만난 파워퓨전 켈트음악그룹 '미러필드(Mirrorfield)'의 무대.
· 진행/방송인 이다도시

●●●

한낮의 유U; 콘서트
바비킴(Bobby Kim)-부가킹즈(Buga Kingz)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문 의 |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

윤하 콘서트 '플리트비체(Plitvice)'

6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8만 8천원 · S석 7만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WSM(1566-5490)

Event

부산-상하이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상하이문화예술공연단 초청공연

6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5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상하이희극대학 청년무용단, 상하이사범대학 음악학원 단원들로 구성된 상하이문화예술공연단이 출연, 중국의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전통음악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제122회 시울림 시낭송회

6월 5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예강(010-5516-1867)

●●●

무지크바움 제2차 음악교양강좌
자유와 생존 : 음악가의 이상과 현실

6월 13일(목), 20일(목), 27일(목)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1회 수강료 7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부산시민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자 음악평론가인 김창욱의 해설로 진행되는 무지크바움 음악교양강좌.
· 13일/보헤미아의 민족주의자:드보르작
· 20일/노르웨이의 전설:그리그
· 27일/돈, 여자, 그리고 엑조티즘:푸치니

●●●

감동이 있는 시낭송회
제76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6월 15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010-6367-0149)

●●●

詩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34회 시낭송회 '호국원호의 달 詩낭송'

6월 25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詩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867-2569)

Gallery

김덕기展 '행복한 마을로 가는 길'

5월 2일(목)-6월 17일(월)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점 전관
소울아트스페이스(731-5878)

정철교展 '고장난 풍경'

5월 16일(목)-6월 9일(일)
부산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부산프랑스문화원(746-0342)

고은사진미술관 기획전 '그날의 훌라송'

5월 18일(토)-7월 31일(수)
고은사진미술관,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차경희展 '생의 터, 사이의 공간'

5월 24일(금)-7월 15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731-6200)

피터 짐머만 개인전

5월 31일(금)-7월 7일(일) 조현화랑 부산
조현화랑 부산(747-8853)

구해인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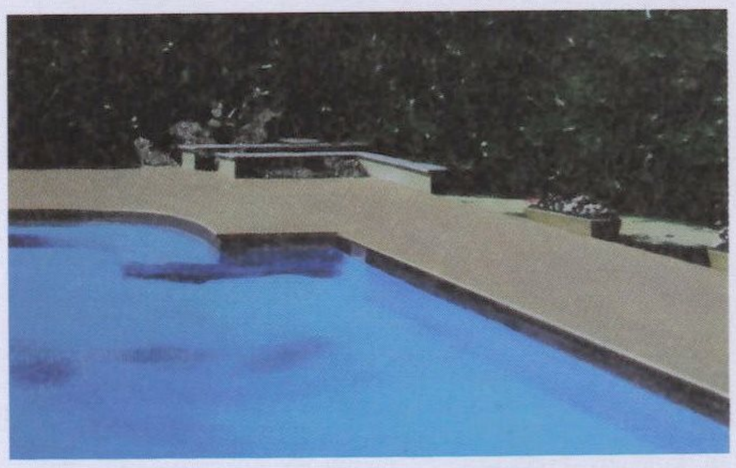
6월 3일(월)-6월 22일(토) 갤러리 움
갤러리 움(557-3369)

락樂, Luck, 락樂

6월 3일(월)-6월 28일(금) 갤러리 아인
갤러리아인(747-2612)

김민경展 'basic-basis'

6월 20일(목)-7월 15일(월)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점 1, 2관
소울아트스페이스(731-5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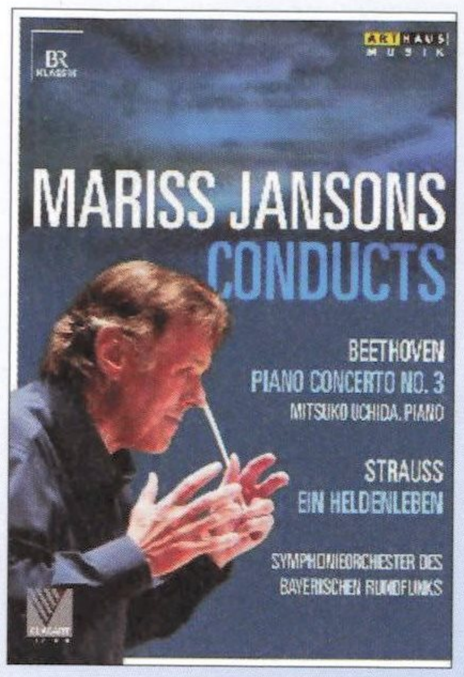


박준영 사진전 '오래된 미래'

6월 24일(월)-7월 13일(토) 갤러리 움
갤러리 움(557-3369)

New Music

문희정_지엠뮤직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 R.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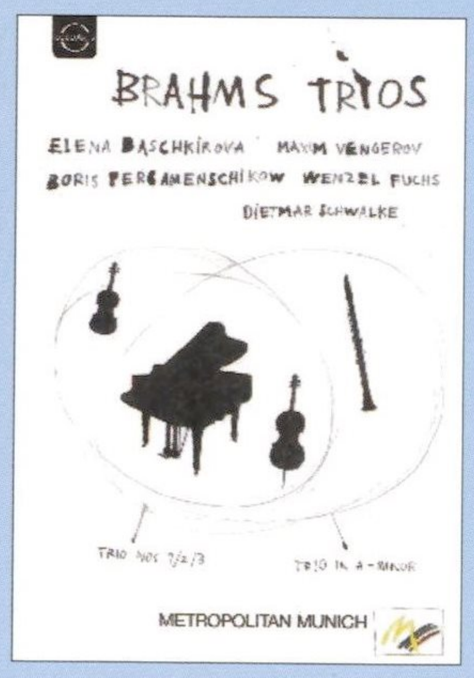
미츠코 우치다(피아노)/ 마리스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 이 시대의 영웅 마리스 얀손스와 여걸 미츠코 우치다의 만남

지휘자 마리스 얀손스는 현재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을 함께 거느리며 명실상부한 이 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음악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영상물은 2011년 3월 뮌헨의 필하모니 임 가스타익에서 있었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온화함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얀손스의 열정적인 모습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중후한 연주를 생생한 화면과 사운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베토벤이 스승 하이든의 영향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가던 무렵에 완성했던 작품인 피아노협주곡 3번에서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의 거장이 얀손스와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그리고 슈베르트의 위대한 해석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 출신의 피아니스트 미츠코 우치다가 바로 그 주인공. 두 거장의 절묘한 호흡에 이어 R 슈트라우스의 자전적 관현악 걸작인 '영웅의 생애'가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 시대 영웅을 당당한 필치로 그려낸 옛 영웅의 모습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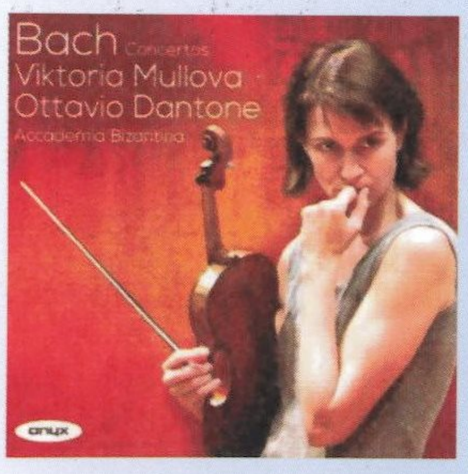
브람스 피아노트리오 1-3번, 클라리넷트리오 작품 114

막심 벤게로프(바이올린)/엘레나 바슈키로바(피아노)/보리스 페르가멘시코프(첼로)/벤첼 푹스(클라리넷)
디마트로 슈발케(첼로)



▶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가 참여한 브람스의 피아노트리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인 막심 벤게로프는 화려한 솔리스트로서의 바쁜 활동에도 불구하고 실내악 장르에서도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왔다. 그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던 시점인 1990년대 중반에 녹화된 이 영상은 벤게로프의 이러한 일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의 아내이자 현재 예루살렘 실내악 페스티벌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엘레나 바슈키로바와 1974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주로 실내악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다가 지난 2004년 세상을 떠난 첼리스트 보리스 페르가멘쉬코프가 브람스의 피아노트리오 1, 2, 3번에서 벤게로프와 함께 긴밀한 앙상블을 만들어냈다. 브람스가 만년에 완성한 매력적인 실내악 걸작인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114도 함께 수록되었다. 현 베를린 필의 클라리넷 수석인 벤첼 푹스와 첼로 단원인 디트마르 슈발케가 바슈키로바와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과 편곡 협주곡들 - BWV 1041,1042,1053,1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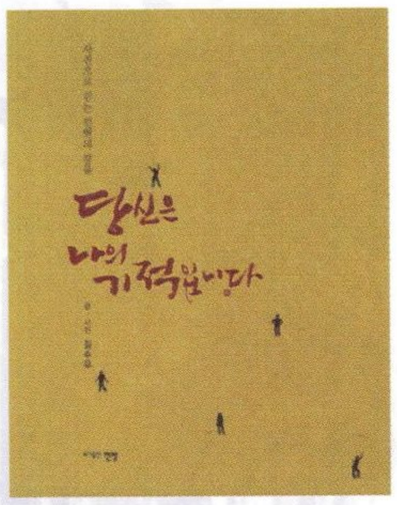
빅토리아 뮬로바(바이올린)/ 오타비오 단토네(하프시코드, 지휘)/ 아카데미아 비잔티나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무반주 작품집을 잇달아 발표하여 찬사를 받았던 빅토리아 뮬로바가 다시 한번 오타비오 단토네, 아카데미아 비잔티나와 함께 협주곡집을 들려준다. 이번 음반에는 통상적인 바이올린 협주곡 두 곡 외에 흔히 바이올린과 오보에 협주곡으로 알려진 다단조(BWV 1060)를 바이올린과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으로 연주하며 하프시코드 협주곡 E장조(BWV 1053)도 연주한다. 선이 분명하고 음색이 다양한 뮬로바의 바로크 바이올린은 시대악기와 현대악기의 장점을 결합했다고 할 만하며, 단토네와 아카데미아 비잔티나의 감각적인 연주 역시 가장 좋은 의미에서의 라틴 풍 바흐이다.

Music

Book

New Book
박현주_북칼럼니스트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김수우 글·사진 / 전망 / 288p / 1만 4천원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 중앙동에서 '백년어서원'을 운영하며 인문학의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김수우 시인의 사진에세이집. 연탄불을 갈 때는, 아래 위 두 개 연탄의 공기구멍을 잘 맞추어야 한다. 그러면 공기구멍을 통하여 아래 연탄불이 위 연탄에 옮아 붙는다. 아래 연탄이 제 몸을 완전히 태워 할 일을 다 하면, 다음에는 위의 연탄이 아래로 내려온다. 다시 새로 위의 연탄에 불꽃을 옮겨줘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인연'을 연탄을 가는 일에 비유했다. 자신의 불꽃을 끊임없이 새 연탄에게로 옮기면서 세상을 데워내는 그 원리가 인연의 세계라는 것이다. 시인이 직접 사진을 찍고 글을 쓴 이 책은 끊임없이 관계가 해체되고 있는 현대의 삶에서 인연의 고리와 소박한 일상들이 얼마나 눈부신 기적인지를 보여준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함부로 하게 되고 상처를 많이 주게 되는 것이 사람살이다. 연탄불처럼 구멍을 잘 맞추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상생의 모든 해법이다. 이렇게 제대로 피운 사랑은 마음을 데우고 집을 데워 생명을 따뜻하게 한다고 시인은 말한다. 책에 실린 150여 컷의 사진들은 모두 시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담아낸 장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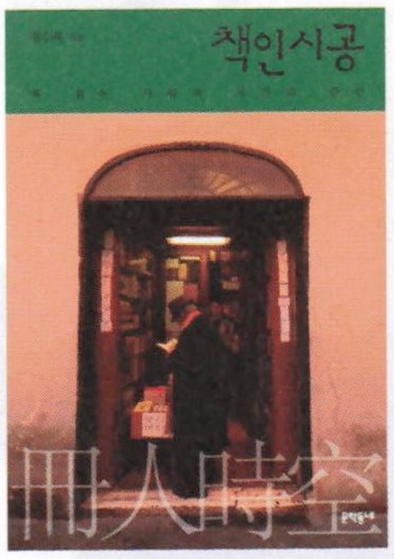
무대의 탄생

소홍삼 지음 / 미래의창 / 352p / 1만 5천원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과 홍보마케팅을 총괄하는 소홍삼 경영지원부장이 직접 쓴 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4월 읽을만한 책'으로 선정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국내 공연예술사에 큰 획을 그은 10개의 작품을 엄선해 무대를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기록하고, 공연이 끝난 후의 시사점과 교훈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연시장은 뉴밀레니엄인 2000년대 들어서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발전과 성장은 수많은 관계자들의 땀과 눈물, 치열한 고민과 열정 위에서 꽃피워졌다. 최근 공연예술의 성장세와 더불어 예술경영과 문화마케팅 관련 서적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현장에서 기획홍보를 맡고, 대학교에서 문화기획과 예술경영을 강의하는 저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2000년~2010년까지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에서 화제가 되고 이슈화 되었던 작품, 교훈과 시사점을 주는 10개의 사례를 꼽았다. 연극 · 뮤지컬 · 무용 · 오페라 · 극장제작 · 복합장르까지 장르를 안배하여 소개했다.

책인시공

정수복 지음 / 문학동네 / 300p / 1만 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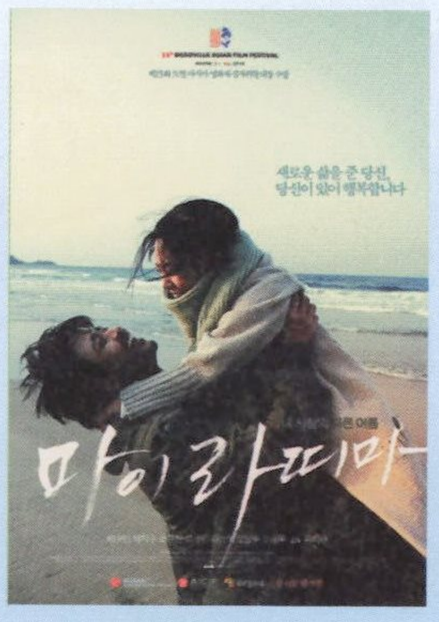
"책은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책 예찬론을 펼쳐온 사회학자 정수복 씨가 평소 주장해 온 '독서권리장전'의 내용을 요약해 본 글이다.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책 읽는 밤〉 〈프로방스에서의 완전한 휴식〉 등의 책을 통해 에세이와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색과 영감의 장소들로 우리를 이끌었던 저자는 이번에는 책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들고 나왔다. 저자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한 책들을 읽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다. 침대, 버스, 전철, 도서관, 서점, 거리 등에서 그리고 아침이나 한낮이나 저녁, 밤 등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저자는 책 속의 글 한 편 '지하철에서 책 읽기'에서 이렇게 썼다. "북적거리는 지하철 출근길에서 멍하니 수동적으로 있다 보면 짐짝이나 먼지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지하철에서 스스로 먼지가 되는 느낌을 갖지 않기 위해 책을 읽는다." 짐짝이나 먼지가 아닌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의 목소리가 책갈피마다 가득하다.

Special Movie

노벨문학상의 감동을 만나다 아이 오브 더 스톰

5월 30일 개봉 CGV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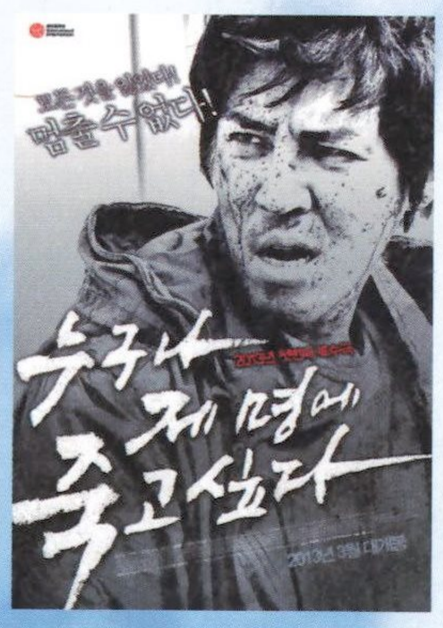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패트릭 화이트의 소설 '폭풍의 눈'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아이 오브 더 스톰'은 임종을 앞둔 어머니를 보기 위해 아들과 딸이 그의 집을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영화는 '상류층 사람이라면 언제든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두 남매, 엘리자베스의 값비싼 물건을 탐내는 간호사와 가정부 등이 등장하면서 분열된 상류층 가족의 갈등과 복잡한 과거로 얽힌 인물들의 심리를 세밀하게 담아내고 있다. 프레드 쉐피시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이 영화는 특히 헐리우드 연기파 배우 제프리 러쉬, 샤롯 램플링, 주다 데이비가 뭉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 극중 어머니의 유산을 탐내는 아들 역에는 제프리 러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기회를 노리는 딸 역에는 주디 데이비스, 그리고 그들의 엄마 '엘리자베스'는 샤롯 램플링이 맡아 호연을 펼친다. 영화 '아이 오브 더 스톰'은 토론토국제영화제 초청작, 멜버른국제영화제 작품상, 로마국제영화제 비평가상 등을 수상하며 이미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희망과 배신의 변주곡 마이 라띠마

6월 6일 개봉 CGV서면

영화배우 유지태의 첫 장편연출작 '마이 라띠마'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 남자 수영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제 결혼한 태국 여성 라띠마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해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마이 라띠마'는 올해 열린 제15회 도빌 아시아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 대상의 영예을 안았다. 매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도빌 아시아영화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이 라띠마'는 올해 이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가진 것도 기댈 곳도 없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남자와 돌아갈 곳도 머무를 곳도 없이 세상에 고립된 여자가 절망의 끝에서 만나 희망과 배신의 변주곡을 그리는 '마이 라띠마'는 유지태 감독이 대학에 재학중이던 15년 전 처음 구상한 작품으로, 그동안 단편영화 제작을 통해 다져온 탄탄한 연출력과 감독 특유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인다. 특히 신선한 마스크와 섬세한 감성 연기로 매머드급 신인 탄생을 예고한 배우 박지수와 배수빈, 소유진, 강성훈의 호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다 2013 첫번째 복수극 누구나 제 명에 죽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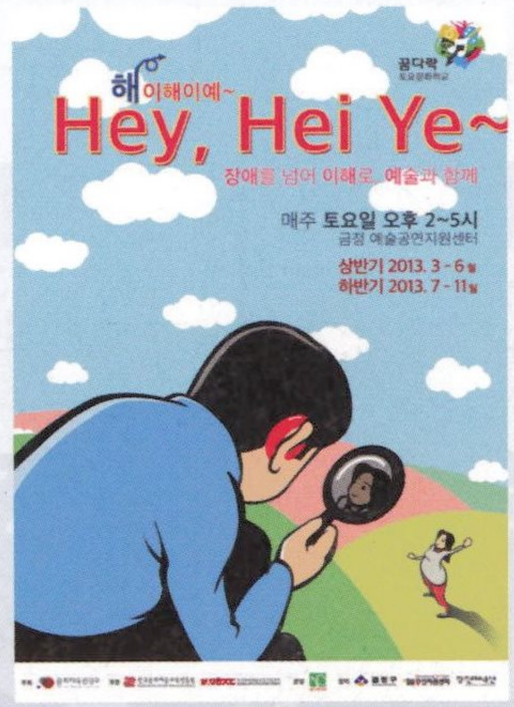
6월 개봉 국도예술관

지난해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 공식초정작으로 선정된 김승현 감독의 '누구나 제 명에 죽고 싶다'는 처절하고 참담한 하드코어로 과감한 연출이 돋보이는 복수극이다. 영화 속 주요 인물인 석호, 진호, 희영, 그리고 조폭 형제들은 사소한 갈등과 오해가 발단이 되어 얽히고설킨 가운데 죽고 죽이며 서로의 삶을 파괴한다. 영화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던 주인공 석호가 일련의 사건을 통해 변해가는 심리 과정을 파격적으로 묘사해 보는 이들에게 강한 충격을 전해준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제작한 다섯번째 작품이자 김승현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으로, 20회차 촬영에 제작비 5,000만원이라는 제한적인 조건에서도 평범한 인간이 펼치는 복수를 긴장감 있게 풀어내 신인감독답지 않은 과감하고도 개성있는 연출을 선보인다. 선한 눈빛을 간직한 배우 최원영이 동생의 죽음으로 모순된 욕망과 분노에 휩싸여 괴물로 변해가는 주인공 역을 맡아 성공적인 연기변신을 하고 마담 역할의 김이정도 캐릭터의 성격을 잘 살려 호연을 펼친다.

Event

Special Event

장애를 넘어 이해로 문화예술과 함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Hey-Hei-Ye!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지닌 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 그리고 예술가들이 뭉쳤다.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장애를 넘어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취지로 장애인 인권단체인 '버팅'과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가 협력해서 진행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Hey-Hei-Ye!'가 상반기에 이어 7월부터 다시 펼쳐진다.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Hey-Hei-Ye!'는 장애청소년, 비장애청소년, 예술가들이 만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함께 나누고 그간의 이야기를 정리해 잡지로 제작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예술가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볼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금정구 예술공연지원센터(518-0053, blog.naver.com/gasquare)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탐방하는 남구, 인문학과 함께 만나다

남구청에서는 올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남구, 인문학과 함께 만나다'를 6월 2일과 6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와 부산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일 '신선대에서 문학을 만나다'에 이어 6일 '이기대에서 철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신선대에서 문학을 만나다'는 동명대학교를 출발해 동명불원, 봉우리산, 신선대를 거쳐 배편을 이용, 오륙도의 등대와 박물관을 투어하는 코스로, 국제신문 박창희 부국장과 '신선대 스토리텔링-저기 둥둥 떠 있던'의 저자인 소설가 이상섭이 참여해 신선대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용호동 사회복지관에서 출발해 이기대와 오륙도 선착장을 걷는 '이기대에서 철학을 만나다'는 소설가 김하기 씨와 송영명 화백이 함께 걸으며 이기대 전설과 오륙도 그림 이야기를 들려준다. 남구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탐방하는 이번 '남구, 인문학과 함께 만나다'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2일 '신선대에서 문학을 만나다' 코스는 배삯을 포함해 1만원이며 6일 '이기대에서 철학을 만나다' 코스는 5천원이다. 자세한 일정 및 참가신청은 부산문화연구회(441-0485)로 하면 된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 비타민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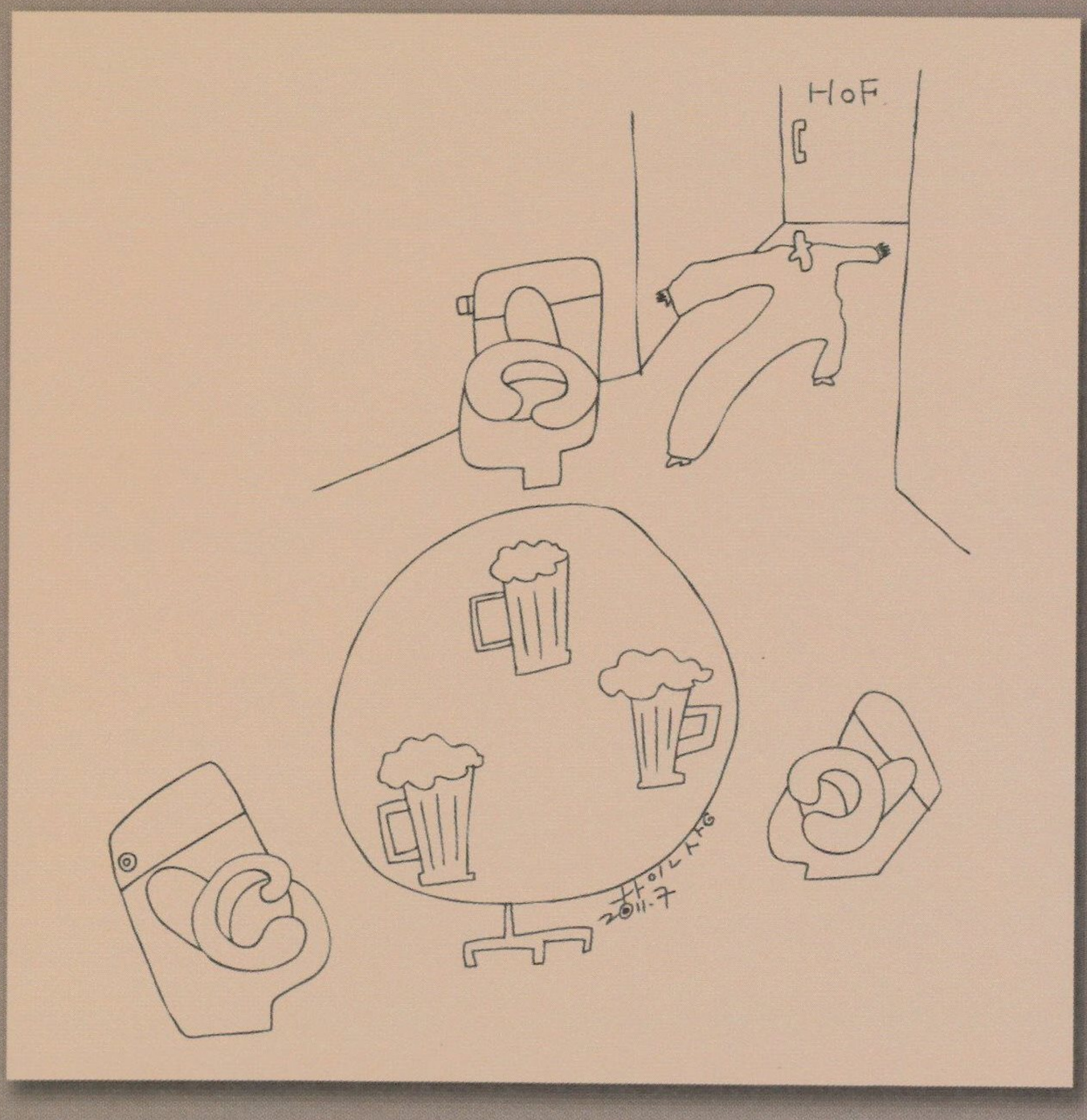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등 매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 '비타민 C'가 6월에도 계속 펼쳐진다. 6월 한달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작가 한송의 '작은 캔버스에 그리다', 작가 김경화의 '교과서 밖 현대미술', 건축사 강기표의 '영화, 건축으로 읽다', 작가 이선옥의 '수제 엽서 만들기'. 한송희 작가의 '작은 캔버스에 그리다(매주 월요일 저녁 7시)'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한 다양한 기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김경화 작가의 '교과서 밖 현대미술(매주 화요일 저녁 7시)'은 이미지의 시대, 감각의 미술, 전복의 미술, 소통의 미술 등 4가지 주제로 멀게만 느껴졌던 현대미술 읽기를 시도한다. 건축사 강기표가 진행하는 '영화, 건축으로 읽다(매주 수요일 저녁 7시)'는 영화와 건축, 영화와 함께 떠나는 도시, 건축여행, 한국 영화속의 건축, 말하는 건축가를 주제로 영화로 읽는 건축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선옥 작가의 '수제 엽서 만들기(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서는 기본적인 그리기와 채색방법을 익힌 후 본인이 직접 그리고 채색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수제엽서 만들기를 진행한다.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466-1978)로 문의하면 된다.

하인상의 생각그림
Metaphortoon

호프집 풍경

성급한 여름이 갈증을 부추긴다. 이럴 땐 시원한 맥주 한잔이 절로 생각난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요의는 더위만큼이나 성가시다. 가끔 앉아서 볼 일을 보는 상상을 해본다.

메타포투니스트 · 시인



BUSAN CULTURAL CENTER
NEWS

BUSAN CULTURAL CENTER

독일과 체코를 감동시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5월 3일부터 11일까지 독일 할레市와 함부르크, 드레스덴한인회, 체코한인회의 초청으로 유럽 연주길에 오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현지인들의 큰 관심과 성원 속에 공연을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난해 헨델의 고향 할레에서 열린 '제33회 할레국제어린이합창제'에서 우승한 것을 계기로 2013년 제34회 합창제의 축하공연에 초청 받으면서 공연이 성사되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5월 4일 오전 10:00~11:00, Ulrichskirche~할레시청 구간 거리 퍼레이드와 이후 진행된 Marktplatz 특설무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현지인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5월 5일에는 제33회 우승팀 자격으로 Konzerthalle Ulrichskirche에서 5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단독 공연을 진행, 문화 도시 부산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리기도 했다.

할레의 뜨거운 분위기를 체감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어 독일 함부르크 Petruskirche(7일)와 드레스덴 Barockgarten Grossedlitz(9일), Dreikoningskirche(10일)에서 단독공연을 가지며 둥개둥개 둥개야, 경복궁타령, 추천가, 라데츠키 행진곡 등 우리 가락과 춤으로 최고의 앙상블을 선보였다.

독일 공연 후 체코 연주길에 올랐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1일 Kostel sv. Simona a judy에서 열린 제1회 한 · 체 차세대 음악회에서 단독공연을 가지며 우리 음악에 목말랐던 교민은 물론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정서가 살아있는 최고의 음악을 선물했다.

2개국 대사 · 총영사, 지역 한인회장, 교민들이 대거 참가, 독일과 체코 지역에 화제를 낳았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순회공연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창단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6월 찾아가는 예술단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문화회관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6월 일정이 확정되었다.

6월에는 4일 금양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시작으로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1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3회, 내사랑 부산 공연 2회가 열린다.

6월 4일(화)	13:30 금양초등학교 강당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금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출연/교향악단)
6월 13일(목)	19:30 다누림센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초청 음악회'(출연/교향악단)
6월 14일(금)	10:00 부산시청 대강당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제8회 세계노인학대 인식의날 기념 음악회'(출연/교향악단)
6월 19일(수)	14:30 롯데호텔 아트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제15회 홀로어른 위로잔치'(출연/무용단)
6월 25일(화)	11: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내사랑 부산 공연	'제63주년 6 · 25전쟁 기념식'(출연/합창단)
6월 26일(수)	12:30 부산시청 로비	내사랑 부산 공연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로비 콘서트'(출연/국악관현악단)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지난호정답

천	원	의	행	복			조	덕	배
	효		주			캣		담	
앙		위	대	한	개	츠	비		홍
상	모		첩		성		올	레	길
블		신		묵	공		라		동
디	오	라	마		단	테		나	
토			에	코		디		이	란
	비	지	스		시	베	리	아	
유	엔		트		어		가		
	나	홀	로	집	에		마	라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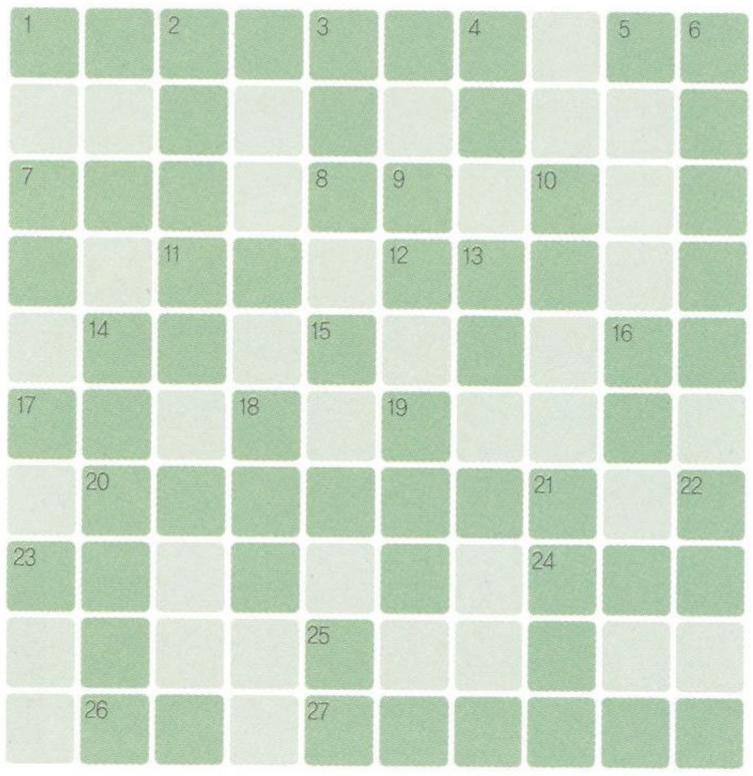
5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미영(금정구 구서동)
남미희(해운대구 좌동)
서정혁(남구 용호동)
이종열(사하구 괴정3동)
정경은(남구 용호1동)

조은극장 초대권
이선희(사하구 낙동남로)
이지현(연제구 연산5동)
박지은(연제구 거제3동)
변순선(사하구 하단동)
조미정(금정구 장전동)

큰집 식사권
김은미(부산진구 연지동)
김연경(사하구 괴정4동)
김희진(서구 아미동)
송정목(사하구 다대동)
형경민(동래구 온천3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3년 6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로열쇠]

❶ 바다를 배경으로 해변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세계 유일의 무용축제. 올해로 9회째를 맞으며,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❺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비올리스트. 6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하늘아래 그 콘서트'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❼ 허균의 '홍길동전'에 묘사된 이상사회.

❽ 중앙아메리카에서 발생한 곡예 댄스. 춤을 추면서 낮게 가로놓인 막대 밑으로 빠져나간다.

⓫ 음악의 곡조를 일정한 기호를 써서 기록한 것. 주로 오선식(五線式) 보표가 사용된다.

⓬ 목관 악기의 하나.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을 내며 재즈의 유행과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주요한 악기가 되었다.

⓮ 창덕궁 내에 있는 조선시대 정원. 임금의 소풍과 산책에 사용한 후원으로, 울창한 숲 속 곳곳에 운치 있는 정자와 연못이 있다.

⓯ 프랑스 동남쪽 지중해 기슭에 있는 관광 휴양도시로, 1946년부터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다.

⓰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지은 장편소설로, 196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⓱ 조선시대에 남자들이 통상 예복으로 입던 웃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딴 폭을 댄다.

⓴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미래소년 코난'으로 데뷔한 후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등 대작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했다.

㉓ '사디즘'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프랑스의 소설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쥐스틴, 또는 미덕의 불행', '알린과 발쿠르', '소돔 120일' 등이 있다.

㉔ 첫돌에 돌상을 차리고 아이에게 마음대로 골라잡게 하는 일. 흔히 실, 돈, 곡식, 붓, 책, 국수, 활 등을 돌상에 차리는데, 어느 것을 고르는가로 그 아이의 장래 운명을 점친다.

㉖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

㉗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발레곡. 호프만의 동화를 각색하여 만든 열다섯 곡의 모음곡으로, 1892년에 초연된 2막 3장의 발레음악이다.

[세로열쇠]

❷ 전통음악과 무용을 보존, 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국립음악기관.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등 네 개의 소속 연주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 남원과 전남 진도, 부산 등 세 곳에 지방 국악원을 두고 있다.

❸ 이슬람교도. 어의(語義)적으로는 알라(Allah)에 절대적으로 귀의한 자를 의미한다.

❹ 한 해의 액을 막기 위해 짚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 마을제의가 끝날 무렵에 불에 태우거나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낸다.

❻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자위(自衛)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의무를 지는 국가.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 등 3개국이 이에 속한다.

❼ 서경덕의 학설을 이어받아 주기론을 발전시켜 이황의 주리적 이기설과 대립한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인 이이(李珥)의 호.

❾ 다른 색상의 두 빛깔이 섞여 하양이나 검정이 될 때, 이 두 빛깔을 서로 이르는 말.

❿ 프랑스어로 '넝마조각'이라는 의미를 지닌 가볍고 얇은 견직물. 여성용 블라우스나 드레스, 란제리, 스카프 등에 사용한다.

⓭ 뉴욕 맨해튼의 남쪽, 휴스턴가(街)와 커널가(街) 사이의 화랑 밀집지대로 'South of Houston'의 약어이다.

⓮ 1995년 사랑의 떨림을 일깨워줬던 '비포 선라이즈'와 2004년 사랑의 그리움을 안겨줬던 '비포 선셋'에 이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에단 호크, 줄리 델피 주연의 영화.

⓰ 산간 지대에서 눈에 빠지지 않도록 신 바닥에 대는 넓적한 덧신. 칡, 노, 새끼 따위로 얽어서 만든다.

⓲ 프랑스어로 '이미 보았다'는 의미로,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

⓳ 중국 양쯔강(揚子江) 하구에 있는 중국 최대 도시로, 중요한 공업기지이자 항구와 무역, 과학기술, 정보, 금융의 중심지이다.

㉑ 제주 특유의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가락에 제주의 명승지가 나열되는 제주민요.

㉒ 원주율을 나타내는 부호.

㉕ 중국 근대의 현악기. 호금(胡琴)의 일종으로 중국어로는 얼후라고 한다.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2013년 6월 공연일정

6 2013 June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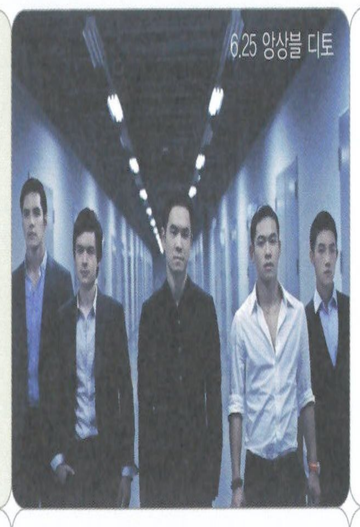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전시실 제8회 부산디카사랑 사진전시회-중전시실 5월 30일(목)-6월 2일(일) 임구택(201-1445, 010-4415-0035) 제7회 한서미술대전-대, 중전시실 대전시실 : 6월 5일(수)-6월 9일(일) 중전시실 : 6월 5일(수)-6월 8일(토) 정충옥(811-1238, 010-2582-4201)	부산미술대전 제4회 사제동행전-중전시실 6월 10일(월)-6월 15일(토) 부산미술협회(632-2400) 제17회 부산회화제-대, 중전시실 6월 26일(수)-7월 2일(화) 김명수(010-4138-4847)	 6.25 앙상블 디토				**1** 아지무스오페라단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베르디 오페라 갈라축제' 19:00 8만원·5만원·3만원·2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2 한무전통예술단-그 소리, 몸짓 18:00 무료/신다희(010-5506-6263)	**3** Busan Elders Choir 제15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Busan Elders Choir(010-8531-7916) 2013 부산국제무용제 공식행사 III AK21 국제안무가육성 공연 19:00 균일 1만원/부산국제무용제(868-7881)	**4** 2013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연의 밤 19:30 균일 1만원/(사)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070-7727-0188, 010-9630-5449) 2013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식 및 공식 초청공연 19:00 균일 1만원/부산국제무용제(868-7881)	**5** 하신혜 피아노독주회 19:30 초대/하신혜(010-7764-4630)	**6**	**7** 이루마 콘서트-위드미샤 5 19:30 초대/(주)에이치아이이엔티컴퍼니(070-7814-7330, 010-5560-8618)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창작발표회 18:30 무료/부산예술대학교(627-7992, 010-2361-6216)	**8** 뮤즈콘서트콰이어 제7회 정기연주회 17:00 균일 1만원/뮤즈콘서트콰이(010-5503-9693) 인코리안아카데믹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인코리안아카데믹오케스트라(010-4842-6688) 토요상설무대-부산버슴새예술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9 송민서 타악기 독주회 17:30 초대/송기태(010-3580-3318)	**10**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11**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12**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13**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1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15** U.K.O 제29회 사랑나눔음악회 'Love Song' 19:30 균일 2만원/U.K.O(626-8084, 011-591-3342) 조이오브스트링스 '개나리와 함께하는 Healing Concert' 17:00 초대/조이오브스트링스(02-3471-6686) 토요상설무대-도시樂(DosiRak)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16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성공기원 음악회 19:30 초대/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31-1377)	**17** 테너 조윤환 독창회 20:0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18**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산시립합창단 제146회 정기연주회 베르디 '레퀴엠'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김민정 플룻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김민정(010-3918-8442)	**19**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013 제30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	**21**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희망콘서트 19:30 3만원·2만 5천원·2만원/극단 파랑새(1544-2486) 2013 보훈의 달 6·25 특집 라메르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꿈 콘서트' 19:30 2만원·1만원/라메르오케스트라(627-566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Ga-Young'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22** 부산하모니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19:00 초대/부산하모니합창단(610-1304) 창립 60주년 기념 KBS부산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초대/KBS부산어린이합창단(010-3864-9889)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외국인 유학생 초청공연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23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7:00 초대/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781-0044)	**24**	**2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앙상블 디토 시즌7 '바흐 코드' 19:30 5만원·4만원·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무용단 2013 풍류 7기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춤 빛깔 찾기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6** U.K.O 유스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5천원/이재복(010-5540-1538) 제4회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19:30 무료/엄남이(010-7519-9843)	**27**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1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II'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22회 글로리콰이어 정기연주회 19:30 초대/글로리콰이어(010-8544-4702) 외국인 유학생 초청 공연 15:00 부산문화회관(607-6056)	**28**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군악대 합동 호국음악회 19:30 초대/해군작전사령부(679-6063~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12회 솔로이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9** 닥터스 심포닉밴드 제12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닥터스 심포닉밴드(010-2561-6047)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30 유진박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15:00, 19:00 초대/유진박후원회(010-8535-4300) 월차밴드 소통콘서트 16:30 무료/정광석(010-3553-6937)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r을 click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June 2013 Program Guide

6 2013 June

Grand theater Medium theater Small theater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P.Y.O**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B.M.J.C**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7/1 Busan Dance Festival, 2013 19:30 10,000/5,000/Busan Dance Association(632-5116)	7/2 Busan Dance Festival, 2013 19:30 10,000/5,000/Busan Dance Association(632-5116)	7/3 Busan Dance Festival, 2013 19:30 10,000/5,000/Busan Dance Association(632-5116)				1 Commemorate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Giuseppe Verdi 'Opera Gala Festival' 19:00 80,000/50,000/30,000/20,000 Agimus Opera Company(070-7522-4649)
2 Hanmu Traditional Dance Company Performance 18:00 Free/Shin Dahee(010-5506-6263)	3 The 15th Regular Concert of Busan Elders Choir 19:00 Free/Busan Elders Choir(010-8531-7916) The 9th Busan International Dane Festival, 2013 19:00 10,000/Busan International Dane Festival(868-7881)	4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Pops Orchestra 19:30 10,000/Busan Metropolitan Pops Orchestra (070-7727-0188, 010-9630-5449) The 9th Busan International Dane Festival 'Closing Ceremony & Invitation Performance' 19:00 10,000/Busan International Dane Festival(868-7881)	5 Ha Sinhye Piano Recital 19:30 Invitation/Ha Sinhye(010-7764-4630)	6	7 Yiruma Concert With MISSHA 5 19:30 Invitation/HIEnt.(070-7814-7330, 010-5560-8618) Busan Arts College, Department of Practical Dance 'Creative presentation' 18:30 Free/Busan Arts College(627-7992, 010-2361-6216)	8 The 7th Regular Concert of Muse Concert Choir 17:00 10,000/Muse Concert Choir(010-5503-9693) The 17t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Academic Orchestra 19:00 Invitation Incorean Academic Orchestra (010-4842-6688) Saturday Regular Stage-Busan Beosumsa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9 Song Minseo Percussion Recital 17:30 Invitation/Song Gitae(010-3580-3318)	10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11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12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13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14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2013 Busan Music Concours-Preliminary 09:00 Busan MBC(760-1124)	15 The 29th Regular Concert of United Korea Orchestra 'Love Song' 19:30 20,000/U.K.O.(011-591-3342, 010-9663-4224) Joy of Strings 'Together with Forsythia-Healing Concert' 17:00 Invitation/Joy of Strings(02-3471-6686) Saturday Regular Stage-Dosirak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16 A Concert for Hoping Successful Building of Busan Opera House Free/BSO(631-1377)	17 Tenor Jo Yunhwan Recital 20:00 10,000/Art Bank Correa(442-1941)	18 The 146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19:30 10,000/7,000/5,000/B.M.C(607-3141~2) Kim Minjung Flute Recital 19:30 10,000/Kim Minjung(010-3918-8442)	19 2013 Busan Music Concours-Final 09:00 Busan MBC(760-1124) 2013 Busan Music Concours-Final 09:00 Busan MBC(760-1124) 2013 Busan Music Concours-Final 09:00 Busan MBC(760-1124)	20 2013 Busan Music Concours-Final 09:00 Busan MBC(760-1124) 2013 Busan Music Concours-Final 09:00 20,000/10,000/Busan MBC(760-1124) 2013 Busan Music Concours-Final 09:00 Busan MBC(760-1124)	21 The Four Finger Pianist Lee Heeah 'Hope Concert' 19:30 30,000/25,000/20,000 Bluebird Theater(1544-2486) The 4th Regular Concert of La Mer Orchestra 19:30 20,000/10,000/La Mer Orchestra(627-5665) The Concert, Under the Sky Vol.34 'Ga Young' 20:00 30,000/B.C.C(607-6058)	22 The 10th Regular Concert of Busan Harmony Choir 19:00 Invitation/Busan Harmony Choir(610-1304) The 60th Anniversary Concert of KBS Busan Children's Chorus 17:00 Invitation/KBS Busan Children's Chorus(010-3864-9889) Saturday Regular Stage-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23 Ukraine Sevastopole State Symphony Orchestra Concert 17:00 Invitation/Korea International Art Exchange Council(010-9168-9434) 30 Eugene Park Concert 15:00, 19:00 Free/Eugene Park Association of Supporter(010-8535-4300) Wolcha Band Concert 16:30 Free/Jung Gwangseok(010-3553-6937)	24	25 2013 Ensemble DITTO Season 7 Recital (Bach Code) 19:30 50,000/40,000/30,000/B.C.C(607-6057)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2013 Pung Ryu 風流-The 7th Finding Our Dancing Characteristics with Citizen 19:30 3,000/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607-3131~2)	26 The 5th Regular Concert of United Korea Youth Orchestra 19:30 5,000/United Korea Youth Orchestra(010-5540-1538) Soprano Um Nami Recital 19:30 Invitation/Um Nami(010-7519-9843)	27 The 491st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Beethoven Symphony Cycle III' 19:30 10,000/7,000/5,000/B.P.O(607-3111~3) The 22th Regular Concert of Glory Choir 19:30 Invitation/Glory Choir(010-8544-4702)	28 Land and Sea, the Department of the Air Force Joint Concert 19:30 Invitation/Lee Jongmu(679-6063~4) Busan Youth Philharmonic Orchestra 'Soloist of the Festival' 19:30 2,000/B.P.O(607-3111~3)	29 The 12nd Regular Concert of Doctors Symphonic Band 19:00 Free/Doctors Symphonic Band(010-2561-6047) Saturday Regular Stage-Busan Metropolitan Chorus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Discounted tickets available for annual members. •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 Please visit our website at http://culture.busan.go.kr for more information. • For invitation, please call the organizer.

부산시립극단 제47회 정기공연

이 시대의 어머니

계사니

• **원작** : 이근삼
• **드라마트루기** : 김동규
• **연출** : 문석봉(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 **각색 · 협력연출** : 오리라
• **음악 · 청각감독** : 강원중

• **출연** : 이돈희,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황창기, 이혁우, 염지선,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박규한
주은실, 전지은, 이수아, 김보경, 김성열, 신승우, 이재찬, 이효심, 임신효, 정인옥, 차승현

• **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주관** : **부산시립극단**

2013. 7. 11(목)~14(일)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권 : 일반 10,000원 · 중고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극단 607-3151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셔틀버스 운행 : 대연역 5번출구(7번가 피자 앞) 오후 7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역사의 섬 가덕도

2013년 7월 12일(금)

신항만과 거가대교로 한층 더 가까워진 부산 최대의 섬 가덕도 기행. 가덕도 왜성과 부산광역시기념물 제35호 지정된 가덕도 척화비, 1909년 12월 첫 불을 밝힌 우리나라 초창기 등대인 가덕도 등대 등 다양한 역사 유적이 산재한 가덕도에서 또 다른 부산의 모습을 찾아본다.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09:30 천성 선착장에서 대항으로 이동
가덕도 등대 탐방
12:00 중식
13:00 록봉교육민속박물관 관람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7:00 부산으로 출발

義와 禮의 고장 의성

2013년 8월 9일(금)

아름답고 풍요로운 의와 예의 고장 의성으로 떠나는 여름여행. 등문산 자락,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고운사(孤雲寺)', 의성의 명물 사과를 이용한 와인 만들기 체험, 2013년 4월 개관된 의성 조문국 박물관 등을 둘러본다.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10:30 의성 도착, 천년고찰 고운사 탐방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2:00 한국애플리즈로 이동, 중식
13:00 사과따기, 나만의 사과와인 만들기 체험
16:00 조문국박물관 답사
17:00 부산으로 출발

2013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busan.go.kr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June Vol·258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6.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58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6.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58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4

Ga-Young 콘서트

2013. 6. 21. Fri. PM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8

20% Discount
센텀점
TODAI Restaurant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Newtop Dental Clinic
해운대뉴탑치과

20% Discount
연극
쉬어매드니스

20% Discount
뮤지컬
사랑할까요?

culture.busan.go.kr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June Vol·258

토다이 센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2-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 뉴탑치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부산 해운대구 우동 602-5
051)744-280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극 '쉬어매드니스'

2013.6.14(금)-7.14(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 공휴일 오후 3시, 6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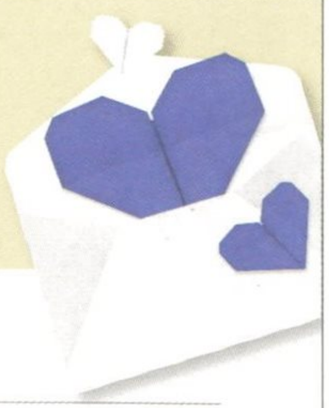
뮤지컬 '사랑할까요?'

2013.5.17(금)-6.9(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3년 7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 자 의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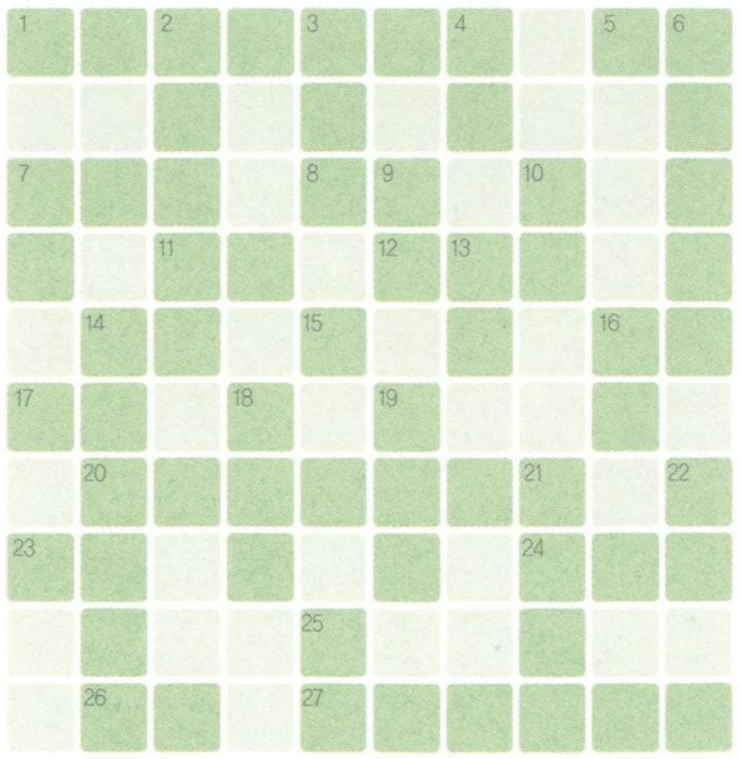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 퍼즐정답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NO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YES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부산시립합창단 제146회 정기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146TH REGULAR CONCERT

부산시립합창단 주세페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레퀴엠"

REQUIEM

G.Verdi 200th *Anniversary*

2013. **6.18** |화|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입장료. R석–10,000원, S석–7,000원, A석–5,000원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시립합창단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1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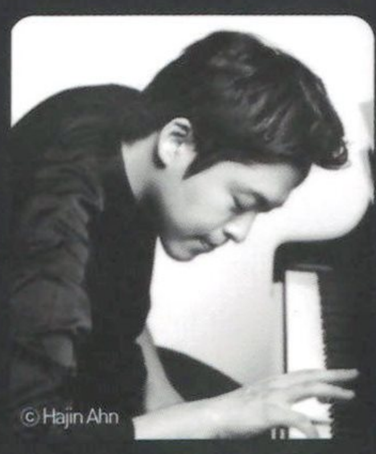
LI XINCAO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BEETHOVEN
SYMPHONY CYCLE Ⅲ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Ⅲ

2013. 6. 27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베토벤 | 교향곡 제4번
L.v. Beethoven | Symphony No.4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J. Brahms | Piano Concerto No.2



피아노 김 선 욱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